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

근로자

7 호 7월 2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7

근로자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7호 (140)

1957년 7월 25일

내 용

쏘련 공산당의 레닌적 통일은 필승 불패이다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의 력사적 결정은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쏘련 공산당과 국가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그 행정에서 거창한 성과들이 달성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들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 새롭고 강력한 앙양을 체험하고 있을 때에 말렌꼬브, 까가노비치, 몰로또브의 반당 그루빠는 당의 총 로선을 반대하며 당 지도부의 성원들을 종파적 방법으로 경시키려는 반당적 행동을 감행하였다.

최근에 진행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에서는 말렌꼬브, 까가노비치, 몰로또브의 반당 그루빠에 대한 결정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여 반당 그루빠에 대한 결정에 전'적인 지지와 동의를 표명하였다.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의 금번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나섰다. 이는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대렬의 확고한 통일과 단결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시위한 것으로 되였으며 국제 반동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강력한 타격으로 된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가 레닌적 당 생활 원칙에 엄격히 립각하여 채택한 금번 결정은 당 중앙 위원회가 당의 통일을 부단히 강화하며 당 내에서의 종파 및 반당 그루빠 행동의 사소한 표현에도 결정적 타격을 주어야 할 의무에 충실한 조치였다. 이 결정은 당 내에서 반당 그루빠의 종파적 활동을 제때에 극복함으로써 당 대렬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한층 철석같이 통일 단결되였다는 것을 력력히 보여 주었으며 당의 통일 단결은 필승 불패이라는 것을 시위하였다.

최근에 진행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의 결정은 제20차 대회의 결정을 실행하려는 견결한 결의로 충만되여 있기 때문에 쏘련 인민들과 각국 형제 당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일치한 찬동을 받고 있다.

쏘련 공산당의 력사에서 제20차 대회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제20차 대회는 쏘련 공산당의 조직 사상적 통일과 그 대렬의 강철같은 통일을 전 세계에 시위하였다. 대회는 쏘련 공산당이 자기의 위대한 목적——공산주의 사회를 레닌적 길을 따라 건설하려는 강력한 창조적 정력과 확고 부동한 의지로 충만되여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대회는 또한 국제 로동 운동과 세계 평화 옹호 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현 국제 정세 발전에 관한 일련의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하였으며 거대한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 세계 인민들에게 커다란 전망을 열어 주었으며 고무적 힘을 주었다.

그러므로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결정은 쏘련 인민들이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열렬한 찬동과 일치한 지지를 받았으며 모든 형제 당들과 세계의 모든 진보적 계층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다. 우리 당은 자기의 제3차 대회에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명하였다.

제20차 대회 후 쏘련 공산당은 레닌적 당 생활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였으며 국가와 당 사업에 대한 집체적 지도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였으며 사업 방법과 형태들을 부단히 완성함으로써 자기 대렬의 거대한 통일과 단결을 달성하였으며 인민 대중과의 불패의 련계를 확대 강화하였다. 오늘 쏘련 공산당은 의지와 행동의 전례 없는 통일로 하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의 전 당의 튼튼한 결속과 당의 인민 대중과의 공고한 단결로 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여 졌다.

쏘련 공산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는 이 위

대한 통일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당의 위대한 통일은 수십년간에 걸치는 부르죠아 정당, 멘쉐비크, 뜨로츠끼, 부하린, 부르죠아 민족주의자 및 기타 당 내외의 원쑤들과의 가렬한 투쟁 속에서 단련 강화되였다. 당은 이 투쟁에서 레닌적 원칙에 확고히 립각하면서 온갖 기회주의, 수정주의 그리고 반당적 편향과 그루빠들을 꾸준히 분쇄하였으며 항상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하였으며 당 단체들의 위력을 강화하였다.

당 대렬 내에 그루빠와 그리고 맑스—레닌주의에 모순되는 사상 정치적 견해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공산당의 의지와 행동의 통일은 당 자체의 성격과 목적과 과업에 의하여 조건 지어 지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독재의 쟁취와 유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은 자기의 견해와 활동에서 통일된 당, 자기의 결속성과 규률로 하여 강력한 당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쏘련 공산당의 강력한 통일 단결과 그의 인민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는 당의 전투력을 한층 제고하였으며 쏘베트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을 더욱 제고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쏘련 공산당은 당 및 국가 생활 규범의 회복과 공업 및 농촌 경리에서 새롭고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쏘련 공산당은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공업에 대한 관리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며 경제 구역에 인민 경제 쏘베트를 설치하였으며 농촌 경리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였으며 또한 최근 년간에 인구 1인 당 우유, 빠터 및 육류 생산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 잡을 데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과업을 전체 인민 앞에 제기하였다. 당은 쏘베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가맹 공화국들의 권한을 확대시키며 사회주의적 법률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 결과에 쏘베트 사회의 정치 도덕적 통일과 쏘련 인민들 간의 친선은 가일층 공고화되였다.

쏘련 공산당은 자기 대렬의 불패의 통일에 확고히 의거하면서 레닌적 대외 정책과 일련의 평화 애호적 조치들을 끈기 있게 꾸준히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제20차 대회 후 쏘련 공산당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통일 단결은 더욱 공고 발전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들과 평화 애호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 정책에 립각한 친선 협조 관계가 강화되였으며 국제 긴장 상태가 완화되였다.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이며 사회주의의 조국인 쏘련의 위력의 전례 없는 장성은 모든 나라의 광범한 인민들에게 평화와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한, 그리고 제국주의 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한 신심을 더욱더 북돋아 주고 있다. 쏘련 인민의 거대한 성과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조선 인민들에게 자기 위업에 대한 정당성과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한층 더 굳게 하여 주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형제 당들과 함께 우리 당은 쏘련 공산당과 인민들의 위대한 성과를 자기 자신의 성과로서 열렬히 환영한다.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적 경험은 혁명 수행 도상에 새로운 변천과 새로운 발전, 새로운 앙양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혁명 대렬에서 락후하고 보수주의적이며 기회주의적 분자들이 리탈해 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낡은 방법, 낡은 인습, 낡은 관념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사고와는 불가 상용적이다. 부단히 발전하는 새로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지위에만 눈이 어두운 락후한 사람들은 전진 운동과 진보를 저애하며 궁극적으로는 발전하는 생생한 현실로부터 리탈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맑스—레닌주의를 독경주의, 교조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며 지난 날의 낡아 빠진 사고 방법과 사업 방법을 고집하면서 혁명의 발전에 따라 가지 못하고 한자리에서 답보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창조적 방법으로 일하며 발전 전진하는 것을 시비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지위만을 탐내며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파적 행위를 감행한다.

제20차 대회 후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들이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각 분야에서 쟁취한 새로운 발전과 앙양은 지금까지 당 내에 은신하고 있던 낡은 것들, 즉 말렌꼬브, 까가노비치, 몰로또브의 반당 그루빠들을 발로시켰다.

당 및 국가 생활로부터 먼 거리에 서 있었던 반당 그루빠는 조성된 새로운 조건과 환경을 보지 못하고 쏘련의 사회 발전과 사회주의 진영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 당의 중요한 대내외 정책들을 배격하면서 낡아 빠진 사업 형식과 방법들을 완강히 고집하였다. 그럼으로써 반당 그루빠는 맑스—레닌주의에 생기 없는 독경주의, 교조주의적 태도로 대하게 되였으며 현 조건하에서 현실에 옮겨지고 있는 산 맑스—레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이 제20차 대회 결정들의 실천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리해할려고도 하지 않았다.

정치적 소경이 된 반당 그루빠는 제20차 대회의 결정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반대하여 나섰다. 본질에 있어서 그들은 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 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레닌적 로선을 반대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와 전 세계 인민들과의 쏘련의 친선 관계의 설정을 반대하려고 시도하였다. 반당 그루빠는 가맹 공화국들의 권한의 확대, 공업 관리에 대한 개편과 경제 구역에의 인민 경제 쏘베트의 설치, 농산물 생산을 증대함에 있어서 콜호즈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의 제고의 필요성, 콜호즈에서의 낡은 관료주의적 계획 수립 절차의 폐지와 새로운 계획 수립 절차의 확립, 금년말에 콜호즈 농민의 개인 경리로부터의 농산물 의무 납부제를 폐지할 데 관한 문제, 가까운 년간에 주민 1인 당 우유, 빠터 및 육류 생산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 잡자는 당의 호소, 그처럼 커다란 의의를 가진 처녀지 개간 사업, 혁명적 법률 제도의 확립 등을 반대하여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을 감행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당 그루빠는 제20차 대회의 결정과 그에 기초한 당의 조치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 투쟁에 궐기한 쏘련 인민들의 창조적 운동을 모르는척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광범한 인민들의 절실한 사활적 리해 관계에 대하여 봉건 량반처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개인의 리익과 직위에 눈이 어두워진 반당 그루빠는 끝끝내 당의 정책을 변경시키며 제20차 대회에서 규탄된 부정확한 방법들에로 당을 돌려 세우려는 목적을 추구하여 음모적 방법에 매여달리면서 비밀 공모를 하는 길에 들어 섰다.

이 반당 그루빠에 대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의 단호한 조치는 당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원칙적이며 정당한 것이였다.

우리는 쏘련 공산당이 력사적인 제20차 대회가 제시한 레닌적 총 로선을 따라 장엄한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와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가일층 공고화함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금번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의 정당한 조치는 각국 형제 당들과 함께 우리 당으로 하여금 당 대렬의 사상 의지 및 행동 통일의 필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케 하였으며 우리에게 반당 종파 분자들과의 투쟁에서 모범을 보여 주었다.

우리 당은 그 창건 첫날부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결정적 담보인 자기 대렬의 통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였으며 그를 위한 투쟁을 순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시종일관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특히 우리 당은 해방 전의 우리 나라 로동 운동과 해방 후의 남조선 로동 운동에서 종파 분자들이 끼친 죄악적인 해독에 대한 쓰라린 교훈을 고려하여 당 내에서 종파적 행동이 발현되지 않도록 항상 높은 당적 경각성을 견지하여 왔으며 당 내에서의 종파 행동의 사소한 발현이라도 용허함이 없이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우리 혁명 대렬에 기여 들었던 각종 기회주의 분자들과 종파 분자들은 우리 당의 통일 단결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한두번만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때마다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지도 밑에 전 당과 전체 당원들에 의하여 제때에 폭로 분쇄되였다.

실로 우리 당의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은 해방 후 평화적 건설 시기의 로력 투쟁 속에서, 미제 침략자들과 리 승만 도배들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의 엄혹한 불'길 속에서, 그리고 전후 복구 건설의 간고한 시련 속에서 각종 기회주의 분자와 종파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통하여 단련 강화되였다.

오늘 전 당은 지난날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의 의지로 철석같이 단결되여 있으며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결속되여 있다. 우리 당의 이 거대한 통일은 우리 혁명의 매 단계와 매 시기에 있어서 조선 인민의 승리의 결정적 담보로 되였으며 기초로 되였다.

우리 당은 당 대렬의 통일과, 당과 인민 대중과의 강철같은 단결과 긴밀한 련계에 기초하여 조국

통일의 물질적 담보인 북반부 민주 기지에서의 전후 인민 경제의 복구 발전과 인민 생활을 급속히 개선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오늘날 우리 당과 인민들은 정치, 경제, 문화 생활 분야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앙양의 길을 걷고 있다. 이 거대한 앙양과 발전은 우리 당과 인민의 생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와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적극적 투쟁에서의 근로 대중의 창발적 증산 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당 제3차 대회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하면서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대한 제1차 5 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 앞에 나선 과업이 새롭고 거대할 수록 우리 승리의 결정적 담보로 되는 당 대렬의 통일 단결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한다.

당 대렬의 통일 단결의 강화의 필수적 조건은 당 생활에 대한 레닌적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전 당이 유일한 규률 즉 지도자나 평당원을 가리지 않고 전체 당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적 규률로 관통되여야 한다. 이 유일한 규률은 당원들의 과거 경력이 어떻게 됐건, 공로가 있건 없건간에, 그리고 어떠한 직위에 있건간에 의무적인 규률로 된다. 당은 문제 토의시에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의 레닌적 원칙과 당내 민주주의를 엄격히 준수하며 일단 채택된 결정은 그의 집행이 어떠한 당원들에게 있어서나 의무적이여야 한다.

당은 당원들을 《선발된 자》와 《선발되지 않은 자》로 구분하는 것을 용허하지 말아야 하며 당 내에서는 모든 당원들이 평등하며 매개 당원들에게는 동일한 당적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맑스—레닌주의적 당 생활 원칙은 어느 때, 어디서나 확고히 준수되여야 하며 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응당한 규탄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

우리 당은 이러한 레닌적 당 생활 원칙이 전 당에 관통되게 함으로써만 100 여 만의 당원을 가진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유지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레닌적 당 생활 규범에 기초한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하여 그렇게도 강조하여 왔으며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그러나 일부 당원들은 레닌적 당 생활 원칙에 근거한 매개 당원들의 당 생활이 가지는 극히 중요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를 소홀히하는 경향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당원들은 불피코 당의 통제와 규률에서 벗어나 출세주의, 개인 영웅주의, 무책임성 등을 발로시킴으로써 당 대렬의 사상 의지 및 행동상 통일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출세주의자, 개인 영웅주의자들이 끝까지 당 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의 명색만을 나타내기에 급급하며 지위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종파적 악습에 물젖지는 않았으나 종파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에 쏘련 공산당 내에서 폭로 규탄된 말렌꼬브, 까가노비치, 몰로또브의 반당 그루빠 행동이 이를 력력히 실증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바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낡은 사회의 사상 잔재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당원들의 당 생활을 한층 강화하며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원들 속에서 당 정책 교양을 더욱더 강화하여 당 중앙 위원회로부터 초급 당 단체에 이르기까지, 지도 간부들부터 평당원에 이르기까지의 전 당이 당 정책에 대한 유일한 견해와 해석으로 관통되게 함으로써 당 내의 사상 의지 및 행동상 통일을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전 당과 전체 인민들이 자기의 중앙 위원회 주위에 확고 부동하게 결속된 위대한 쏘련 공산당은 필승 불패이다. 오래고 영광스러운 력사를 가진 쏘련 공산당의 풍부한 투쟁 경험은 우리를 최후 승리에로 고무하고 있으며 그 승리에서의 귀중한 힘으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평화와 사회주의 위업의 전반적 리익을 위하여, 조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쏘련 공산당과의 통일 단결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사회주의 진영의 성새로 되고 있는 위대한 쏘련을 중심으로 한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통일 단결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과 웨. 이. 레닌

김 희 일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울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의 깊은 관심의 대상으로 되여 있었다.

웨. 이. 레닌의 로작들 속에는 조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말하여 주는 일련의 문제들이 언급되여 있다. 물론 조선과 관련해서 레닌의 여러 로작들에 반영되여 있는 일련의 문제들은 그것이 비록 조선에 대한 그의 관심의 일단을 말하여 주는 단편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 결코 우연적으로 례거된 사실들에 그치는 것은 아니였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일한 전일체를 이루는 사상——조선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적 압박을 견결히 반대하고 앙양되는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의 발전을 주시하면서 그를 열렬히 지지하고 투쟁에로 궐기한 조선 인민의 자유롭고 행복한 미래를 확신한 일관된 사상의 표현이였다.

조선의 운명, 조선 인민의 투쟁에 대해서 레닌이 그처럼 관심하였다는 사실은 리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수억만 동방 인민들의 세기적 민족 해방 투쟁은 20 세기 초엽 이후 세계사의 불가피한 행정으로 결정적으로 성숙되였으며 위대한 10월 혁명 이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불가분의 일환으로 구성되였으며 사회주의를 위한 전 세계적 투쟁의 종국적 해결에 하나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였는 바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은 이 동방 인민들의 세기적 투쟁의 한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또 조선은 19 세기 말엽 이후 세계의 분할과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 렬강의 침략 정책의 주요한 대상으로, 극동에서의 제국주의적 모순의 주요한 결절점으로 되여 있었다. 조선 인민의 투쟁에 대한 레닌의 관심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에 의해서 설명된다.

*　　*

20 세기 초 세계 혁명 운동의 중심이 가장 위대한 인민 혁명을 배태하고 있었던 로씨야로 옮겨지고 웨. 이. 레닌에 의해서 창건된 새형의 맑스주의 당이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를 짜리 전제 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인도하고 있을 때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와 기타 렬강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반식민지적 처지로부터 식민지로 전변될 위기를 내포하는 엄중한 력사적 시기를 체험하고 있었다. 바로 이와 같은 시기, 특히는 조선 인민의 생활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친 1904—1905년 로일 전쟁, 1905—1907년 제1차 로씨야 혁명 시기를 전후하여 레닌은 조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 사건에 대하여 심중한 주의를 돌리기 시작하였다.

레닌은 20 세기에 들어 오면서 제국주의 렬강이 조선에서 실시한 침략 정책과 그들 간의 내재적 관련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인 과학적 분석으로써 밝히였다.

조선을 자기의 독점적 식민지로 전화할 것을 목적한 일본의 침략적 정책은 20 세기에 들어섬과 함께 로씨야를 반대하는 새로운 전쟁을 발광적으로 준비하는 데로 발전하게 되였다. 레닌은 1905년 1월에 쓴 《려순(旅順) 항의 함락》이란 론문에서 로일 전쟁에서 일본은 《조선, 중국 및 만주로 세력을 뻗치》려는 (전집, 조선문판, 8권, <1> 52페지) 원대한 침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강도적 목적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레닌은 짜리 로씨야의 대 조선 정책의 침략적,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였다. 《이 정책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가?——하고 레닌은 쓰고 있다——그것은 중국과 무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줌도 못 되는 권세 있는 자본가들과 아세아 시장으로 보낼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줌도 못 되는 공장주들, 그리고 지금 긴급한 군수품 주문으로 막대한 리익을 획득하고 있는 한줌도 못 되는 청부업자들에

게… 유리한 것이다》(전집, 조선문판 4권, <2>254—255페지). 레닌은 그런 한줌도 못 되는 자본가 집단을 위해서 인민들의 고혈을 짜서 얻은 재정을 《…조선에서의 혹은 압록강에서의…모험과 강탈 정책에 지출》하는(전집 19권, 117페지) 짜리 정부의 범죄적 우행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나섰던 것이다.

이와 같이 레닌은 침략의 희생자로 되고 있는 조선 인민의 편에 서서 조국, 로씨야의 압제자나 호전적 일본 침략자를 막론하고 그들이 조선에서 추구하고 있는 침략적 목적의 근원을 뿌리까지 폭로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침략적 목적으로 하여 이 전쟁은 조선의 강점과 중국의 분할을 주요 목적으로 한 제국주의 전쟁으로 되는 것이라고 락인하면서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조선 해협에서의 해전은 전 세계 정치 출판물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지금은 이 마지막 도박도 파탄되였다. …전제 제도는 바로 모험주의적으로 인민을 무의미하고 치욕적인 전쟁에 몰아 넣었다》(전집, 조선문판, 8권, <2> 285—291페지). 《이 식민지 전쟁을 시작한 것은 로씨야 인민이 아니라 로씨야 전제 제도였다. …로씨야 인민이 아니고 전제 제도가 치욕적 패배를 당한 것이다》 (동상, 60페지)라고.

일본을 로씨야에 대한 군사적 승리에로 준비시킴에 있어서, 따라서 일제의 조선 강점을 보장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원조 정책이였다. 이 사실에 대하여 레닌은 벌써 당시에 일본 자본주의는 자체의 급격한 발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적 토대는 극도로 미약하다는 사실적 자료와 제국주의적 모순 발전의 기본 추향을 고려하면서 루차 강조한 바 있었으며 일본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강력해 진 년대인 1920년에 가서도 일본은 동방 아세아 국가들을 략탈할 가능성을 가졌으나 다른 국가의 지지가 없이는 재정상 및 군사상의 자립적 력량을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레닌은 이와 같은 의미의 일반적 지적에 그치지 않고 조성된 구체적—력사적 조건하에서 영, 미 제국주의가 일제의 조선 강점의 적극적 방조자로 나서게 된 계기를 해명하였다. 당시 영, 미 량국은 자기들의 가장 위험한 경쟁자인 로씨야를 극동에서 몰아 내려는 침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인을 리용하려는 계획 밑에 조선의 독립을 말살시키는 길에 들어 서고 있었다. 1902년에 체결된 영일 동맹, 1905년 7월의 가쯔라(桂 太郎) 태프트간의 비밀 협정에서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의 일본의 지배권을 완전히 승인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레닌은, 영국은 조선의 강점을 보증하는 대'가로 《…일본으로 하여금 로씨야를 반대하는 전쟁을 준비케 하면서 일본과 동맹을 체결하였다》(전집, 23권, 116페지)라고 지적하였다. 미제는 영국이 추구한 목적 외에 비밀 협정 속에 포함되고 있는바 조선의 강점 승인의 교환 조건으로서 일본이 미국의 비률빈 강점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미국인의 그와 같은 행동과 관련하여 레닌은 죠세프 파뚜이의 저서 《미 제국주의》의 개요를 쓰면서 그들의 목적을 《비률빈——아세아에로의, 그리고 중국에로의 제일보》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웨. 이. 레닌 《제국주의 노트》, 1939년, 170페지). 미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아세아에 대한 원대한 침략 계획을 실현하는 보다 긴요한 기초 공작을 진행하기 위하여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점에 일시적 양보를 하였던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일본 자본주의와 미국 자본주의는 똑 같이 강도적》이였다(전집, 25권, 22페지).

로일 전쟁 후 조선에 대한 일제의 로골적 강점 정책은 조국을 사랑하는 전체 조선 인민들의 분노와 반항을 폭발시켰으며 반일 의병 투쟁을 비롯한 대중적 반일 애국 투쟁의 거대한 앙양을 일으키게 하였다. 여기에서 1905—1907년 로씨야 혁명은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을 고무하는 힘으로 되였다. 레닌은 로씨야 혁명이 동방에 준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로씨야 혁명은 전체 아세아에서 운동을 불러 일으켰다》(전집, 23권, 244페지). 《세계 자본주의와 1905년의 로씨야 운동은 아세아를 종국적으로 각성시켰다. 중세기적 정체 가운데서 무지하고 몽매하였던 수억만 주민들이 새 생활과 인간의 초보적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눈 떴다. 세계 선진 국가들의 로동자들은 관심과 감격을 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각종의 형식으로 일어 나고 있는 세계 해방 운동의 강력한 장성을 주시하고 있다. …아세아의 각성과 구라파의 선진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정권을 위한 투쟁의 개시는 20세기 초에 열려진 전 세계사의 새로운 시기를 획한다》(전집, 19권, 66페지).

우리 나라에서 로씨야 혁명의 소식이 광범히 전파되기 시작한 1905년 겨울부터 반일 의병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대, 앙양된 것은 일제의 《보호 조약》 강제 체결에 대한 분격과 동시에 로씨야 혁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로씨야 혁명은 조선에서도 그의 관심과 감격을 자아 낸 강력한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보호 조약 전까지에 소규모 자연 발생적이던 반일 항쟁 운동은 1906년부터는 료원의 불'길처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면서 수십명 내지 수백명씩의 의병 부대들을 형성하게 되였다. 이 시기의 의병 활동의 중심 지역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5개도의 40여 군에 걸치였으며 유명한 의병 대장 민 종식, 최 익현, 신 돌석 등이 지휘한 의병 부대들이 활동한 것도 이 시기였다.

* *

웨. 이. 레닌은 일제의 조선강점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였다. 특히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제 합병은 그의 리론적 및 실천적 활동에서 원칙적 고려의 대상으로 되였다.

조선에서의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일본으로서는 이제 남은 문제는 다만 조선 인민의 류례 없는 반항이 진행되는 조건하에서 어떻게 가장 쉽게 조선을 완전히 합병하느냐 하는 행정적 강제 행위만이 남아 있었다. 일본인들은 합병을 준비하는 행정에서 가장 비렬하고 교활한 행동의 표본을 보여 주었다.

준비의 제일보는 합병을 전제로 한 《보호 조약》을 무력적 위협하에 강요한 것이였으며, (1905년 11월) 제이보는 유명한 《해아(海牙) 밀사 사건》과 관련해서 고종을 퇴위시키고 새로운 합병의 전제 조약 (1907년 7월의 정미 7조약)을 강요한 것이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해아 회의와 조선!!! 제2차 해아 회의 (1907년 6월 15일 개막)에 조선 특사가… 일본인에 대한 원소(怨訴)와 조선 독립 선언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일본인들은 조선 황제를 내몰았으며 그의 아들을 제위에 올려 앉히고 그와 1907년 7월 24일 <조약>을 체결하였다. …》(웨. 이. 레닌 《제국주의 노트》, 1939년, 618페지). 레닌의 매 글줄기에는 일본인들의 졸렬한 간책에 대한 증오의 념이 흐르고 있다. 레닌은 격분과 분노에 충만된 조선 인민과 더불어 일제에 대한 증오감을 같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번째는 종국적인 합병이였다. 1910년 8월 22일에 강압적으로 체결된 《합병 조약》은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저》 한다는 미명하에 조선을 명실공히 완전한 일제의 독점적 식민지로 합병하였던 것이다.

웨. 이. 레닌은 일제의 조선 합병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나섰을 뿐만 아니라 합병의 제국주의적, 강탈적 본질을 구명하고 이와 같은 합병에 대하여 프로레타리아트 당이 취하여야 할 실천적 태도를 제시하였다.

레닌은 합병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주고 있다. 《적은 또는 약한 민족을 그 민족의 정확하고 명백하고 또 자원적인 동의와 희망 없이 대국 또는 강국에 병합하는 것은 이 강제적 병합이 언제 수행되는가를 막론하고 또 강제적으로 병합되는 민족, 혹은 강제적으로 어떤 국가의 경내에 억압되는 민족이 얼마나 발달되였는가 락후하였는가를 막론하고 모두다… 타국 령토의 합병 또는 침략이라고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이 민족이 구라파에 살거나 혹은 원격한 대양 건너 나라에 살거나간에 거기에는 상관 없는 것이다》(전집, 26권, 218페지). 그렇기 때문에 조선 합병을 감행한 당사국인 일본은 물론이요. 그 합병을 승인하는 일체 제국주의 렬강의 지향도 다 같이 반동적, 침략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레닌은 1916년에 쓴 론문 《단독 강화론》에서 짜리 정부가 1907년 제1차 로일 비밀 협약, 1910년의 제2차 로일 비밀 협약에서 《일본이 조선을 <먹어 치우는 것>…》(전집, 23권, 117페지)을 승인한 것을 역시 범죄적인 것으로 규탄하였던 것이다.

레닌은 또한 제국주의는 민족적 압박과 합병의 경향, 다시 말하면 민족적 독립의 침해의 경향을 첨예하게 강화하며 프로레타리아트는 그와 같은 합병의 경향 일반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나선 카우츠키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는 합병 일반, 그것이 일제의 조선 합병이건, 미제의 비률빈 강점이건 또는 독일의 아르사스—로렌 합병이건을 불문하고 그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선 합병을 반대함으로써만 합병 일반을 반대하는 투쟁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가령 일본인이 미국인의 비률빈 합병을 비난한다고 하자.

묻노니 이 비난이 자기가 비룰빈을 합병하고 싶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합병 일반에 대한 적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많을 것인가? 일본인의 합병 반대 <투쟁>은 오직 일본인이 일본의 조선 합병을 반대하여 봉기하는 경우에라야만, 일본인이 조선의 일본으로부터의 분리의 자유를 요구하는 경우에라야만 진실한, 정치적으로 성실한 투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승인해야 되지 않을까?》(전집, 22권, 284페지). 이와 같이 레닌은 일본의 조선 합병을 반대하고 조선의 일본으로부터의 국가적 분리의 자유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것이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립장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타민족을 압박하는 민족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으로부터,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운동에 대한 지배 민족들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효과적 지지는 민족의 분리와 독립적인 국가적 존재에 대한 권리라는 구호를 고수하며 옹호하며 실행하여야 한다는 레닌주의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였다.

동시에 레닌은 일제의 조선 합병과 관련해서 제기된 이와 같은 원칙적인 문제들은 비단 조선의 경우에 있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강점에 희생된 모든 나라 특히는 짜리즘의 기반하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타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로작 속에서 서술된 이와 관련된 구절에서는 《…조선 대신에 분란, 파란, 쿠를랜드, 우크라이나, 히바, 부하라, 에스또니야 및 대로씨야족이 아닌 사람들이 거주하는 기타 지역을 용이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전집, 22권, 176페지)라고 쓰고 있다.

웨. 이. 레닌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신음하게 된 조선 인민의 정당한 념원을 반영하면서 조선에서 일본 강점자들을 조속히 물러 가게 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자기의 의무로 된다고 간주하였다. 레닌은 1921년 12월 27일 로씨야 공산당 (볼쉐비크) 중앙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영 제국주의의 식민 정책을 비호하는 영국 로동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첫째로 애란에서와, 둘째로 인도에서 영국 군대를 철퇴시키며 《세째로 조선에서 일본 군대도 마찬가지로》 철퇴시키기 위하여 (전집, 33권, 157페지) 투쟁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로동 계급의 당의 정책으로 된다고 쓰고 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레닌의 부단한 관심과 더불어 조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 그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명백한 실례로 된다.

웨.이.레닌은 일제를 반대하여 조선의 민족적 독립을 진정으로 옹호한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와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위대한 수령이였다.

웨.이.레닌은 강점된 후의 조선에 대한 일본의 야만적 식민지 통치와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영향하에 급속히 발전한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계속 주시하면서 보다 큰 관심을 표시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실행하면서 제국주의 일반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본성에 맞추어 즉 바로 군사 봉건적 제국주의로서 행동하였으며 기존의 모든 악독한 중세기적 착취, 억압의 방법들을 보존하고 최신 기술로 보강된 잔인한 《사무라이》식 억압 방법을 도입하여 전례 없이 가혹한 식민지 착취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관계를 특징지으면서 1920년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본은 모든 새로운 발명들과 순전한 아세아식 고문을 결합시킨 전대 미문의 야수성으로 조선을 략탈하고 있으며 그를 계속 략탈하기 위하여 싸울 것이다.… 여기에는(조선—필자) 모든 짜리즘의 방법, 최신의 완성된 모든 기술이 순 아세아적인 고문 제도, 미문의 야수성과 결합되여 있다》(전집, 31권, 415페지》. 레닌에 의해서 심오한 과학적 깊이를 가지고 구명된바 그와 같은 가장 잔인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억압이 강점 이후 근 10년간 계속됨으로써 조선 내에는 대중적 반일 봉기의 혁명적 위기가 조성되게 되였다.

바로 이와 같은 시기에 레닌과 볼쉐비크 당에 의해서 조직 지도되고 레닌의 사상의 전 세계사'적 승리로 된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 나게 되였는바 10월 혁명은 동방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로씨야와 직접 린접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도 거대한 혁명적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인민을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게 되였다. 레닌은 10월 혁명 이후 전체 동방은 《…결정적으로 혁명 운동에 들어 섰으며 또 결정적으로 세계 혁명 운동의 전반적 와중에 들어 섰다》(전집, 33권, 457페지)고 쓰고 있다.

10월 혁명의 직접적 영향하에서 일어난 1919년의

전 인민적 3.1 운동은 10월 혁명이 열어 놓은 식민지 혁명의 새시대——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한 부분으로서 전개되는——에 들어 서서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동방에서의 첫 강력한 혁명적 앙양의 하나이였으니 만치 웨.이.레닌은 이 시기 조선 인민의 투쟁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레닌의 그와 같은 관심은 그가 민족—식민지 문제에 관한 국제 공산당의 일반적 강령을 작성함에 있어서 조선 인민의 투쟁의 구체적 경험을 참작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레닌은 1920년 7월에 소집될 국제 공산당 제2차 대회를 위하여 준비한 《민족 문제와 식민지 문제 테제의 최초의 개안》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국제 공산당 제2차 대회를 위하여 식민지 및 민족 문제에 관한 테제의 다음과 같은 원안을 토의할 것을 제기하면서 내가 모든 동지들, 특히 이 가장 복잡한 문제 중의 이런 또는 저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는 동지들에게 요청하는 바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관하여…평론이나 정정이나 추가나 구체적 해석을 달라는 것이다:

오지리의 경험………

중국—조선—일본》(전집, 31권, 122페지).

레닌은 당면한 테제의 작성과 관련해서 만 조선에 관심한 것은 아니였다. 레닌이 1920년 12월 6일 로씨야 공산당 (볼쉐비크) 모쓰크바 당 단체 열성자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최근 우리는 일본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말하여 주는 조선 신문을 받았다》(전집, 31권, 415페지)고 한 데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에 일상적으로 관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에서 지적한 모쓰크바 당 단체 열성자 회의에서의 연설과 관련해서 반드시 강조하여야 할 사실은 그 연설 가운데서 레닌이 당해 시기의 국제적 발전에 대한 깊은 리해에 기초하여 미 제국주의가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전화시키려는 음흉한 침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놀랄만한 통찰력과 예견성을 가지고 단정하였다는 그것이다. 력사적으로 형성된 조선에 대한 침략적 야심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조선을 일본 침략에 제공한 것은 무엇보다도 로씨야와 아세아에서 혁명을 반대하는 데 일본을 리용하려는 심산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본이 조선에서의 모험에 끼여 들어 갔을 때 일본인은 미국인에게 <물론 우리는 볼쉐비크들을 타승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우리에게 이 대'가로 무엇을 주겠는가?…>고 말하였다》(전집, 31권, 419페지). 대'가는 명백한 것이였다. 혁명을 반대해서 계속 대륙으로 침입하라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렇다고해서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적 욕구를 산생시키고 있는 제 기초가 소멸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였다. 그와는 반대로 태평양에서의 미, 일 제국주의 모순의 첨예화와 관련해서 조선을 둘러싼 두 강도 사이의 투쟁은 불가피하게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레닌은 론증하였다. 레닌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과 미국을 례로서 든다면 그들은 전쟁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략탈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전쟁할 것이다. 일본은 …그가 략탈하고 있는 조선을 계속 략탈하기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나 이 탐나는 조선의 땅덩어리를 미국인이 탈취하려고 원하고 있다》(전집, 31권, 415페지). 레닌의 이 예언은 그후 수십년간의 력사 발전의 전 행정에 의해서 완전한 확증을 받고 있다.

3.1 운동 실패 이후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 서게 되는 1920년에 웨.이.레닌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오직 인도, 중국, 조선, 일본, 파사, 토이기 등의 **로동자들과 농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해방을 위한 공동 사업에로 나갈 때에라야만 착취자들에 대한 결정적 승리가 보장된다》(전집, 31권, 116페지, 방점은 필자의 것). 레닌은 여기에서 다른 동방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비록 력사적 투쟁 무대에 방금 나선 청소한 력량이기는 하나 로동 계급이 농민과의 동맹하에 해방 투쟁을 령도하고 국제적 해방 투쟁과의 공고한 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만 민족적, 사회적 해방의 승리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교시하고 있다.

* *

이상에서 우리는 그의 로작을 통해서 웨.이.레닌이 혁명적 활동의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조선 인민의 투쟁에 돌린 관심의 일단을 일별하였다.

인류를 위해서 무한히 고귀하였던 웨.이.레닌의 지혜와 사고가 조선 인민의 투쟁과도 련결되여 있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자

량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인민은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고 그들의 예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간고한 첫 시기로부터 수령이며 스승이신 울라지미르 일리이치의 육친적 친밀감을 가진 일관된 지지와 성원을 감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벅차 오르는 기쁨과 감격 없이 상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에서 본 바와 같은 제 사실은 웨.이.레닌과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과의 관련의 다음과 같은 본질적 의의를 내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웨.이.레닌이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에 준 본질적인 것, 가장 위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레닌의 사상과 학설이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의 길을 밝혀 주었》으며 《또한 그가 자기의 훌륭한 전 생애와 천재를 이바지하여 건설하려던 그런 찬란한 새 사회를 오늘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의 향도적 지침으로 되고 있다》는 거기에 있다(김 일성 《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멸망의 력사적 불가피성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론증함으로써 인류 해방의 길을 밝힌 맑스와 엥겔스는 동시에 피압박 예속 인민들의 종국적 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식민지 문제에 대한 기본 출발점으로 되는 사상을 기초지었다. 그러나 맑스와 엥겔스는, 엥겔스가 여러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이 완전한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달성하는 《이 과정이 바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말하기가 곤난하다.…이 나라들이 역시 그러한 사회주의적 조직에 도달하기 전에 어떠한 사회적 및 정치적 단계를 경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공허한 가설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칼.맑스, 에프.엥겔스 서한 선집, 1948년. 356—357페지)고 한 바와 같이 식민지 예속국 인민들의 해방을 위한 리론의 완성된 체계를 주지 못하였으며 또 줄 수도 없었다. 그것은 맑스와 엥겔스가 프로레타리아트가 령도하는 민족—식민지 혁명이 당면한 일정으로 제기된 제국주의 이전 시기에 살았다는 것에 의해서 설명된다.

레닌에 의해서 창조된 민족—식민지 문제에 관한 새로운 리론은 맑스주의를 풍부하게 하고 전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압박 예속 인민들의 해방에 관한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훨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수준에서 설정하였던 것이다.

웨.이.레닌은 1916년 전반년에 집필한 자기의 불후의 천재적 로작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에서 제국주의 시기에 있어서의 세계 경제의 자본주의적 체계는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된 소수 국가들이 지구상 대다수 주민들을 금융적으로 노예화하며 식민지적으로 압박하는 전 세계적 체계라는 것, 제국주의 체계의 구성 부분으로서의 식민지는 그의 역할과 의의에 있어서 독점전 시기에 비하여서 본질적으로 변하였다는 것, 즉 《금융 자본은 식민지 정책의 많은 <낡은> 동기에다가 원료 원천, 자본 수출, <세력권>…끝으로 경제 령역 일반을 위한 투쟁을 첨가하였다》(전집, 22권, 285페지)는 것, 식민지가 가지는 그와 같은 새로운 의의는 식민지 자체를 자본주의적 발전의 와중에 끌어넣으며 그 결과로 식민지적 압박과 노예화를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트 지도하의 해방 투쟁이 불가피하게 장성한다는 것을 론증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에 대한 심오한 사회 경제적 분석과 더불어 제1차 로씨야 혁명 이후 꾸준한 앙양을 보여 준 동방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기초 우에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적, 사회적 해방은 민족 해방 투쟁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실현하고 그에 기초하여 반제국주의적 민주주의 혁명에서 승리한 후 사회주의 혁명으로 계속 이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가르치였다. 이렇게 하여 웨.이.레닌의 이름과 결부된 새로운 력사적 시대——제국주의 시기의 맑스주의인 레닌주의는 조선 인민이 제국주의적 침략과 온갖 사회적 압박, 착취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로 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우수한 애국자들은 레닌의 학설을 심오하게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레닌의 교시들은 그들에게 있어 고무적 힘으로 되였으며 자기의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에서 그들의 지침으로 되였》던 것이다(김 일성 《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영향하에 1920년대 이후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급속하게 전파되여 점차 민족 해방 운동의 전략 전술의 기초로 되고 앙양되는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에 조직성과 목적 의식성을 주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부에 들어 앉았던 소부르죠아 인테리들의 동요와 파쟁으로 말미암아 조선 혁명 운동에는 정확한 레닌적 전략 전술이 수립되지 못하였었다. 바로 그와 같은 동요와 파쟁으로 말미암아, 20년대 후반기에 로동자, 농민 대중이 자체의 투쟁을 통하여 맑스주의 당의 령도를 절실 하게 요구하게 되였던 시기에도 레닌주의에 기초한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혁명적 지도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레닌의 학설이 확고한 사상적 기초로 확립되게 되는 것은 투쟁이 새로운 규모와 력량으로써 공개적인 무장 투쟁의 수준에로 제고되는 1930년대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보다 높은 발전 단계에서 김 일성 동지를 위시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였다.

1930년대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조선 현실에의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에 의한 민족 해방 운동의 새로운 형태로써 무장 투쟁을 제기하고 그를 조직 지도하였는바 이는 우리 나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한 전략 전술이 확립된 력사적 사건으로 되였다. 반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맑스—레닌주의 당의 사상적, 조직적 토대가 구축되였으며 국내의 모든 중요한 혁명 단체들과 긴밀한 련계 밑에 그 대렬에 광범한 반일 혁명 력량을 집결하여 혁명 운동의 지도적 중심을 형성하였으며 민족 해방 투쟁에서의 로동 계급의 령도를 실현하였다.

조선은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해방되였다. 이는 식민지 민족 해방에 관한 레닌적 사상의 하나의 구현이였다.

민족 해방 투쟁의 레닌적 길을 따라 전진한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적 전통은 8.15 해방 직후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 인민 정권의 수립, 민주 개혁의 실시, 인민 경제의 복구 재건 등 중요한 문제들을 지체 없이 혁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력사적 전제 조건으로 되였으며 해방 후 새로운 단계에 들어 간 조선 혁명 발전의 전 행정에서 조선 로동당을 조선 인민의 지도적 력량으로 되게 한 하나의 주요한 력사적 요인을 규정하였던 것이다.

조선 로동당은 창건 이후의 력사가 청소함에도 불구하고 복잡 다단한 정세하에서 변천하는 혁명 발전의 매 시기, 즉 해방 후 평화적 건설 시기,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서 불패의 레닌의 학설에 근거함으로써 능히 조선 인민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강화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의 거대한 력사적 승리에로 인도할 수 있었다.

조선 인민이 지난 기간에 달성한 빛나는 승리적 성과를 총화한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는 우리 당의 레닌주의에 대한 변함 없는 충실성과 더불어 조선 인민의 승리는 바로 레닌주의에 대한 충실성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혁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도정에는 거대한 난관들이 가로 놓여 있다. 웨.이.레닌이 그처럼 바라 마지 않았으며 또 그 날의 도래를 확신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조선 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미제의 침략 정책으로 말미암아 아직 조국의 남쪽 절반 땅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혁명의 기본 임무로 남아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은 레닌의 세계사'적 위업의 계속이며 10월의 사업의 계속이다.

우리는 이 위업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것은 백전 백승하는 레닌주의 사상에 충실하며 레닌주의의 기치 밑에 내외의 원쑤들과의 간고한 투쟁에서 단련되고 강철의 대오로 결속된 조선 로동당이 우리 인민을 령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생 불멸의 레닌의 사상이 인류 력사에서 처음으로 실현된 10월 혁명 승리의 40 주년을 맞이하는 조선 인민은 자기의 전 생애를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에 바친 수령이며 스승이며 벗인 울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의 정을 더 한층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된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레닌적 강령과 우리 당에 의한 그의 창조적 적용

조 재 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레닌적 강령은 한나라에서 사회주의 승리의 가능성과 과도기의 기본 특성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기초하고 있으며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업의 사회주의적 집단화를 중요 부분으로 한다.

위대한 레닌은 자기의 로작들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력사적 필연성과 그 본질, 그 방도들과 의의에 대하여 정연한 해석을 주었으며 직접 《로씨야 전기화 계획》으로 불리워 지는 세계에서 처음인 전망적 사회주의 경제 건설 계획을 작성하여 쏘련에서 구체적인 사회주의 공업화의 도안을 주었다.

레닌은 가르치기를 사회주의는 오직 대기계 생산의 기초 우에서만 수립될 수 있으며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까지도 포함하는 대규모적 기계 생산만이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며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과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주의의 유일한 물질적 기초로서는 농업까지도 재조직할 수 있는 대기계 공업만이 될 수 있다》 (레닌 전집, 제4판, 제32권 434페지).

레닌은 사회주의 공업화의 본질이 무엇보다도 먼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 그중에서도 기계 공업의 급진적인 발전을 의미한다고 가르쳤다.

왜냐 하면 중공업, 즉 금속, 석탄, 석유, 기계 기구, 전재 등을 생산하는 공업 부문들이 전체 인민 경제 부문에 걸쳐 확대 재생산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기계 공업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며 근대적 대공업의 《심장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때문에 사회주의 공업화란 무엇보다도 먼저 중공업의 가속도적 발전, 특히 기계 공업의 대대적인 발전을 그 중점으로 삼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업화는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 법칙의 요구를 실현하는 중요 수단이다. 이것은 과도기에 존재하는 다형태 (우클라드) 경제의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경제 형태의 발전과 모든 인민 경제 부문에 걸친 사회주의적 개조를 보장하는 물질 생산적 기초를 만들어 준다.

사회주의 공업화는 인민 경제의 전반적인 앙양과 인민 생활의 계통적인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며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경제적, 물질적 기초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자립성을 확보하는 데 없어서 아니될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 공업화와 아울러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레닌적 강령의 또 하나의 중요 구성 부분은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관한 계획이다.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의 형성 과정은 도시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일련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는 그날에 도시 산업에서는 집중된 자본가들의 생산 수단이 수탈되고 이 부문에서는 사회주의 생산 관계가 인민 경제의 지도적 명맥을 장악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도 농촌에는 분산된 개인농 경영이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며 이 개인농 경리는 과도기에 있어서 소상품 생산의 주되는 부분을 이루며 그 비중은 농업 생산의 절대 다수를 포괄하게 된다. 따라서 과도기 농촌 문제의 중심은 어떤 방법으로 이 소농민 경리를 사회주의적 대규모 경리 형태로 개조해야 되는가 하는데 귀착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농민 경리 형태는 그가 어느 누구를 착취하지 않으며 개인 농민 자신의 로력에 기초를 두고 있는것 만큼 이는 근로자적인 성격을 가지며 또 그점에서 사회주의와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소농민 경리는 사'적 소유에 기초한 상품 경리라는 그점에서 자본주의에 가까우며 그가 발전하면 할 수록 부농 경리로, 즉 자본주의적 착취 형태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레닌은 분산된 소농민 경리가 《항상 매일, 매시 자연 발생적이고 대중적 규모에서》 자본주의 요소들을 산생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농민의 소상품 경리 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이 없이는 사회주의가 농촌에 있어서 지배적인 경제 형태로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날이 자라나는 부농 경리가 발붙일 수 있는 근거도 청산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소농 경리는 기술적 락후성과 분산성으로 말미암아 발전하는 공업에 식량과 원료를 공급함에 있어서나 농민들 자신의 생활 형편을 급속히 향상 개선함에 있어서도 심중한 제한성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산된 소농 경리를 대규모적 경영으로 전환시키며 개인농적 경제 대신에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로 개조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전반적 리익에서 보든지 농민 자신의 생활상 요구에서 보든지 절실한 사회적 필요성으로 제기되는 과업인 것이다.

그러나 개인 농민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도시 산업에서 적용하였던 바와 같은 생산 수단의 수탈과 사회주의적 국유화의 방식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농민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동맹군이며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동맹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최고 원칙이기 때문이다.

레닌은 소농민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오직 협동화의 길을 통하여 농민들의 자원적인 협동 경리에로의 결합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와 중요 생산 수단들이 사회주의 국가 소유로 되여 있는 조건하에서 협동 조합들은 자본주의적 협동 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로 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하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가 부르조아지에 대하여 계급적으로 승리한 조건하에서의 문명한 협동 조합 일'군의 제도——이는 곧 사회주의 제도인 것이다》 (레닌: 《협동 조합에 관하여》 레닌, 쓰딸린 사회주의 경제 건설, 제2권,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3년도 판 530페지).

농민 경리를 협동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협동 경리의 우월성과 유익성에 대한 농민들 자신의 인식, 그 사회주의적 의식의 장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는 인내성 있게 그들을 교양하며 방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필요에서 출발하여 레닌은 협동화의 낮은 초보적 형태인 소비 판매 협동 조합의 단계에서 출발하여 점차 높은 생산적 결합, 즉 꼴호즈 농업을 조직하는 데까지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가르쳤다. 이 전 행정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도시는 농촌을 방조하며 지도하여야 하는데 그 형태는 처음에는 가장 단순한 상업적 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엠떼에쓰 조직에까지 이르는 생산적 련계로 확대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 모든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서도 사회주의 공업화는 결정적 의의를 가지며 그 중요한 전제로 된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은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 잔존 요소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공격으로 되는 까닭에 그는 불피코 착취자적 계급의 반항을 일으키게 되며 온갖 형태의 계급 투쟁을 첨예화시킨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그 기초로서의 로동자,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전반을 좌우하는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고 레닌은 가르쳤다.

쏘련 공산당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레닌적 강령을 충실히 실행함으로써 단시일내에 쏘련을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선진 공업과 대규모적 꼴호즈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시켰다.

1957년에 이르러 쏘련의 공업 생산량은 1940년에 비하여서는 약 4 배, 1913년에 비하여서는 30배 이상으로 장성하며 그중에서도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은 1913년에 비하여 근 70배 장성될 것이다.

1957년에 쏘련의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은 1913년도에 비하여 180배로, 전력 생산은 약 100배로 장성한다. 최근 25년간의 쏘련의 산업 생산 장성 속도는 매년 평균 18.2%에 달하는 데 이것은 미국에 비하여 7.6배, 영국에 비하여 5.0배, 불란서에 비하여 7.7배에 달하는 비약적인 발전 템포이다.

오늘 쏘련 인민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이행하는 거대한 진일보인 제6차 5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 1인당 생산량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를 따라 잡으며 앞서 가는 기본 경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줄기찬

창조적 로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광범한 전 인민적 토의를 걸쳐 쏘련 최고 쏘베트 제7차 회의가 채택한 산업 및 건설 관리 조직의 가일층의 개선에 관한 법령은 쏘련 경제에서 새로운 강력한 앙양의 단계를 열어 놓은 획기적 사변이였다.

농업 부문에서 볼진대 오늘날 쏘련은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적이고 근대적 기술로 장비된 꼴호즈 강국으로 되였다. 다만 1926년—27년에서 1952년—53년에 이르는 25년 동안에만 하여도 쏘련 농업은 알곡 생산에서 근 4배,감자 생산에서 4배 이상, 육류 생산에서 2배 이상,우유 생산에서 3배의 장성을 보였다.

1953년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력사적인 9월 전원 회의가 있은 이후 짧은 기간에 농업 분야에서 쏘련 인민이 거둔 현저한 성과들은 현 단계 쏘련의 기본 경제 과업인 인구 1인 당 생산량에서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나라들을 따라 가며 앞서 가기 위한 강령을 급속히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들을 더욱 풍부히 하여 주었다. 이리하여 쏘련은 이미 인구 1인 당 생산에서 우유 및 빠터 생산은 1958년에,육류는 1960년에 미국을 따라 잡을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레닌적 강령은 쏘련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확보하며 그 국가 사회 제도의 강화와 인민 생활의 계통적 향상 및 사회주의 문화의 찬란한 개화를 가져 오는 리론적 지침으로 되였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레닌적 강령은 오늘날 구라파와 아세아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리론적 토대로 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 로동당과 전체 조선 인민의 가장 힘 있는 무기로 되고 있다.

조선 로동당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레닌적 강령을 실천함에 있어서 항상 그 혁명적, 창조적 성격을 강조하였으며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게 그를 구체화하여 적용하였다.

조선 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하등의 인연이 없는 교조주의나 도식주의를 견결히 반대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와 리탈되는 온갖 기회주의적, 수정주의적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 왔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조선 인민이 쟁취한 거대한 성과들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레닌적 강령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지도적,조직자적 역할에 의하여서만 전'적으로 보장될 수 있었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은 그가 추궁하는 목적과 의의로 보아 일정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물론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건설이 과도기 다우클라드 경제의 조건하에서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 법칙의 요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다른 모든 나라들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남북 두 지역으로 분리되고 남조선이 미제와 리 승만 괴뢰 통치하에 예속된 조건하에서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전국적 규모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며 일차적으로는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며 평화적 조국 통일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북반부 민주 기지 강화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된다는 그 점에서 특수한 것이다.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난관은 과거 우리 공업 발전의 락후성과 편파성 및 기형성이다.

해방전 우리 나라 공업 발전은 일제 식민지 경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저애되였으며 그 발전 수준이 매우 낮고 편파적이였다. 뿐더러 3년 나머지의 조국 해방 전쟁 과정에서 인민 경제의 혹심한 파괴는 우리 공업을 거의 새로 창조하지 않으면 아니될 지경에까지 빠뜨려 놓았다.

이러한 사정은 우선 우리 당의 계획 경제 운영 방식에서의 특성들을 조건지었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수행되여야 할 공업 건설의 광범한 규모와 정전 직후 우리 공업이 처한 여지 없는 파괴 상태는 우리 당으로 하여금 일거에 사회주의 공업화의 모든 과제를 설정할 수 없게 하였으며 또한 즉시로 장기적인 전망 계획을 채택할 수도 없게 하였다. 때문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업화를 우선 그 기초의 준비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건설도 역시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처음에는 단시일내에 해결해야 될 가장 선차적인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며 점차 우리 공업의 토대가 축성되여 가며 경제적 여유가 조성되는 데 따라 보다 크고 전개된 경제 과업 해결에로 들어서는 길을 택하게 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53년 8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6차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전쟁에 의한 인민 경제의 파괴의 범위가 지극히 거대하며 혹심함으로 우리는 인민 경제의 각 분야를 전반적으로 동시에 다 복구 건설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후의 인민 경제,특히 공업의 복구 건설을 세 개의 기본 단계로 구분하여 그 복구에 착수하여야 하겠습니다》(김 일성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조선 로동당 출판사,1956년도 판,3페지).

우리 공업 복구 발전의 이 세 단계는 전체로서 8년 내지 9년을 포괄할 것을 예견하였는 바 이 기간의 기본 과업은《우리 나라를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 국가로 만드는 우리 조국 공업화의 제1 단계를 완성》(김 일성 : 동상 4페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것이다.

그 첫 단계는 반년 내지 1년간의 전반적 공업 복구 건설의 준비 단계로서 이 기간에는 파괴된 우리의 공업을 전반적으로 복구 건설할 수 있는 준비 정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심 임무로 되였던 것이다.

둘째 단계는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 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인민 경제의 각 분야에 걸쳐 전전 수준에 도달하는 복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심 임무로 되였다.

우리 당이 예견한 이 두 단계의 기본 임무들은 1956년 말까지 성과 있게 완수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이 첫째 및 둘째 단계에서 얻어진 성과를 토대로, 현재 세째 단계인 5 개년 계획 실시의 기간에 들어 섰는데 이 기간의 기본 임무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건설을 완성하는 데 있게 된다.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의 계획 경제 운영 방식에서 특수한 점은 첫째로 인민 경제의 복구 건설과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건설의 두 개 과제를 동시적으로 련결시켰다는 점이며 둘째로 세밀한 건설 계단의 구분과 매개 계단에 따르는 중점적인 목표의 확립이다.

이 방식은 방대한 건설 사업에서 선차적인 대상과 후차적인 대상을 옳게 갈라 세울 수 있게 하며 부족한 생산 수단과 자금 및 기술 간부들의 력량을 분산시키지 않고 가장 유효하게 리용하는 데 편리한 것이다.

실지로 계획 경제 운영에서 우리 당이 취한 이 중점적이고 계단적인 계획화 방식은 지난 기간에 갖은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건설 사업을 위하여 요구되는 자금과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원만히 보장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초과 투자할 수 있게까지 하였다. 다만 3 개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 기간에도 우리의 국가 기본 건설 투자는 계획보다 약 18억 원이나 더 많이 투자되였다.

이것은 또한 매 계단마다 계획에 예견된 기한을 훨씬 단축하여 계획 과제를 실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써 훌륭히 증명되였다. 례컨대 우에 지적된 첫 단계의 과업은 정전 후 불과 5 개월간에 완수되였으며 3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은 생산 수준에서 2년 1 개월에,총액적으로는 2년 8 개월간에 완수되였다는 사실이 이것을 명백히 보여 준다.

사회주의 공업화는 인민 경제의 전혀 새로운 균형을 조성할 것을 그 불가분리의 내용으로 한다.

이에 있어서 인민 경제의 중요 균형은 매개 나라마다 동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경제 건설의 환경과 도달된 그 나라 생산력 발전 수준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 분야에서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총 로선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로선은 맑스—레닌주의 확대 재생산의 일반적 원칙과 함께 우리 공업의 락후성과 편파성, 기형성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들을 결합시키고 있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은 공업이 락후되고 편파성이 강한 우리의 조건하에서 더욱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전시에 파괴되여 전연 없거나 혹은 거의 없는 형편에 처한 공업부문을 새로이 창조해 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해 지는 것이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함에 있어서도 우리 당은 현존하는 인민 경제의 가능성과 인민 생활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리하여 중공업 발전은 우선 전쟁으로 파괴된 인민 생활의 가장 절실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부문들에서부터 시작되게 된 것이다. 력사의 경험은 비록 짧은 시일에도 이미 우리 당이 견지한

이 중공업 건설의 로선이 가장 정확하며 우리 나라 현실과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에 적절히 부합되는 것임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에 관한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총 로선은 인민 경제와 인민 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 자료 및 공업 원료 생산을 급속하게 증대시킬 과업도 포함한다.

이것은 우리 공업이 다만 중공업 뿐 아니라 경공업에 있어서까지도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정도의 발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는 사실, 따라서 경공업 그 자체도 사회주의 공업화가 요구하는 축적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얼마쯤이라도 원만히 수행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 나라의 공업이 농업 발전의 수요와 밀접히 련결되지 못하였으며 그에게 기술적 방조를 제공하는 면에 있어서나 그로부터 원료를 받기 위한 조건에 있어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때문에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길로 나가는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사회주의 공업이 요구하는 불가결의 균형성들을 급속히 만들어 내기 위한, 발전하는 인민 경제의 축적 원천을 확대하기 위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민 생활의 급속하고 체계적인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대책인 것이다.

이 로선의 정당성은 이미 3 개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의 총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례컨대 1953년에 우리 공업에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의 두 부류간의 균형이 37.7대 62.3의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1956년말에 와서는 53.9 대 46.1로 점차 정상화되여 생산 수단 생산, 특히 중공업 부문의 우위가 확고하여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공업 부문별 구성에서 본질적인 변화들이 초래되였으니 1956년도의 북반부 중요 공업 생산 부문들의 비중을 1944년도의 그것에 대비할 때 연료 공업은 3.8에서 1.8로, 광석 채굴업은 15.7에서 6.1로, 야금 공업은 13.3에서 8.6으로,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은 1.6에서 17.3으로, 방직 공업은 6.0에서 18.4로, 식료품 및 기호품 공업은 7.8에서 13.2로 개선되는 방향에서 변경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공업의 자립성이 점점 더 확고하여 진 것이 지난 기간에 있어서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중요한 한개 성과로 된다.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목적한 조선 로동당의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공업의 기술적 개선과 생산력 배치의 사회주의적 개선에 관한 문제다.

조선 로동당은 공업을 복구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 공업 시설의 재배치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왔으며 또 돌리고 있다.

일제 식민지 통치 말기에 우리 나라에서 기형적이나마 발전된 식민지 공업은 그 시설 배치에서 우리 나라의 장래 발전과 조선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일제가 조선에서 자원을 자기 본국으로 수송하기 편리하고 용이한 지대에 배치하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모든 중요 공장들을 동해안에나 서해안에 설치한 데서 표현되였다. 그리하여 이 공장들은 원료 공급지로부터 멀리 격리된 관계로 운수에 막대한 곤난과 지장을 받게 되였으며 특히 전쟁 과정에서 적들의 함포 사격으로 인하여 전면적 타격을 받았다. 때문에 우리 당은 복구 건설에서 이미 파괴된 공장들을 원 위치에 기계적으로 복구하는 방향으로서가 아니라 부분적 공장들은 복구의 속도와 경제상 절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거 위치에 그대로 복구하며, 신설하게 될 공장들과 제조소, 특히 기계 공업을 재 배치하는 길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기존 또는 신설 공장들을 전면적으로 새 기술로 무장시키는 사업과 생산력의 합리적 배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그 첫단계에서부터 동시적인 과업으로 수행되게 되는바 이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본 과제 가운데 하나인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의 과업을 이미 일정한 범위에서 동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장래 공업 발전의 극히 유리한 조건을 점점 확보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실행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구의 하나는 건설과 생산의 높은 사회주의적 템포에 관한 문제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경제 건설의 급속한 템포는 특히 우리 나라에 조성된 특수한 정치, 경제 정세와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혁명의 성격에 의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즉 조선 인민은 남북으로 갈리여 제국주의와 대치하고 있으며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며 평화적 조국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전쟁 도발 기도를 부절히 폭로 분쇄하는 강한 투쟁 속에서 우리 나라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급속히 공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필경 우리 나라에서 전국적 규모로 되는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의 승리는 평화적 환경을 계속 유지 공고화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의 성과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반부에서 강력한 혁명의 원천지를 공고 발전시키는 그 속도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공업화의 템포와 본질적으로 구분될 뿐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내 제 국가들의 건설 템포에 비하여서도 훨씬 높은 정도에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조선 로동당은 세 가지의 중요한 가능성을 타산하였다.

첫째는, 파괴된 인민 경제를 하루 속히 복구 건설하여 자기의 조국을 더욱 아름답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는 조선 인민의 고상한 애국주의적 열의와 결심이며 전쟁전 5년간의 민주 건설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과 전쟁 3년간에 시련된 강인성과 인내성과 헌신적 로력의 경험이 그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정하게 준비된 당 정치 및 경제 지도 일'군들과 유능한 기사, 기수, 기능 로동자들의 존재이다.

둘째, 풍부한 자연 부원의 존재가 그것이다.

세째,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하는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들의 사심 없는 원조가 보장되여 있으며 그 경험과 호상 협조 및 국제적 분업의 혜택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가능성들을 타산하고 옳게 배합 리용하여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급진적인 템포를 보장하였다.

실지로 1956년도 우리 나라 북반부의 공업 생산액은 전쟁전 1949년 수준을 1.8배로 릉가하였으며 일제시 1944년 수준을 2.2배로 릉가하였다.

1953년에서 1956년에 이르는 3년간에 우리의 전력 생산은 5배로, 석탄 생산은 5.5배로 강철 생산은 53배로, 농업용 기계 및 농기구류 생산은 16.4배로, 쎄멘트 생산은 22.5배로, 벽돌 생산은 40.2배로 장성하였다.

인민 생활 필수품의 생산에 있어서도 이 기간에 면직물 생산—3.5배, 견직물—4배, 양말—2.1배의 급속도의 장성 템포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성과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는 우리 당이 모든 경제 건설의 분야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레닌적 강령을 철두 철미하게 관철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특성에 알맞게 그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데 대한 훌륭한 실증으로 된다.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투쟁에서 쟁취한 우리 당의 이 성과들은 농업까지도 포함한 전체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사회주의의 결정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물질적 담보를 점점 더 풍부하게 조성하고 있다.

* *

전후에 있어서 북반부 농촌의 거대한 력사적 변혁은 농업 협동화 운동의 앙양과 승리적 전진이다.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 발전의 중요한 전제들은 전쟁전 5년간의 평화적 건설 시기와 전쟁 기간의 우리 당의 옳바른 경제 정책에 의하여 조성되였다. 봉건적 지주 토지 소유와 지주층을 중심한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소유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들의 개인 소유로 무상 분여한 혁명적 민주주의 토지 개혁은 농촌에서 자유로운 농민 경리 발전과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전제 조건을 조성하였다. 토지 개혁의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면서 우리 당은 이미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농촌의 국영 사회주의 경리 형태를 육성하였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상업적 및 생산적 련계를 점차 확대 강화하며 농기계 임경소의 설치와 운영까지도 경험적으로 착수하게 되였었다.

전쟁 기간에 우리 당의 농촌 정책은 더욱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공업의 전반적 파괴에도 불구하고 농업에서 사회주의적 국영 경리의 규모는 더욱 확대 공고화되였으며 전후에 올 농촌의 사회주의 개조의 강력한 물질적 조건을 준비하였다.

현하 우리 농촌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의 특징은 빈농 뿐 아니라 광범한 중농층이 이 운동의 주체로 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전후 짧은 기간에 이미 결정적인 농민 경리의 비중이 협동화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다.

만약 1953년 말에 농업 협동 조합 수가 806 개로 그에 망라된 농호 수는 전 농호의 1.2%, 그에 통합된 경지 면적은 전체 북반부 경지 면적의 0.6%에

불과하였다면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56년말 현재에 와서는 협동 조합 수가 15,825 개로 급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전 농호의 80.9%가 망라되였고 전체 경지 면적의 77.9%가 통합되고 있다.

즉 년 평균으로 이 3년간에 우리 농촌에서는 매년 5,000 여 개의 협동 조합이 자라났으며 전 농호의 26.5%와 전 경지 면적의 25.7%가 년년이 협동 조합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우리 농촌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우리 나라 농업 발전에 고유한 일련의 특수성들을 반영하고 있는바 그중에서도 해방전 조선 농촌의 계급 구성에서 고농과 빈농, 즉 농촌 프로레타리아트와 반프로레타리아트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사실, 농경지의 제한성과 령세농적 집약적 경작의 지배, 량곡 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농경 작업의 수익성의 빈약, 농민들의 경제적 처지의 혹심한 빈궁, 더나아가서 이 모든 것에서 조선 농민들이 헐하게 교훈 받을 수 있는 분산된 개인 경리의 저생산성과 제약성 등은 가장 본질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북반부에서 실시된 토지 개혁은 일정하게 조선 농업의 이 락후성을 극복할 조건을 지어 주었으며 현저하게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농업 생산력과 농민 생활의 급속도적인 발전은 분산된 개인농 경리의 제한성을 점점 더 뚜렷하게 보여 주었으니 전쟁은, 특히 이 모순을 첨예화시켰다. 농촌에서 부농적 요소가 미약하나마 일정한 규모에서 장성한 것, 령세농 경리로 인한 빈궁의 근절의 곤난성, 개인 경리에 기초한 농업의 계획적 발전의 불가능성, 로력과 축력의 부족 등 이 모든 것이 조선 농민들로 하여금 자원적인 농업 협동화의 길을 지향하게 만든 것이며 이 농민들의 자연발생적인 지향은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의식화되였고 조직적인 확고한 운동으로 전환되였다.

이리하여 오늘날 북반부 농촌에서 사회주의는 이미 결정적이고 지배적인 힘으로 전환되였으며 우리 당 제3차 대회로 하여금 농촌 경리 발전의 전망으로서 제1차 5 개년 계획 기간에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집단화를 기본적으로 완수할 과업을 채택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주민의 절대 다수를 농민이 차지하는 우리 나라 형편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의 이 승리적 전진은 아주 중대한 의의를 가지며 농업 뿐 아니라 공업까지도 포함한 전체 인민 경제의 사회주의적 발전을 위한 강유력한 담보로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농업 협동화 운동은 비록 그 력사가 짧고 또한 현재 협동 조합들의 경제적, 기술적 수준도 아직은 청소한 수준에 머물고 있을 망정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관한 레닌적 강령을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 로동당의 정책은 일련의 귀중한 경험과 교훈들을 거두었다.

농촌에서 협동화 운동의 초기에 조선 로동당은 어데까지나 농민들의 자원적 원칙에 의한 결합을 강조하면서 농민들을 사회주의 경리 형태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며 설복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조직하였다. 이에 있어서 우리 당은 농업 협동 조합을 한꺼번에 와닥닥 조직하며 발전시키려는 소부르조아적 조급성과 협동 조합 운동을 자연 발생성에 방임하려는 추미주의적 우경적 편향도 동시에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농민들의 의식 정도, 간부의 준비 정도, 우리 공업의 발전 정도 및 기타 여러가지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점차적으로 소규모적이고 단순한 협동화의 형태에서부터, 따라서 농민들이 가장 리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그러한 형태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대규모적이고 높은 형태로 이행할 것을 기본 방도로 세웠다. 당은 이 시초적인 단계에서 농업 협동 조합의 규모가 처음에는 15호—20호 정도로부터 점차 여러가지 조건이 성숙되면서 30호—50호, 70호 정도로 발전시키는 것을 적당하다고 인정하였다.

농업 협동 조합의 조직 형태에 있어서 우리 당은 세가지의 기본 형태를 적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첫째 형태는 로력 협조반으로 이것은, 《농민들에게 협동화의 맛을 보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개인농 경리와 사회주의적, 협동적 경리 사이를 련결시켜 주는 가장 초보적인 《사회주의의 싹》 이였다.

둘째 형태는 토지와 생산 도구를 사'적 소유로 한 기초 우에서 로력만 같이 하고 토지 및 생산 도구와 로동에 의해서 분배를 받는 형태였다. 이 형태는 아직은 반사회주의적인, 과도적인 협동 경리의 형태이였으나 첫째 형태에 비하여 훨씬 완성된 협동 경리의 조직 형태이다.

세째 형태는 토지와 생산 도구들을 모두 통합하고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해서 분배를 실시하며 약간의 닭, 돼지, 채소전 등 만을 개인 부업으로

가지는 형태인데 이것은 가장 고급하고 완성된 사회주의 경리 형태이다.

그러나 우리 당은 어느 때나 농민 대중 속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활동을 결코 좁은 도식의 울타리에 얽어 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개 형태가 농민들을 위한 가장 리해되기 쉽고 조직되기 쉬운 협동 경리의 류형들이였지만 이러저러한 범위에서 이러저러한 시기에 이러저러한 지역에 고유한 특수성에 맞추어 이 류형들이 창조적으로 신축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모든 농민들이 꼭 한가지로 첫 형태를 통하여 둘째 형태로, 그 다음에는 세째 형태로 밟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농민들에 의한 협동 조합 형태의 선택이 마치 학교에서 1학년을 거쳐 2학년, 2학년을 거쳐 3학년으로 올라가는 듯이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고 교시하였다.

《문제는 농민들의 각오 정도와 그들의 의식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고급 형태를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저급 형태를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또한 저급 형태 밖에 할 수 없는 정도의 각오를 가진 농민들에게 처음부터 고급 형태를 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김 일성 : 동상 350페지).

실지 생활은 우리 당의 이 예견이 지극히 정당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었다.

지난 3 개년간의 협동 조합 운동에서 농민들은 제1 형태보다도 제2, 제3 형태를 그중에서도 가장 고급한 제3 형태를 더욱 지지하며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956년 말에 우리 농촌의 15,825 개 협동 조합 중 그 97.5%에 해당하는 15,433 개가 제3 형태의 경리이며 나머지 392 개가 제2 형태이다.

농업 협동 조합 조직의 첫걸음을, 요구되는 경험을 얻기 위한 시기로 규정한 조선 로동당의 정책을 완전히 정당하였다. 이 경험기를 통하여 우리 당은 협동 조합의 길이 현 단계의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확고히 증명하여 놓았으며 협동 경리의 길만이 로동자, 농민의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주며, 농촌 경리의 계획적 발전을 보장하여 주며 축력 및 로력 부족을 해결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농민들의 생활 형편을 비약적으로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증명하여 놓았다.

이 경험은 그 이후로 오는 대중적이고 비약적인 협동화 운동의 앙양을 보장하여 주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에 비하여 경리 형태의 개조가 비할바 없이 빨리 진행되였다는 그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경리 형태의 개조에 비하여 농촌 경리의 기술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중요하게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심각한 조선 농업의 락후성, 현하 우리 경제 형편의 일련의 난관들로부터 불가피적으로 조성되는 현상이다. 전쟁에 의한 농민 생활의 혹심한 파괴는 이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현하 우리 당 농업 정책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이미 조직된 농업 협동 조합들을 조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또한 농촌 기계화의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선진 영농 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보장하는 그것이다.

농촌 경리의 기술 개조의 방면에서는 새롭고 다수확을 줄 수 있는 영농 방법의 대담하고 적극적인 도입, 축력 제초기, 뿌라우, 쌍륜 쌍화리 등 능률적인 선진 농기계들의 효과적인 리용, 협동 조합원들과 그 간부들의 기술 지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 대책, 농촌 문화 수준의 전면적 향상을 위한 청년 로력의 고착 등이 선차적이고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동시에 농기계 임경소 망의 점차적인 확장, 관개 수리 시설의 확대, 화학 비료 및 자급 비료 리용의 증대 등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우리 농촌 경리의 기술 장비를 증대시켜 가는 것이 중요한 대책으로 되고 있다.

농촌 경리의 기술적 장비가 비상히 낮은 형편에서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최대한도로 발휘케 하기 위하여서는 농업 협동 조합들을 조직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나서게 된다.

조직된 협동 조합들이 모두다 아직 극히 청소한 사실 뿐더러 혹심한 전쟁 피해를 회복하는 가장 곤난한 시기에 이들이 조직된 것, 또한 우리 농민들에게 과거에 협동 조합을 조직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사실 등은 현 계단에서 협동 조합의 조직적 강화를 더욱 중요한 임무로 내세우게 하는 것이다.

협동 조합의 조직적 강화를 위하여 조선 로동당은 조합 관리 간부들의 옳은 선발 배치와 육성, 농민들 속에서 계급 교양의 강화에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동시에 우리 당은 현재 도달된 수준과 력량에 알맞게 40호 내지 100호 정도로 협동 경리를 계

속 유지 강화하며 목축업, 공예 작물 재배, 반농반 목축 및 반농 반어 협동 조합 형태들의 배합 등으로써 협동 조합의 사회적 경리와 수익성을 더욱 제고하며 농민 생활을 급진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백방으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 협동 조합을 기술 경제적으로 또한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은 짧은 기간이나마 이미 우리 나라 농업 협동 경리가 얻은 성과들에 의하여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만약 1953년 말에 농기계 임경소 수가 13 개 였다면 1956년 말에 와서는 98 개 소로 증가되였으며 뜨락또르 수는 (견인 능력 15 마력으로 환산하여) 500 대에서 2,072 대로 증대되였다. 1949년도에 뜨락또르에 의한 기경 작업의 총 량은 연 경지 면적으로 환산하여 48만 7,000 정보에 달하였다. 알곡, 공예 작물, 채소의 재배와 목축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현저한 성과들이 거두어졌는데 통털어 1954년—1956년 3 개년간에 11만 8,000 정보의 파종 면적이 확장되였다. 1956년말 우리 나라 북반부의 알곡 총 생산량은 1953년에 비하여 124%로, 전전 1949년도에 비하여서는 108%의 증가를 보이게 되였다.

이리하여 농업 협동 조합은 우리 나라 북반부 농촌에서 지배적이고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는 사회주의 경제 형태로 되였다. 농업 협동화에 관한 레닌적 계획의 원칙을 철저하게 창조적으로 우리 농업 발전에 적용시킨 조선 로동당의 경제 정책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농업 생산력의 급격한 앙양과 인민 생활의 비약적인 개선을 확보하여 주었으며 로동자, 농민의 동맹의 강화와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가일층의 공고 발전을 보장하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레닌적 강령을 우리 나라 북반부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 로동당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가 확고한 지배적, 지도적 력량으로 전환된 그 사실이다.

1956년 말에 이미 사회주의적 경제는 우리 나라 북반부의 국민 소득 생산에서 82%, 공업 총 생산액에서 98.0%, 농업 총 생산액에서 73.9%와 소매 상품 류통에서 87.3%의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북반부의 주민 구성도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 왔으니 1956년 말 현재로 로동자, 사무원 및 협동 조합원과 그들의 가족을 합하여 인구의 82%는 사회주의 경제 형태와 직접 련결된 근로자층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는 더욱 확대 공고화되였으며 혁명적 민주 기지의 위력이 더욱 장성 강화되였다.

이 사정은 미제와 리 승만 괴뢰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 밑에 계속 파괴 일로를 걷는 남반부 경제 형편과 남조선 인민 생활의 불행과 대비하여 볼 때 우리 나라 북반부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더욱 뚜렷하게 과시하여 주는 것이다.

도시 및 농촌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위력의 증대와 로동자, 농민, 근로 대중들의 편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조성된 계급적 력량 관계는 우리 당으로 하여금 부농 경리 및 도시 사 상공업들, 즉 우리 나라 북반부에 남아 있는 사자본주의적 경리 형태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개조하여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할 전망과 가능성을 지어주었다. 사자본주의 요소들의 이러한 평화적 개조는 경제적으로도 일정한 유익성과 의의를 가지며 특히 정치적으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강화를 가져 오는 중요한 시책으로 되는 것이다.

사자본주의 요소의 평화적 개조에 관한 우리 당의 방도는 결코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계급 투쟁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이것은 계급 투쟁의 가장 최고도로의 앙양과 결정적 국면을 특징 지어주는 것이며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개조의 최고 절정에로의 앙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 로동당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도발 파괴 암해 기도에 대하여 항상 높은 경각성을 견지하면서 우리 인민 정권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사자본주의의 착취자적, 투기업적 경향을 제한 방지하는 투쟁과 아울러 그의 인민적 지향성을 리용하며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 세우는 정책을 계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제국주의와 대치한 조건하에서 사자본주의 요소의 평화적인 개조 방책은 전체 조선의 량심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력량의 단결을 강화시키며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그 투쟁을 더욱 촉진시킨다.

우리 나라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에서 우리 당이 확보한 거대한 성과들은 무엇보다도 그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레닌적 강령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관된 사상—프로레타리아트 독재와 그 지도적, 향도적 력량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당에 관한 원칙적 교시에 견결히 립각함으로써만 얻어 질 수 있었다.

위대한 레닌은 과도기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사회주의 건설의 불가결의 전제로 된다고 한두번만 가르치지 않았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맑스—레닌주의 당의 강력한 전투적 기능이며 이 전투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강철같은 규률로써 유지되는 의지의 통일과 단결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레닌은 가르쳤다.

레닌의 교시를 충실히 실현하면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와 평화적 조국 통일 위업의 거족적인 전진을 방해하는 일체 대내 대외의 적들과 경각성 있게 투쟁하였으며 당의 강력한 사상 의지의 통일과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은 전 당적 단결을 확보하였다.

이에 있어서 1956년 8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특히 중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주지하는 바 이미 해방 전부터 오랜 종파 활동과 개인 리기주의로서 로동 운동을 와해시켰고 해방 후 10 여 년 동안이나 당내에 숨어 계속 종파 반당 행위를 감행하여 온 종파 두목 최 창익을 비롯하여 박 창옥, 윤 공흠, 서 휘 등 일련의 종파 반당 분자들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가장 결정적인 국면에 와서 당과 인민을 배반하고 우리 당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총 강령을 반대하여, 전 당이 눈동자 같이 애호하는 당의 통일을 반대하여, 우리 당의 레닌적 생활 규범과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반대하여 당 앞에 도전하여 나섰다.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가 폭로 규탄한 바와 같이 반당 종파 분자들은 엄중한 우리 조국의 현 정세하에서 계통적으로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을 반대하였으며 그 집행을 음으로 양으로 태공하였을 뿐 아니라 당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반인민적인 리'적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감행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조선 인민과 우리 혁명의 리익의 배반자로서 맑스—레닌주의의 배신자로서 자체를 폭로하고 만 것이였다.

반당 종파 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 당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단결되였다.

이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의 전투적 기치를 더욱 높이 들었으며 그 순결성을 견결히 수호하였다.

《맑스—레닌주의의 불패의 기치는 우리의 광활하고 보람찬 앞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이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투쟁에서 굴할 줄 모르는 용감성, 불요불굴성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 기'발을 튼튼히 틀어 쥐고 전진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승리와 영광이 있으며 또 있을 것입니다》 (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중요 문헌집, 106페지).

오늘날 맑스—레닌주의를 그 활동의 최고 지침으로 삼는 조선 로동당의 지도 밑에 조선 인민은 그가 제시한 우리 나라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과 평화적 조국 통일을 향하여 확신성 있게 전진하고 있다. 이 투쟁에 있어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레닌적 강령은 가장 위력 있는 무기로 되여 왔으며 또 될 것이다. 그리하여 위대한 레닌의 학설은 우리 나라 북반부의 찬란한 사회주의 경제와 인민 생활의 번영에서, 그리고 통일되고 자유로운 우리 조국의 부강한 장래 발전의 증대되는 가능성에서 그 불멸의 생활력을 더욱 증시하고 있다.

인민 정권의 불패의 생활력

— 김 사 흠

력사적인 우리 당 제3차 대회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혁명 수행의 위력한 무기인 인민 정권을 가일층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우리 당 3차 대회의 정신에 기초하여 작년 11월에는 지방 주권 기관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8월 27일에는 최고 인민 회의 선거를 실시할 데 대한 정령을 발포하였다.

전체 조선 인민은 금번 최고 인민 회의 선거를 국제, 국내적으로 조성된 유리한 환경 속에 맞이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반동들의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도발적 음모들이 파탄되고 반동 세력이 날로 약화되고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이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북반부에서의 장엄한 사회주의 건설이 전체 근로자들의 앙양된 정치적, 로력적 열의에 의하여 미증유의 비상한 속도로써 전개되고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맞이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최고 인민 회의 선거는 전체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피로써 고수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주권을 가일층 강화하는 것으로 되며 우리 혁명의 당면 임무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또한 이번 선거는 세계 도처에서 도발적 행동을 감행하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분렬과 파괴를 시도하는 제국주의 반동들과 남조선에서 미제의 사수하에 동족 상잔의 새 전쟁 준비에 날뛰고 있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에 대한 일대 타격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선 인민은 최고 인민 회의 선거를 고도로 되는 정치적 자각과 로력적 열의 속에서 맞이하고 있으며 이 선거를 통하여 당과 정부 주위에 굳게 결속된 인민들의 단결된 력량을 시위하게 될 것이다.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기간에 조선 인민이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은 조선 인민의 지도적, 향도적 력량인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와 우리 인민 정권의 창조적 활동과 분리하여서는 생각할 수 없다.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 조선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우리 인민 정권은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우리 당의 지도하에 인민들의 직접적인 참가에 의하여 조직된 인민 정권은 언제나 인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매개 력사적 시기마다 인민들의 념원과 숙망을 훌륭히 실천하는 조직자로서, 지도자로서 행동하였다.

우리 당의 지도에 의하여 인민 정권이 실시한 제반 인민적 시책들과 또 그가 발휘한 무궁 무진한 불패의 생활력은 인민의 무한한 지지와 신뢰를 받았다. 특히 공화국 인민 주권은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 밑에 우리 조국의 부강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향상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승리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여기에서 자기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것은 해방 직후 우리 당의 투쟁 과업들——공화국 북반부에서의 혁명적 민주 기지의 창설, 남반부에서의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애국적 민주 력량을 동원 궐기케 하는 과업을 실천하는 행정에서도 이미 뚜렷이 표시되였다.

당이 제기한 이 투쟁 과업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인민 주권은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국내의 광범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력량을 집결하면서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하였다.

인민 정권에 의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 실시된 민주 개혁들의 성과들은 우리 조국의 부강 발전과 인민의 무한한 번영을 약속하는 물질적 토대로 되였다.

민주 개혁들의 실시에 의하여 일제와 친일 예속 자본가의 경제적 지반이 청산되였고 농촌에서는 봉건적 생산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였으며 일체 사회 생활에서는 낡은 사회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제거되고 새로운 민주주의적 관계가 확립되였다.

그리하여 공화국 북반부에는 지난 시기 우리들의 생활에서 실지 체험한 바와 같이 갖은 난관들과 시련을 이겨낸 인민 민주주의적 국가 사회 제도가 확립되였고 조국 통일의 물질적 기초로 될 혁명적 민주 기지가 창설되였으며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조성되였다.

특히 1948년에는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의 의사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전국적인 최고 주권 기관—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가 창건되였다. 이 주권 기관은 림시적 정권 형태로부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에로까지 완성 발전되였으며 공고화되였다.

조선 인민의 력사적 숙망이였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주의적 륭성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이였으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조선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로 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쏘련과 중국을 위시한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와의 친선적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이때로부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사회주의 진영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국제 무대에 진출하였다. 공화국 인민 주권은 사회주의 및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제국주의 반동들의 전쟁 도발 음모를 폭로하며 세계 평화를 옹호하는 위업에 시종 일관 레닌적 대외 정책을 견지하였으며 또 견지하고 있다.

인민 정권의 불패의 생활력은 인민 경제의 자립적 토대의 축성을 위한 인민 정권의 경제 조직자적, 문화 교양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표현되였다.

일제가 파괴한 인민 경제의 복구 발전을 위한 평화적 건설, 조국 해방 전쟁 승리를 위하여 전선과 후방의 수요 충족을 보장한 전시 경제의 조직, 전후 시기 인민 경제의 복구 건설을 위한 투쟁 등 매 시기마다 인민 정권이 수행한 경제 조직 지도자적 역할의 성과들은 실로 거대하다. 특히 전후 시기에 인민 정권은 재'더미 우에서 파괴된 인민 경제를 시급히 복구 건설하며 령락된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사업에서 거대한 업적을 쌓았다.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 법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은 전후 시기 짧은 기간에 벌써 찬연한 열매를 맺고 있으며 그의 정당성은 전체 인민들 속에서 당과 정부에 대한 무한한 지지와 신뢰의 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전후 시기의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경제 발전의 총 로선은 《장구한 일제의 악독한 통치로부터 물려 받은 식민지 편파성을 퇴치하며 장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된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한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는》(김 일성, 3차 당 대회 보고 참조) 방침을 취하였다.

이 경제 정책의 정당성은 3 개년 계획 총화에서 똑똑히 실증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과 국가 공업화의 기초 축성을 위한 제1차 5 개년 계획의 물질적 토대를 준비하였다.

3 개년 기간 우리 당과 인민 주권의 경제 정책의 정당성은 전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구체적 현실을 정확히 타산한 과학적 기초 우에서 작성되였다는 거기에 즉 가장 혹심하게 파괴된 기간 공업—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견지하면서 농촌 경리와 인민 생활 문제를 가장 예견성 있게 결합시킨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3 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부문별 구조에 있어서 생산 수단 생산이 현저히 장성되였다는 것과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비중이 결정적 우세를 차지하게 된 데서 실증되고 있다. 1949년에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인민 소득 생산 중에서 44.6%였다면 1956년에는 81%로, 공업 생산액 중에서는 같은 년도에 90.7%로부터 98%로, 농업 생산액 중에서는 같은 년도에 3.2%로부터 73.9%로, 소매 상품 류통액 중에서는 같은 년도에 56.5% 로부터 87.3%로 그 비중이 각각 증대되였다.

이상 수'자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확대 강화는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

의가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말하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장성은 필연적으로 공업과 농촌 경리 분야에서 생산의 급속한 앙양을 가져 왔다.

전후 3년 동안에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과 쏘련과 중국을 위시한 형제적 국가 인민들의 원조에 의하여 공업 부문에서는 최신 기술로 장비된 320여개의 대 중 공업 기업소들이 복구 확장 또는 신설되였으며 이 기간에 국영 및 협동 조합 공업 총 생산액은 2.9배로 장성하였다.

농촌 경리 부문에 있어서도 3개년 동안에 그 면모는 일신되였는 바 알곡 생산에 있어서 1956년에는 1953년도 수준을 24%, 전전 1949년도 수준을 8% 릉가하였다.

이 수'자들은 전후 기간에 당과 정부가 취한 농업 정책의 정당성을 말해 주는 실증으로 된다.

특히 전후 년간에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전 군중적 운동으로 진행되였는 바 이것은 우리 혁명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사변의 하나이다. 벌써 3월말 현재 총 농가 호수의 85.5%가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였으며 경지 면적의 84%가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였다.

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는 파괴된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7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기본 투자를 실시하였으며 평남 관개, 승호, 강남 지구 등에서 8만 7천 여 정보에 달하는 대규모적인 관개 공사를 실시하였다.

3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과 농업 분야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형편이 현저히 개선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 주권의 최고 원칙——이것은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의 생산의 급속한 장성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 기간 로동자, 사무원들의 화폐 임금은 1956년에는 1953년에 비하여 158%로 장성하였으며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에서의 소매 가격은 전후 5차에 걸친 물가 인하에 의하여 45%가 저하되였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은 동 기간에 135%로 제고되였다.

그 외에도 교육, 문화, 보건 시설들이 확장 강화되였으며 민족 문학과 예술이 찬란히 개화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년 계획 수행에서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은 금후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기초로 될 뿐만 아니라 제1차 5개년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로 된다.

지금 공화국 북반부 전체 근로 인민들은 당과 정부가 제시한 경제 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특히 우리 당 12월 전원 회의 결정이 제시한 증산과 절약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처럼 궐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는 제1차 5개년 계획 작성에서 생산 예비를 적극 동원하며 금년도 증산 과제를 넘쳐 실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미 수 많은 증산과 절약의 예비들을 적발 동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품안에서 육성 단련되였으며 당과 정부의 정책의 정당성과 지도의 현명성을 몸소 체험한 근로자들의 무궁 무진한 창발적 로력 투쟁의 결과이며 이들의 창발적 로력 투쟁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새 력사를 창조하는 물질적 력량으로 되고 있다.

공화국 인민 정권의 불패의 생활력은 적들의 온갖 파괴 음모와 직접적인 무력 침공으로부터 공화국 북반부에서 전취한 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위하며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력력히 발현되였다.

국가 주권이란 일정한 계급이 자기의 적대 계급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하여 그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는 권력적 무기이다.

우리 인민 주권은 원쑤에 대하여는 독재를 실시하며 인민 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우리 인민 정권은 지난 기간 낡은 착취자적 통치 기구를 부활시키려는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음모를 걸음마다 파탄시켰으며 리 승만 괴뢰 통치 체계를 조선 인민에게 강요함으로써 북반부의 인민 민주주의적 국가 사회 제도를 전복하려고 시도하는 원쑤들의 음모와 반항을 진압하면서 고귀한 전취물인 북반부의 인민 민주주의제도와 민주 기지를 원쑤들의 침공으로부터 철옹성같이 수호하였으며 또 수호하고 있다.

인민 정권의 이와 같은 진압적 기능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쟁 행정에서 가장 빛나게 발휘되였다. 미제 무력 침범자들은 현대적 기술로 장비한 자기의 륙해 공군과 추종 국가들의 병력까지 동원하여 조선 인민을 쉽사리 굴종시키리라고 망상하였으나 자기의 음흉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막대한 인적 및 물적 손실로써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전쟁 행정에서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에 의하여 지도되며 주권의 주인으로 된 조선 인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들의 백절불굴의 투지가 얼마나 강의하며 조국 북반부에 설정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다.

실로 《조선 전쟁에서 미제 무력 침공자들이 당한 군사, 정치, 도덕적 패배는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 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자유 민주 진영의 거대한 승리》(김 일성)로 되며 이것은 또한 쏘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시위하는 동시에 이 단결의 력량은 불패의 력량이란 것을 확증하였다.

자기 조국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과 결합될 때에 그 위력은 비할바 없이 강대하며 불패의 것이란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음흉한 기도를 버리지 않고 조선 정전 협정을 파괴하며 리 승만 역도들을 사수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간첩, 방화, 파괴 책동 등 갖은 음모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들은 전 세계 선량한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있으며 단결된 조선 인민의 위력 앞에서 반드시 분쇄되고야 말 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 주권은 우리 대렬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당과 인민을 '분렬시키며 당, 정권, 인민들의 통일을 파괴하려는 어떠한 간첩 활동이나 반당적 종파 행동에 대해서도 발붙일 짬을 주지 않았다. 우리 당과 인민 주권은 미제의 고용 간첩 박 헌영, 리 승엽 도당들을 적발 폭로 분쇄하였으며 어떠한 사소한 반당적, 반인민적 종파 분자들의 시도들과도 타협하지 않았다.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비난 중상하던 반당 종파 분자 최 창익, 박 창옥, 윤 공흠, 서 휘 등의 반당적 종파 행동을 제때에 폭로 분쇄한 것은 우리 당 대렬과 인민 주권 기관을 더한층 공고히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공화국 주권 기관은 조국의 륭성 발전과 인민들의 무한한 번영을 실현하며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 민주 제도를 수호하며 민주 기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 없이 발휘하였다.

그러면 우리 인민 주권의 이와 같은 불패의 생활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 인민 정권의 불패의 생활력의 원천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적 국가 사회 제도의 우월성에 있다.

우리 나라 국가 사회 제도의 우월성은 국가 주권 기관의 인민적 성격과 그가 토대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우월성,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 국가 사회 생활의 정치적 기초로서의 로농 동맹에 기초한 통일 전선, 주권 기관 및 일체 국가 사회 생활에 대한 조선 로동당의 령도 등에 있는바 이것은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적 사회 제도 하에서 만 고유한 특성이다.

우선 우리 나라 국가 사회 제도의 우월성의 하나는 주권 기관의 인민적 성격에 있는바 각급 인민 주권 기관에는 광범한 인민 대중이 참가하고 있으며 인민들은 이 주권 기관을 통하여 자기의 국가 권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우리 주권 기관의 인민적 성격을 말한다.

공화국의 각급 인민 주권 기관들은 새 형태의 인민 주권 기관으로서 인민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맺고 있으며 조선 인민의 절대 다수인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및 소자산 계급을 포함한 광범한 인민들의 대표들로써 조직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기관의 특징은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민 자체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정권을 조직하였으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거기에 있다. 이 정권 기관은 인민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에게 의거하며 인민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인민 정권 기관은 자기의 사업에 광범한 인민 대중을 직접 간접으로 참가시키면서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사업하는 정권 기관이다》(선집, 4권, 52—53폐지).

우리 나라의 일체의 권력은 인민 대중에게 속해 있으며 최고 인민 회의를 비롯하여 각급 지방 인민

회의들은 인민의 권력을 행사하는 주권 기관이다.

각급 인민 회의들은 민주주의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선발된 각계 각층 인민의 대표들로써 구성되며 인민들은 이주권 기관을 통하여 자기들의 념원과 의사를 반영한 일체의 권력을 행사한다.

우리 나라 주권 기관의 이와 같은 인민적 성격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실시한 사회—경제적 개혁들의 결과로서의 일정한 사회—경제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청산되고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설정된 조건하에서 만 전체 인민들의 경제적 리해 관계의 통일은 물론 정치—사상적 통일이 달성되며 이와 같은 통일은 불패의 력량을 발휘한다.

부르죠아 국가에서는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 관계이며 부르죠아 국가 기구는 이를 수호 보장하기 위한 도구이며 부르죠아 이데올로기가 그 토대를 반영하여 그에 복무하는 조건하에서 근로 인민들과 착취자들 사이에 경제적 리해 관계의 일치가 있을 수 없으며 여기에는 또한 정치, 정신 문화적 통일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청산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제거되고 공동적,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 관계—호상 협조적 생산 관계가 형성되여 있는 데서만 정부와 인민 대중의 통일, 전체 인민 대중의 통일이 실현된다.

공화국 북반부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의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및 물질적 리해 관계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토대에 기초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하는 우리 당의 지도에 의하여 공화국 북반부에는 인민 정권이 수립되였으며 당과 인민 정권에 의하여 제반 민주 개혁들이 실시되고 이 민주 개혁들의 실시로 말미암아 공화국 북반부에는 인민들의 사회—경제 생활 령역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났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제도가 기본적으로 청산되였다.

사'적 소유의 청산과 함께 인민 경제의 압도적 부분에서 동지적 호상 협조적인 새로운 생산 관계가 형성되였으며 로동 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이 강화되고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이 기본적으로 제거되였으며 전체 인민의 물질적 리해 관계의 통일이 기본적으로 달성되였다.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다. 전체 인민의 이와 같은 경제 생활에서의 리해 관계의 통일은 정치—사회 생활에서의 통일을 조건지어 준다.

정권이 인민들 자체에 의하여 조직되고 인민들 자신이 정권의 주인으로 된 조건하에서 인민은 자기의 주권을 강화하며 자기 조국의 부강 발전과 인민들의 무한한 번영을 도모하며 자기들이 전취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수호하려는 그 정치적 목적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통일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인민의 것으로, 정치가 인민 자신의 것으로 된 조건하에서 정치와 인민들의 정신—문화적 생활에는 어떠한 분리와 적대 관계가 있을 수 없으며 과학도, 문학 예술도, 도덕도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치로부터 유리될 수 없다.

전체 인민의 정치, 경제 및 사회 생활 령역에서의 이와 같은 통일은 모든 사회 성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며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를 최대한으로 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해방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지도하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달성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 당, 국가 주권, 인민 대중의 통일과 단결의 위력은 국가의 경제 건설 및 사회—정치 활동에서 뚜렷이 증시되였다. 이것은 주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우월성에 기인되며 인민 대중과 주권 기관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의 원천의 하나로 된다.

우리 국가 사회 제도의 우월성의 또 하나는 주권 기관 및 일체의 사회—국가 생활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백방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그것이다.

우리 나라 주권 기관들의 권력 행사는 광범하고 진정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긴밀히 련결되여 있으며 이러한 련계의 기초에서만 인민 주권은 불패의 력량으로 될 수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부르죠아적 민주주의와는 달리 가장 광범한 민주주의로서 인민 대중의 일체 력량을 당과 정부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사회의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추동력으로 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와 불가분리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 만약에 민주주의만 있고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이 없다면 전체

인민들을 한개의 방향으로 인도할 수 없으며 통일적이며 계획적으로 인민들의 투쟁을 조직 동원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그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 부르죠아적 민주주의와는 달리 근로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극 소수의 원쑤와 착취자들에 대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를 운운하면서 당의 지도와 인민 대중을 대립시키며 또 조직 규률과 민주주의를 대립시키면서 지어는 당의 지도적 역할까지 거부하려는 초계급적, 무원칙한 자유주의적, 무정부주의적 민주주의를 우리는 견결히 배격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국가 기구와 인민 대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 기관들의 모든 활동에 인민 대중을 인입하며 실질적으로 근로 대중의 광범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

모든 국가 활동에는 대중의 창의 창발성과 군중들의 집체적 지혜가 반영되며 국가 계획 수립, 각종 상설 위원회, 협의회 등에 인민 대중이 직접 참가하고 있으며 모든 공민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 생산된 물질적 재부로부터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를 받을 권리, 재산 정도, 민족별, 성별, 사회 성분, 신앙, 지식 정도에 관계 없이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또한 인민 민주주의적 국가 사회 제도의 우월성의 하나는 국가 사회 제도의 사회—계급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로농 동맹에 기초한 각계 각층을 망라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이 형성되여 있다는 사실이다.

로농 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적 련계와 시장을 통한 상품적 련계의 강화를 의미하며 로동 계급과 농민간의 정치—사상적 단결의 강화를 의미한다. 농민들은 더 많은 식량과 원료를 도시에 공급하며 로동 계급은 농민들에게 생활 필수품과 화학 비료와 농기구 등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는 데 있다.

농업이 분산적이며 소규모적인 개인 경리로 남아 있는 한 장성하는 공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국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실시하면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기초하여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농업의 협동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과의 리해 관계는 사회주의적 기초 우에서 더욱 밀접히 결부되고 그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는 것이다.

로농 동맹의 강화, 새로운 단계에로의 발전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물질적 토대 축성을 촉진하는 가장 믿음직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로농 동맹에 기초한 인민의 각계 각층을 망라한 통일 전선은 우리 나라의 전체 혁명 력량을 단결시킨 강력한 정치적 조직체로서 국가 사회 제도의 한 구성 부문을 이루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령도하에 로동 계급을 주도적 력량으로 하고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통일 전선을 일층 강화하며 남북 조선의 전체 애국적 민주 력량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튼튼히 집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통일 전선의 기초가 더욱 공고화되면 될 수록 우리의 국가 사회 제도는 일층 공고화 된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통일 전선은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하면서 애국적 민주 정당들과 종교인, 중소 상공업자, 자유 직업자 등 광범한 각계 각층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을 단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 전선이 있으므로 하여 각계 각층 인민들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으며 각계 각층의 념원과 의사를 제때에 우리 당과 국가의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

로농 동맹과 그를 기초로 하는 통일 전선의 강화는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력한 담보로 된다.

또한 우리 국가 사회 제도의 우월성의 하나이며 공화국 인민 정권의 불패의 생활력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로 되는 것은 인민 정권 기관 및 일체 국가 생활에 대한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가 보장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 당은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의 리익과 민족적 리익을 대표하며 전체 인민의 리익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생각할 수 없다.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 대중의 선봉대인 우리 당은 우리 나라 근로 대중의 모든 조직체

들의 최고 형태일 뿐만 아니라 근로 대중과의 밀접한 련계의 체현이다.

혁명적 정권의 전취 및 그의 유지 강화, 그리고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에 있어서 당의 역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은 우리 당과 공화국 인민 정권 활동의 지침으로 된다.

조선 인민의 지도적, 향도적 력량인 조선 로동당은 인민 정권의 정치적 지도 기관이다.

우리의 인민 정권은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인민 대중을 당의 주위에 결속시키는 인민 대중의 국가적 조직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 기관은 우리 당의 총 로선의 집행자이며 그 정책을 실시하는 수단》으로 된다(김 일성).

우리 당의 정책, 그의 정치적 및 조직적 지도는 인민 정권 및 기타 모든 단체들과 기관들의 활동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결코 당의 지도가 인민 정권의 사업을 대행한다거나 그의 기능이 인민 정권의 기능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은 인민 정권의 핵심이며 그의 지도적 력량이다.

당은 모든 국가 활동에 대하여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며 인민 정권의 활동을 규정한다. 당은 공업, 농업, 상업, 문화 건설 및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향상, 국방과 대외 정책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며 인민 정권의 활동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인민 정권 및 모든 국가 활동에 대한 우리 당의 이와 같은 지도적 역할은 해방후 12 년에 걸치는 인민들의 국가 생활에서 체험하였으며 우리 인민 주권이 전취한 모든 성과들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을 조선 인민의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일 뿐만 아니라 행복과 자유의 상징으로 우러러 보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우리 주권의 인민적 성격, 또 주권이 실시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 로농 동맹에 기초한 통일 전선의 형성, 인민 주권 및 모든 국가 생활에 대한 당의 령도적, 지도적 역할 등등은 공화국 북반부에 설정된 인민 민주주의적 국가 사회 제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 우월성은 우리 인민 주권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인민적 국가 사회 제도의 우월성은 40년 전부터 선행한 쏘베트 국가에서 이미 확증되였으며 중국을 위시한 여러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가 사회 생활에서 그 우월성이 실증되고 있으며 그것이 더한층 개화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제도,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은 인류 력사 이래 노예 사회,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 등 선행한 그 어떤 사회 제도 보다 우월하다. 이것은 력사 행정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도 소위 부르죠아적 《민주주의》와 《자유》를 고창하고 있으며 부르죠아적 사회 제도의 우월성을 운운하고 있다. 부르죠아적 민주주의는 그 국가 사회 제도의 본질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것 만큼 그것은 생산 수단의 독점자인 부르죠아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 지반 즉 고용 로동, 임금 노예에 대한 지배와 착취의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기만적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

공화국 남반부에 기여든 미제는 소위 미국식 《민주주의》와 미국식 생활 양식을 조선 인민에게 강요하면서 자기들의 침략적 야욕을 위해서는 로동 계급을 비롯한 남반부 인민의 모든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미제의 사수하에 있는 리 승만 통치 기구와 그 사회 제도의 반동성은 인민에 대한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까지 유린하고 있는 데서 뿐만 아니라 《국회》나 지방 자치 기관인 《지방 의회》가 리 승만의 부속물로 화하고 중세기적 봉건 군주 통치와 같은 전횡이 감행되고 있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인민의 초보적인 민주주의도 보장되여 있지 않으며 리 승만 역도의 개인 독재가 전횡되고 있는 공화국 남반부에는 괴뢰 정권과 인민들과의 사이에 정치—사상적 통일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정권》 내부에 있어서도 정권 쟁탈을 위한 호상 알륵과 분렬이 격화되고 있으며 날이 갈 수록 미국식 생활 양식의 반인민성, 비민주주의적 성격이 밑바닥까지 들어 나고 있다.

특히 리 승만 역도는 매국 매족적 정책을 추구하며 정권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헌법》을 헌신짝처럼 유린하면서 소위 《개헌안》을 날조하여 종신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리 승만 개인 독재를 강화하는 책동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공화국 남반부에서는 날이 갈 수록 인민들로부터 고립되여 가는 리 승만의 테로 독재의 전횡으로써, 자유당과 야당파들과의 반목과 알륵으로써 허무러져가는 남반부 사회 제도의 최후가 촉진되고 있다.

*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공화국 인민 주권은 그 자체의 인민적 성격과 그 국가 사회 제도의 우월성으로 하여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 단체들과 정권 기관들은 금번 최고 인민 회의 선거를 승리적으로 보장하여 진정한 우리의 주권 기관인 공화국 인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다.

우리 혁명 수행의 위력한 무기인 공화국 주권—각급 인민 주권을 강화함으로써 만 우리 앞에 당면한 정치, 경제적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각급 정권 기관들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인민 정권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으로 되는 인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현을 백방으로 보장하며 광범한 인민 대중의 창의 창발성들을 국가 관리에 적극 인입하여야 할 것이다.

인민 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개 정권 기관 일'군들은 날로 발전하는 현실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여 온갖 보수주의적 낡은 사업 방법을 청산하고 발전된 새 환경과 조건에 순응하는 새로운 사업 방법을 용감하게 도입하며 국가 관리에서의 온갖 형태의 관료주의, 교조주의, 형식주의적 사업 작풍과의 투쟁을 전개하며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인민의 충복으로서 인민적 사업 작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급 당 단체들과 지방 정권 기관 일'군들은 인민 주권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경제를 성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경제 지식을 적극 소유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은 더 높은 경제 관리 지식을 요구한다. 경제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경제 건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없다.

특히 농촌 부문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농촌 경리에서 사회주의 경리가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게 된 변경된 새 환경과 조건하에서 어느 때보다도 그 지도 수준을 가일층 높이여 자기 지역 내에 농업 협동 조합의 조직—경제적 지반을 일층 공고히 하며 매개 조합들의 경제 상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당적, 국가적 임무로 된다.

오늘 장엄한 농촌의 사회주의적 건설과 관련하여 농촌 건설을 계획화하며 또 문화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사회주의적 경제 건설은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화를 동반한다. 토지 건설의 계획화, 농촌의 교육, 문화, 보건 시설 (학교, 탁아소, 공원, 목욕탕 기타 공공 시설을 포함)의 계획화, 주택 건설 등 일체 농촌 건설을 자기 지방의 자연 경제적 실정에 알맞게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또 문화적으로 건설할 데 대한 구체적 대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농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계급적 현상들인 착취 현상을 근절하는 문제는 농민들의 계급 의식 개조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오늘 농촌 부문 지도 일'군들 앞에 나서고 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농민들의 의식 수준 여하에 따라서 개인농들을 자원적 원칙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농업 협동 조합에 인입하며 농촌 소비 협동 조합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투기적 모리 활동을 제거하며 신용 협동 조합들을 조직하여 고리대적 현상을 청산하는 동시에 반생산, 반판매 협동 조합들을 조직하여 가내 수공업자들의 생산 활동을 협동 경리에 인입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금번 선거를 승리적으로 보장하며 인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당 단체들과 정권 기관 일'군들은 인민 민주주의적 준법성을 강화하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며 국가 재산을 침해하려는 일체의 탐오, 랑비 현상들과 투쟁하며 지금 공화국 북반부에서 눈부시게 전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할려고 발광하는 반동 분자들의 간첩 파괴 암해 책동들에 대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하며 국가 제도와 사회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인민 정권의 기능과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그가 기초하고 있는 로농 동맹을 백방으로 공고히 하며 로농 동맹에 기초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강화하며 일체 애국적 민주 력량을 당과 정부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기 위한 투쟁을 가강하여야 한다.

끝으로 각급 당 단체들과 인민 정권 기관들은 전체 인민들을 우리 당의 경제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며 금년도의 증산과 절약 과제를 넘쳐 실행하며 제1차 5개년 계획 작성에서 가능한 일체의 예비들을 적발 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인민 정권의 위력을 백방으로 제고하며 우리 혁명의 당면 과업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의식주 문제 해결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 가지는 의의

리 석 심

우리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적 생활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키는 문제는 우리 당의 경제 건설 지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우리 당은 근로자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물질--문화적 생활에서 유족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그 중요한 과업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이것은 결국 근로자들의 물질적—문화적 복리의 결정적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인민의 의식주 문제의 해결, 물질—문화적 생활 수준의 부단한 제고는 근로자들의 투쟁 목표인 동시에 그들의 더욱 성과적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의 전제 조건으로 된다.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아무 근심 없이 해결하고 그를 더욱 넉넉하게 만드는 것은 근로자들의 정치적 열의를 더욱 제고시키며, 그들의 기술—문화적 수준을 제고하면서 로동 생산 능률의 가일층의 장성을 보장하며, 근로 대중 속에 무진장하게 존재하는 온갖 창조적 력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인민의 의식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서 거대한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인민들의 보다 유족한 생활은 오늘날 공화국 남반부에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폭압과 가렴 주구하에 신음하고 있는 남반부 인민들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갈망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일층 고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어 사회주의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일부 계층에 대하여서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기치 밑에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우리 민족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인민의 의식주 문제는 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하에 지금까지 그 해결을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들이 달성되기는 하였지만 일련의 조건들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충분히 해결되지는 못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의식주 문제가 아직까지 충분하게 해결되지 못한 기본 원인은 우선 우리 나라 인민 경제가 장구한 일제 통치로 말미암아 식민지적인 혹심한 락후성과 편파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 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나라는 그들의 상품 판매지이며 원료 공급지임에 지나지 않았음으로 우리 나라에 일부 자본을 투하할 때에도 여러가지 조건들로 보아 그들의 최대한 리윤의 획득에 필요한 몇몇 부문들에만 투자하고 인민 생활에 필요한 중요 경공업 부문들과 기계 제작, 금속 가공업 같은 중공업의 핵심적 부문들은 거의 발전시키지 않았다.

농업 부면에 있어서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봉건적 착취 관계를 보존 리용하며 농업 생산력이 발전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이러한 우리 인민 경제의 세기적인 락후성은 해방후 우리 당의 지도하에 경제 건설에서 달성된 거대한 성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아직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게 한 력사적 조건으로 된다.

다음으로 8. 15 해방 후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에 의한 조국의 남북에로의 분렬은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일층 어렵게 만들었다.

일제 통치하에서 우리 나라 경공업과 농산물 주산지는 남반부에 집중되여 있었으며 북반부는 식량 기타 농산물과 소비품에 있어서 많이 남반부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인민 소비품들의 공급에서 극히 어려운 형편에 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조국 해방 전쟁은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층 곤난하게 만들었다. 적들의 야만적 파괴로 말미암아 우리 공업과 농업이 혹심하게 손상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가재 도구, 주택 등이 심대한 손실을 당하였음으로 전후 시기에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은 일시 전쟁전 시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였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생활 형편이 한편으로는 매월 또는 매년의 수입에 의존하는 동시에, 타면 오래 축적되여 온 개인적 재산에 의존하는 만큼 전시에 상실된 가재 도구, 주택 등의 회복이 첨가적인 큰 부담으로 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여 해방후 조국 해방 전쟁전 시기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3 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들이 달성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충분한 해결을 위하여서는 아직 일정한 기간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 경제의 이러한 력사적 조건들을 옳게 참작하여 제1차 5 개년 계획 기간에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그 기본 과업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 ❊

우리 인민 경제 앞에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인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은 여하히 실현될 수 있는가?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직접 인민 소비품들을 생산하는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특히 과거에 우리 나라에서 발전하지 못하였던 일련의 경공업 부문들을 신설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해방후 오늘날까지 우리 당은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며, 방직 공업, 식료품 가공 공업, 피혁, 제화 공업, 고무 공업 등 중요 경공업 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대책을 강구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공화국 북반부는 전쟁전 시기에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오히려 여유 있는 지대로 전변되였고 중요한 경공업 부문들의 생산이 급속히 증대되게 되였다.

1956년과 1946년을 대비할 때, 례컨대 면직물 생산은 약 45 배, 견직물 생산은 약 12 배, 고무신 생산은 약 36 배, 양말 생산은 약 7 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앞으로 제1차 5 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도 경공업과 농업의 일층 급속한 발전을 예견하고 있는바 5 개년 계획말까지에는 인민 소비품들에 대한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켜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생산물들을 생산하는 경공업, 농업 및 주택 건설 같은 부문들은 여하히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문들은 그 발전을 위하여 중공업 부문들로부터 필요한 각종 생산 수단들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식량을 증산하기 위하여서는 경지 면적을 확장하며 단위 면적당 수확고를 제고시켜야 만 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농촌 경리에 더욱더 많은 농기계, 화학 비료 등을 공급해 주어야 하며 관개 수리, 하천 공사를 위한 건재, 전동기, 뽐프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농기계, 전동기, 뽐프 등은 기계 제작 공업에서 생산되며 화학 비료, 농약 등은 화학 공업에서 생산된다.

그리고 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 등이 농기계, 화학 비료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제철 공업으로부터 강철, 선철 등을, 석탄 공업으로부터 석탄을, 발전 공업으로부터 전력을, 그리고 광업 부문으로부터 일련의 광석들을 받아야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식량 증산을 위한 농업의 발전에는 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 등이 참가하며 더 나아가 석탄 공업, 제철 공업, 발전 공업 등이 참가한다. 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 제철 공업, 광업 등은 생산 수단들을 생산하는 부문들이며 중공업에 속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량을 증산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농업의 발전이 요구되지만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수다한 중공업 부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주택 건설에 있어서도 사정은 동일하다. 주택들을 건설하자면 쎄멘트, 목재, 철근 등이 요구된다. 그런데 쎄멘트는 화학 공업 부문에서 생산되며 철근은 제철 공업 부문에서 생산된다. 우리는 여기서도 중공업 부문들의 생산물을 리용함으로써 만 인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전후 기간에 1천 340만 평방메터에 달하는 주택들이 건설되였는 바 이것은 우리의 중공업이, 례컨대 쎄멘트를 1946년과 대비하여 1956년에는 5.5배, 보통 벽돌을 157 배로 더 생산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인민의 의류 생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방직 공업에서도 중공업이 공급하는 생산 수단들이 없이는 천을 더 많이 생산해 낼 수 없다. 면포 또는 견포 등의 생산에서 주요한 원료로 되는 것은 농업 부문의 생산물인 면화, 잠견 등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면포, 견포 등을 생산하자면 방직 공장을 건설하며 연료, 전기 에네르기 등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쓰이는 건재, 기계 설비 부분품들, 석탄, 전력 등은 중공업 부문들의 생산물로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중공업이 없이는 방직 공업이 생산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현재까지는 우리의 방직 기계 생산이 방직 공업의 기계 설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많은 기계 설비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직 기계 설비들도 다른 부문들에 소용되는 기계 설비들과 같이 그것들을 더욱더 우리 자체의 중공업에 의하여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또 인민의 의류 생산에서 우리 나라에는 자연 섬유가 부족한 만큼 앞으로 화학 섬유에 크게 의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미 생산하기 시작한 인조 섬유 공업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합성 화학 섬유 공업이 인민의 의류 문제 해결에서 더욱 큰 역할을 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조 화학 섬유들의 생산은 화학 공업, 석탄 공업, 전력 생산 등 중공업 부문들이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실례들에서 우리는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한 경공업, 농업, 주택 건설 등 부문에서 생산과 건설을 진행할려면 반드시 기계 설비 부분품, 연료, 원자재, 건재, 화학 비료 등을 중공업 부문들로부터 부단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생산 부문들을 크게 생산 수단 생산 부문과 소비재 생산 부문으로 구분하는 바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은 대체로 중공업에 해당하며 소비재 생산 부문은 경공업과 농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두 부문들 중 전자는 직접적으로 먹고 입고 쓸 수 없는 생산 수단들을 생산하며 후자는 각종 소비품들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서로 질적으로 구별되지만, 타면 그것들은 긴밀한 통일을 이루면서 생산 과정에서 유기적인 련계를 가진다.

우리가 어떤 소비품, 례컨대 면포를 두고 보면 그것은 우선 면방직 공업 즉 경공업 부문의 제품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전 사회적인 로동 지출의 견지에서 본다면 면포에는 면방직 공업 부문에서 투하된 로동만이 포함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일부는 면화를 생산하는 데 든 농업 부문의 로동과 함께 여러 중공업 부문들에서 과거에 투하된 로동이 포함되여 있는 것이다. 례컨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면방직 공장인 평양 방직 공장에서 면포의 원가중 원료비가 82%, 보조 자재비가 4.5%, 감'가 상각금이 4.9%, 로임이 3.7% 차지한다. 이것은 면포 생산에는 면방직 로동자들의 로동 이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부문 로동자들의 로동이 소비되는 생산 수단의 형태로서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다른 부문으로부터 이전된 로동중 우선 보조 자재비 4.5%, 감'가 상각금 4.9%, 합계 9.4%는 대체로 중공업 부문에서 이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면포면 면포, 기타 어떤 소비품이든지 그 속에는 경공업 부문에서 지출된 로동과 함께 중공업 부문에서 지출된 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공업 제품인 소비품들은 결국 중공업과 경공업 또 일부 농업 부문의 공동 노력으로 제조된 물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농업 생산물에 대하여서도 존재한다. 농산물은 그 속에 농업 부문 근로자들의 로동과 함께 농기계, 화학 비료 등으로부터 이전된 중공업 부문 로동자들의 로동을 포함하고 있다.

경공업 및 농업 생산물에 포함되여 있는 사회적 로동 속에 중공업 부문에서 투하된 로동이 이전 포함되여 있다는 사정은 경공업 및 농업의 생산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중공업 부문으로부터 공급되는 생산 수단들이 사용되여야 한다는 사정을 다른 측면으로부터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경공업 및 농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반드시 중공업을 발전시켜야 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면서 항상 이 부문들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를 달성하여야 한다.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시킴으로써만 우리는 인구 1 인당 더 많은 소비품들을 생산하며 원가를 저하시켜 소비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게 된다.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는 것은, 말하자면 경공업 및 농업 부문을 질적으로 발전시켜 더 많은 생산물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해방후 오늘날까지 경공업 및 농업 부문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시키면서 항상 다른 부문들에서와 같이 이 부문들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로동 생산 능률은 선진적 기계 기술의 도입, 현존 기계 설비들의 보다 효과적인 리용,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의 제고, 로동 조직 및 생산 조직의 개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더욱 선진적인 생산 설비, 기계 기술들을 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공업 및 농업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더욱 제고시킬려면 이 부문들에 더욱 선진적인 로동 도구들, 기계 설비들을 공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더욱 선진적인 각종 기계 기술들을 생산 공급해 주는 것은 중공업 부문, 그중에서도 각종 기계 제작 부문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한 경공업 및 농업의 발전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중공업이 중요한 역할을 논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방 후 오늘날까지에 우리 나라의 기계 제작 공업은 당과 정부의 특별한 배려에 의하여 장족의 발전을 하여 왔다. 례컨대 전동기는 1956년에 1946년과 대비하여 47 배, 농업용 기계 및 농기구류는 328 배, 뽐프류는 115 배 등으로 급속히 장성하였다. 그러나 원래 기계 제작업의 토대가 과거에 극히 미약하였기 때문에 우리 나라 기계 제작 부문들은 아직 경공업 및 농업에 충분한 량의 선진적 기계 기술들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공업 및 농업의 발전을 위한 생산 설비들이 많이 수입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미 우리 나라 중공업은 인민 소비품 생산 부문들에서의 기술적 진보와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하여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

례컨대 1956년에 우리 나라 국영 수산업 어로 로동자 1 인당 어획고는 수산 협동 조합에서의 그것보다 2 배 이상 더 높으며 반농 반어 협동 조합 및 개인 어민의 그것에 비하여는 이보다 또 훨씬 더 높은바 이것은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국영 수산 부문이 우리의 조선 공업으로부터 많은 기선을 받은데 기인하는 것이다.

또 농업성의 계산에 의하면 농촌 경리에서 우리가 이미 생산하고 있는 몇 가지 선진 농기계 중 축력 논 중경 제초기, 축력 밭 제초기, 맥류 파종기, 옥수수 탈곡기, 벼 동력 탈곡기 및 매초 절단기의 6 종을 전반적으로 도입한다면 재래식 농기구 사용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년간에 1천 7백만 공수 이상의 로력이 절약될 수 있다.

각종 소비품 생산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할 수 있게 하며 소비품 생산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게 하는 중공업, 그중에서도 각종 기계 제작 공업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더 거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 인민 경제는 전반적으로 이미 기술적 개건의 단계에 들어 서고 있으며 경공업, 농업 및 건설 부문들에서의 가일층의 증산이 중요하게 기술적 진보를 전제로 하게 된 만큼 중공업이 이 부면에서 노는 역할은 급속히 증대되지 않을 수 없다.

중공업은 이상과 같이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재 생산 부문들에 생산 수단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일부 직접 인민의 소비에 들어 가는 생산물들을 공급한다. 중공업이라는 말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보통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공업 부문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세밀히 고찰하면 일부 생산 수단들이 경공업 및 농업 자체 내부에서 생산되는 동시에 타면 중공업 부문에서 일부 직접 인민의 소비에 들어 가는 생산물들이 생산된다.

그의 현저한 례로서 우리는 우리 석탄 공업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들 수 있다. 석탄의 많은 부분은 물론 공업용 및 철도 운수용으로 사용되지만 그 상당한 부분이 난방용 기타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사용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의 현저한 부분이 가정용 연료로써 공급되고 있다. 이밖에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 화학 공업 등 부문들에서도 상당한 량의 각종 일용품들이 생산된다. 이와 같이 중공업은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도 참가한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중공업에서는 외화 획득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유색 금속 기타 중요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바 이것들은 수출되여 생산 기자재들과 함께 각종 소비품들을 수입할 수 있게 하는 외화 획득 원천으로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중공업은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중공업이 없이는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경제 부문들의 발전을 촉진할 수 없으며 소비재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지금까지 우리 당으로 하여금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의 부단한 향상을 위하여 예견성 있게 중공업을 발전시키게 하였다.

❄ ❄

이상에서 우리는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중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중공업, 경공업 및 농업 등 부문들을 모두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같이 필요한 중공업, 경공업 및 농업 등 부문들의 발전 속도상 호상 관계는 어떻게 되여야 하는가? 이 부문들은 모두 동일한 속도로서 발전하여야 하는가 또는 그 어느 부문이 다른 부문들보다 더 빨리 발전하여야 하는가?

맑스주의 정치 경제학의 재생산 리론은 사회의 생산을 부단히 확대해 나가자면 중공업 부문을 경공업 및 농업 부문보다 얼마간 더 빨리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중공업 부문, 즉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을 다른 부문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써 즉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리유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사회가 소비품들의 생산을 계속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는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단한 기술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전체 생산 수단과 로동력을 과거에 있어서보다 생산 수단 생산 부문에 더 치중하여 배당함으로써 이 부문에서 보다 선진적인 생산 도구들과 더 많은 원자재, 전력 등이 생산될 수 있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때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이 사회의 총 생산 중에서 과거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견하건대 사회는 소비품 증산에서 지장을 받는 것 같지만 기실은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이 공급해 주는 더욱 선진적인 기계 기술들의 리용에 기초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켜 소비품들을 과거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례컨대 쏘련에 있어서는 전체 공업 생산액 중 소비 수단 생산의 몫은 1925—1954년간에 66%로부터 30%에로 축소되였지만 이 기간에 소비품 생산은 14 배로 증가하였다.

사회가 생산물들의 생산을 계속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는 그 제조에 보다 큰 품이 드는, 과거보다 더 복잡하고 대규모적인 로동 도구들을 제작 리용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는 수 밖에 없는 이상, 부단한 확대 재생산에서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의 비중의 부단한 제고, 다른 말로 말하여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의 소비품 생산 부문에 비한 우선적 장성은 하나의 객관적인 법칙으로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인민의 계속적인 복리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확대 재생산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생산에서 기술적 진보에 기초하는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의 우선적 장성은 하나의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즉 다른 부문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 것은 쏘련과 오늘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경제 건설의 기본 방침으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 경제에서의 기술적 진보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물질적 기초로 되는 중공업 부문들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을 보장하며 국방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도 불가결하다.

그런데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은 중공업 기업소들의 건설이 다른 부문보다 더 거액의 자금을 요구하며 또 그 조업 개시에 비교적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많은 어려운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인민 경제에서 일정하게 긴장된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이 인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일 그 발전에 필요한 재정, 물자, 로력 등이 보장될 수 없다면 실지에 있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인민의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불가결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실지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공화국 북반부에는 본래 일정한 중공업의 토대가 존재하였다. 당과 정부는 해방후 전쟁전 시기와 전후 기간에 이 부문 기업소들을 복구 확장 또는 신설하였는 바 이것들은 우리가 공화국 북반부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일제 통치하에서 극히 락후한 처지에 있던 기계 제작공업은 일제가 남겨 놓은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고 자립적인 공업 건설을 위하여 기계 제작업의 급속한 발전에 심중한 주의를 돌린 우리 당의 시책에 의하여 오늘날 인민 경제에 더욱더 많은 기계 설비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중공업의 발전은 또한 쏘련을 선두로 하는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국제적인 분업과 협조의 발전에 의하여 더욱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되 일거에 모든 중공업 부문들을 다 발전시키지 않아도 그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 있는 부문들을 우선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일련의 부문들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제적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에 의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형제적 국가들로부터 기술적 및 기자재에 대한 방조를 받는바 이것들은 우리의 중공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자연 경제적 제 조건이 중공업의 발전에 유리하다. 우리 나라에는 지하 자원, 연료, 동력 자원이 풍부함으로 중공업 발전을 위한 자체의 원료 기지, 동력 기지를 보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이 우리 나라에서 필요한 동시에 그 실현을 위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도모할 때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간의 발전 속도상 호상 관계를 여하히 조절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대체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대한 필요성은 매개 나라의 구체적 형편, 그리고 매개의 력사적 시기의 조건들에 따라 상이하게 표현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력사적으로 조성된 인민 경제의 여러 부문들 간의 호상 관계, 소여 시기에 제기되는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공업 및 경공업, 농업 등이 놀아야 하는 역할,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물자적, 로력적, 자원 등에 의하여 규정된다.

례컨대 쏘련에 있어서도 1928년부터 1955년간에 중공업은 경공업보다 4 배 이상 더 빨리 발전하였지만 개별적 시기를 보면 제1차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이 관계가 3 배, 제2차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1.4 배, 제4차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4.6배, 제5차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1.2 배로 되여 있다.

우리 당은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간의 호상 관계를 옳게 조절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에서와 같이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하는 방침을 취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민 경제에서 과거에 식민지적 편파성으로 말미암아 경공업이 특히 락후했으며 일제 통치와 조국 해방 전쟁시의 파괴로 인하여 인민 생활이 령락된 사정을 고려하여, 또 우리의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들을 더욱 중점적,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목적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력량을 적절히 분배하여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 및 농업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키는 방침을 취하여 왔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킨다는 것은 다른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에서와 같이, 결국 경공업 및 농업 발전의 토대로 되는 중공업 부문들, 특히 기간적인 중공업 부문들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도 우리 력량의 상당한 부분을 돌려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는 더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주력하며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을 비교적 가까운 속도로 발전시켜 인민 생활 안정 향상의 과업을 시급히 해결하며 인민 경제의 부문 구조를 개선하여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46년—1949년간에 우리 인민 경제에서는 중공업이 3.8 배로 장성하였고 경공업은 2.9 배로 장성하였는 바 이것은 중공업이 경공업에 비하여 약 1.3 배 더 빠른 속도로 장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에 중공업 부문에서는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

경공업 부문에서는 방직 공업, 고무 공업 등 중요 부문들이 특히 빨리 발전하여 중공업과 경공업의 부문 구조를 개선시켰다. 1954년—1956년간에 중공업 부문은 4 배로, 경공업 부문은 2.1 배로 장성하였는 바 이것은 중공업이 경공업보다 약 1.9 배 더 빠른 속도로 장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에도 인민 경제의 부문 구조가 현저하게 개선되고 중공업과 경공업 부문들에서 다 같이 과거에 생산되지 못하던 많은 새 품종들이 생산되게 되였다.

그런데 우리가 1956년 수준을 전쟁전 1949년 수준과 대비한다면 생산 수단 생산은 1.7 배로, 소비재 생산은 2.1 배로 장성한 것으로 된다. 즉 경공업 부문이 중공업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장성한 것으로 된다. 이것은 전시 중에 중공업이 경공업보다 더 혹심한 파괴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1956년 수준을 1946년과 대비한다면 중공업 부문은 약 6.5 배, 경공업 부문은 약 6 배로 장성한 것으로 되는바 이것은 해방후 우리 인민 경제의 발전에서 부문 구조가 개선되면서 중공업과 경공업이 거의 같은 속도로 장성해 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해방 직후 일제에 의한 파괴가 중공업 부문에서는 경공업에서 보다 더 심하였고 또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도 중공업의 파괴가 경공업에 있어서보다 훨씬 더 혹심하였으며 중공업의 복구 건설이 경공업의 복구 건설보다 더 어렵다는 사정이 중공업의 발전 속도를 제약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해방후 오늘날까지 우리 인민 경제에서의 중공업과 경공업의 발전 속도상 호상 관계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과 제기된 당면 과업의 해결을 타산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킨 우리 당과 정부의 경제 정책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규정되였던 것이다.

당은 소여 시기의 조건에 비추어 필요하며 가능한 정도로 중공업을 발전시켰는 바 일시 소여 시기의 특수 조건으로 말미암아 중공업의 발전이 경공업의 발전보다 뒤떨어지게 되는 시기에 있어서도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대한 당의 방침은 의연히 견지되는 것이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대한 방침은 항상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기초에 놓여 있다.

당은 이와 같이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경제 건설에서의 주요 방향으로 규정하면서도 우리 력량을 적절히 분배하여 동시에 경공업 및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당면한 인민 생활 향상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왔다.

제1차 5 개년 계획 기간에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당의 경제 발전의 기본 로선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새로운 수준에로 제고시키는 데 있다.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견지하는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하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전체 일'군들의 사상적 동원이 요구된다.

우리는 경제 건설에 대한 각급 당 단체들의 역할을 일층 제고하며 당, 국가 및 경제 지도 일'군들의 지도를 개선함으로써 지도를 대중 속에 접근시키며 발동된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창조적 열성을 옳게 조직 동원하여 우리 당 12월 전원 회의가 제시한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 국가 및 경제 지도 일'군들은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옳게 인식하고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지도와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부시키며 우리 당 12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을 광범한 대중 속에 계속 침투시킴으로써 전체 일'군들이 자각적으로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동원되도록 사상 동원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 단체들은 당의 결정, 지시들이 실지 생활과 생산 활동에서 구현되도록 정치, 조직 사업을 강화하며 당의 경제 정책의 외곡 및 결정 지시에 대한 형식적인 태도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하도록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 *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은 더욱 자체의 힘으로, 그리고 더욱 근본적으로 우리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당은 우리의 구체적 형편을 고려하여 경공업과 농업의 급속한 발전에 특별한 배려를 돌리면서 우리의 력량과 모든 조건을 타산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고 있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 이것은 우리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인민의 의식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길——그것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키는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철저한 실현에 있다.

직업 동맹 사업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박 상 홍

오늘 조선 인민들은 3 개년 계획을 빛나게 총화하고 제1차 5 개년 계획의 첫해인 금년도 계획 실행의 거보를 내디디였다.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는 제3차 당 대회와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에 고무된 인민 대중—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전례 없는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에 의하여 강력한 앙양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의 과업이 거대하고 복잡할 수록 인민 대중의 적극적인 창조적 활동은 더욱더 제고되고 있으며 그들의 창발성은 사회주의 건설의 결정적 요인으로서 더욱 명확히 그리고 강력하게 발현되고 있다.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향도되는 인민 대중의 창조적 활동의 강력한 앙양의 기초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에 있다.

우리 당 제3차 대회는 전체 인민들 앞에 전쟁에 의하여 령락된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대한 제1차 5 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거대한 과업의 성과적 수행은 생산 활동에의 전체 인민들의 한층 적극적인 참가와 그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의 강력한 앙양에 의하여서만 보장될 수 있다. 인민 대중의 창조적 열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 것은 직업 동맹과 청년 동맹 등 기타 대중 단체들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은 대중 단체들의 사업에 세심한 주의를 돌렸으며 그 사업의 개선 강화에 관심을 돌렸다. 대중 단체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직업 동맹이다. 직업 동맹은 주권을 인민들과 함께 장악한 로동 계급으로 조직되였으며 국가 사회 생활의 각이한 분야에서 일하는 각종 직업을 가진 전체 로동자들을 망라하고 있다.

우리 혁명 발전의 매 시기와 단계에 있어서 직업 동맹은 로동당의 령도하에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기본상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직업 동맹 사업에는 일련의 사상, 정치적 오유와 결함들이 지속되여 왔다. 직업 동맹 사업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결함은 동맹 내에 진정한 당적 사상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것이며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독재 체계 내에서 직업 동맹의 지위와 역할을 외곡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결함들은 당적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던 직업 동맹의 일부 책임적 지도 일'군들에 의하여 지속되여 왔는바 특히 반당 종파 분자인 서 휘에 의하여 더욱 조장되였었다.

전 직업 동맹 위원장이던 서 휘는 우리 당 제3차 대회가 직업 동맹 앞에 제시한 과업 즉 동맹 내에 건전한 사상 체계를 수립하고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며 각급 동맹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것 등의 과업을 사상적으로 접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반당 종파 분자 서 휘는 그의 집행을 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업 동맹을 자기의 종파적 음모 활동에 리용할 목적으로 직업 동맹에 대한 당의 지도적 역할을 거부하고 그를 당, 국가 경제 기관에 대립시키려고 기도하였다. 서 휘는 자기의 반당적 종파적 음모 활동을 음폐 또는 합리화하기 위하여 동맹 내에 직업 동맹에 대한 비 맑스—레닌주의적 견해를 날조 류포시켰으며 극단한 자유주의, 개인주의 경향을 조장시켰다.

우리들의 과업은 전체 직업 동맹 일'군들에게 직업 동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원칙 그리고 직업 동맹에 대한 당의 결정들을 심오하게 연구 체득시키며 당과 직업 동맹, 국가 경제 기관들과 직업 동맹과의 관계, 직업 동맹의 기본 임무와 역할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데 있다.

우리 당의 령도는 직업 동맹의 생활적 기초이다.

조선 로동당은 조선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참모부이다. 우리 당은 혁명의 성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의 근로자들의 혁명적인 단체들을 조직하였으며 그를 유일한 목적에로, 혁명 승리에로 향도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는 여러가지 근로자들의 혁명적 조직인 조선 로동당, 국가 기관, 직업 동맹, 민주 청년 동맹, 민주 녀성 동맹, 협동 단체, 문화 단체 기타 등이 있다. 이 모든 조직들은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독재 체계를 이루고 있는바 이들은 한가지의 공통된 목적, 즉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독재 체계에 속한 모든 조직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가 담당한 과업과 사업 방법들은 결코 동일하지 않으며 동일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조직들은 자기의 과업과 성격에 적합한 활동 방법으로써 혁명 승리를 지향하여 투쟁한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을 혁명의 유일한 목적에로 통일 집중시키며 향도하는 것은 우리 당이다. 그러므로 직업 동맹을 포함한 모든 대중 조직들은 우리 당의 일상적인 령도하에 대중을 당이 제기한 혁명 임무의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는 당 정책의 집행자이며 대중을 당과 련결시키는 인전대적 역할을 수행한다. 만일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독재 체계 내에서 향도성——우리 당의 향도가 없다면 근로자들의 여러가지 조직의 활동을 공통된 목적에로 통일 집중시킬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혁명 승리를 촉진시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독재 체계에 있어서 오직 우리 당만이 향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조선 로동당은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가장 우수한 선진 분자들로서 조직되였으며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자기 사업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선진 당들의 풍부한 경험으로 무장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대중 속에서 높은 권위와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있다. 조선 로동당——이것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최고 형태의 조직이다.

해방 후 조선 혁명의 경험은 오직 우리 당만이 국내외에 조성된 복잡 다단한 정세하에서도 혁명 승리를 위한 정확한 전략 전술을 수립하고 근로자들의 모든 조직들과 전체 인민들을 령도하여 어떠한 곤난과 애로라도 극복 타개하고 종국적 승리를 조직 보장할 능력을 가진 강유력한 조직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실로 해방 후 조선 인민이 쟁취한 찬란한 성과와 승리들은 그 어느 하나를 막론하고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와 현명한 지도가 있음으로 하여 쟁취되였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해방 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주객관적 정세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인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옳은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을 확립하고 조선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창건 공고화하면서 그의 주위에 전 조선의 애국적 민주 력량을 튼튼히 결속시키며 특히 우리 혁명의 령도적 계급인 로동 계급의 계급적 각성을 제고하며 그들을 유일한 사상과 목적에로 단합시키는 사업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로동 계급을 하나의 단합된 혁명적 력량으로 조직 교양하며 그들을 당이 제기한 혁명 과업의 수행에로 한결같이 조직 동원할 목적으로 직업 동맹을 창건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의 매 시기와 매 단계마다 직업 동맹 앞에 정확한 사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자기의 우수한 간부들을 그에 파견하였으며 직업 동맹 사업에서 나타났던 이러저러한 비 맑스주의적 사상 경향들과 견결히 투쟁하여 왔다.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하에 직업 동맹은 오늘과 같이 강대한 로동 계급의 조직으로 장성 강화되였는 바 해방 후 직업 동맹이 달성한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령도와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 로동당은 직업 동맹의 창건자이며 지도자이다.

우리 당의 령도는 직업 동맹 사업에서의 성과의 기본 담보로 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만일 우리 당의 령도가 없다면 직업 동맹은 불가피하게 어떠한 직업적 협소성, 정치적 무관심성 혹은 기회주의에로의 전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직업 동맹 자체의 그 어떠한 당면 목적도, 로동 계급의 종국적 목적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이 직업 동맹을 포함한 대중 단체들의 아무런 방조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에 의거함이 없이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은 사업에 있어서 직접 직업 동맹에 의거하고 있다…그것을 통하여 당은 계급 및 대중과 밀접히 련결되며 또 그것을 통하여 당의 지도하에서 계급의 독재가 실현되는 것이다. 직업 동맹과의 밀접한 련결이 없이는, 직업 동맹의 헌신적 활동이 없이는 다만 경제 건설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적 건설에서도 우리는 물론 두해 동안은 커녕 두달 동안도 국가를 통치하며 독재를 실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레닌, 공산주의에 있어서 좌익 소아병, 37페지,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라고.

상술한 바와 같이 당의 지도적 역할과 직업 동맹의 인전대적 역할의 유기적인 옳은 결합은 우리 혁명 승리의 중요한 담보 중의 하나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혁명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직업 동맹을 정확히 향도하면서 그의 활동에 의거하였으며 또한 직업 동맹으로 하여금 모든 활동을 당의 령도하에 전개하면서 인전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옳게 실행하도록 지도하였다.

직업 동맹이 당의 령도하에 사업한다는 것은 직업 동맹 내에서 일하는 모든 당원들이 당의 결정 지시들을 사상적으로 옳게 접수하고 그를 전체 동맹 기관들의 사업에 구현시키며 직업 동맹의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립각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집행 보장에 복종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은 전체 인민들과 함께 로동 계급의 절실한 념원을 반영한 것이므로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은 곧 로동 계급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되는 동시에 직업 동맹 자체의 목적과 희망을 실현하는 것으로 된다. 직업 동맹은 자기의 총 력량을 언제나 당이 제기한 정치, 경제적 과업들의 실현에 기울여야 하며 대중을 교양 훈련하여 당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킴으로써 인전대로, 당 정책의 적극적인 실천자로 되여야 한다.

그러나 반당 종파 분자 서 휘는 자기의 종파적 야욕으로부터 출발하여 직업 동맹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면서 직업 동맹 내의 일부 사상적으로 견실치 못한 분자들을 규합하여 종파적 틀을 형성하고 온갖 간교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당 중앙 위원회에 대한 대중의 두터운 신뢰와 지지를 훼손 약화시키려고 책동하였으며 당 정책의 집행을 태공하였다. 그는 직업 동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들을 무시하고 당의 령도를 떠난 직업 동맹의 그 어떤 《자치》를 주장하였으며 심지어 직업 동맹은 로동 계급의 기타 모든 조직 (당 및 근로 단체) 들을 포괄한 총괄적 조직체라는 비 맑스주의적 사상을 날조 류포시킴으로써 직업 동맹이 뚝 제일이라는 환상을 동맹 내에 부식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또한 직업 동맹에 관한 우리 당의 결정들을 지침으로 할 대신에 1953년 《근로자》 10월호에 발표된 자기의 론문이 마치 우리 나라 직업 동맹 운동에서 《강령》적 의의를 가지는 문헌인 듯이 과장하여 선전하였으며 자기 자신을 직업 동맹 사업에서의 《권위자》로 내 세우려고 하였다.

일부 정치적으로 암둔한 일'군들은 반당 종파 분자 서 휘의 견해에 추종하면서 당적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당의 정책과 결정 실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난 기간에 직업 동맹 단체들의 사업은 당이 제시하는 방향에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직업 동맹은 각종 직업의 로동자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전체 로동 계급을 포괄한 조직체로는 될 수 있으나 로동 계급의 모든 조직을 총괄한 조직체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 동맹은 당의 령도를 떠난 어떠한 《자치》적 조직체인 것이 아니라 당의 령도하에 그의 정책을 대중 속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창발적으로 활동하는 자립적 조직체이다.

직업 동맹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인하는 서 휘의 주장은 반당적이며 반 맑스주의적이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들 반당 종파 분자들의 죄행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에서 제때에 폭로 분쇄되였으며 그들은 전체 당원들과 군중들의 규탄을 받았다.

직업 동맹 내 적지 않은 일'군들은 8월 전원 회의 결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통하여 직업 동맹에 대한 당적 지도의 의의와 직업 동맹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더욱 똑똑한 인식을 가지게 되였으며 자기의 당성을 단련 제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직업 동맹 내 일부 일'군 속에서는 반당 종파 분자들이 끼친 여독이 완전히는 극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부 일'군들은 직업 동맹이 로동 계급을 당과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 정책의 적극적 실천자라는 사상 관점에 확고히 서지

못하고 있다.

당 단체들은 직업 동맹 일'군들 속에서 계속 꾸준히 반당 종파 분자들의 반당적 죄행을 폭로하며 그들의 당성 단련을 위한 투쟁을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항상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심오히 연구 파악하고 그의 실현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력량을 경주하며 어느 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당적 원칙을 고수하며 당을 적극 신뢰 옹호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옹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직업 동맹은 국가 경제 기관의 친근한 방조자이다.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이 자기의 수중에 국가 주권과 중요·생산 수단을 장악한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직업 동맹은 국가 주권과 경제 기관의 가장 친근하고 불가결의 방조자이다. 그러나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인민들을 억압 착취하는 자본가들의 도구인 국가와 로조 단체 사이에는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가 놓여 있다.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의 로동 계급은 식민지 노예의 처지로부터 해방되여 피압박, 피통치 계급으로부터 나라의 령도적 계급으로, 통치 계급으로 전환되였다. 북반부에는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진정한 인민 정권이 수립되였으며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였다. 인민 정권의 제반 시책은 그 모든 것이 곧 로동 계급과 인민들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 기관과 직업 동맹간의 대립과 갈등은 있을 수 없으며 국가와 로동 계급의 리익은 일치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국가 기관과 직업 동맹간의 관계는 그들이 지향하는 바 목적의 공통성, 즉 국가 및 사회 제도의 공고 발전과 경제 및 문화 건설을 위한 공통적 노력에 기초하여 적극 단결하며 협조하는 원칙 우에 수립되여야 한다.

그러나 전 직업 동맹 위원장이던 서 휘는 자기의 반당적, 종파적 음모를 실현할 목적으로 우리의 국가 경제 기관들과 로동 계급 사이에 마치 그 어떤 상용할 수 없는 모순이나 있는 듯이 주장하면서 직맹 일'군들에게 국가 행정 관리 일'군들을 《틀어쥐고 혼내우며》 그들과 《투쟁》하라고 지시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서 휘는 사실상 직업 동맹 단체들과 일'군들이 자본가와 그의 정권을 반대하듯이 국가 행정 관리 일'군들과 대립하여 투쟁하도록 조장하였었다. 결과에 한때 일부 직업 동맹 단체들은 생산 계획 달성에는 무관심하면서도 관리측에 부당한 요구 조건만을 일방적으로 제기하였으며 심지어 로동자들의 애국적 발기에 의하여 진행되는 시간외 로동까지도 무원칙하게 시비하였다.

우리 나라와 같은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마치 직업 동맹만이 로동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듯이 그릇되게 묘사하며 로동 계급 자신이 주인으로 된 국가 기관과 직업 동맹을 대립시키려는 행동은 맑스주의로부터 부르죠아편에로의, 트레이드 유니온적 편견에로의 전락인 것이며 그러한 행동은 원쑤들에게는 유익하나 로동 계급 자신에게는 아주 불리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 사회 제도 자체가 바로 로동 계급의 리익에 복무하고 있으므로 직업 동맹은 로동자들의 리익과 생활을 돌보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 역시 잘못이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직업 동맹은 로동자들의 로동 조건과 생활 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의 방법과 형식은 자본주의하에서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은 자본주의적 생산과는 달리 부단히 장성하는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으니만큼 인민 경제의 확고한 장성에 기초하여서만 근로자들의 생활은 개선 향상될 수 있다.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사회주의적 생산을 부단히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며 결코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 근로자들을 이 길로 인도한다는 것, 이것은 곧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정당한 길을 인식하지 못하고 생산 발전에는 무관심하고 생활 문제만 운운한다면 일종의 경제주의적 오유를 범하게 될 것이다.

직업 동맹 단체들은 로동자들의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자기의 주되는 력량을 사회주의적 생산의 급격한 앙양에 돌리는 동시에 당과 정부에 의하여 주어진 조건들과 현존한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탐구 리용하며 로동자들에 대한 각종 봉사 사업을 더욱 개선함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직업 동맹은 일부 행정 관리 일'군들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로동자들의 생활에 무관심한 관료주의적 태도와 현상들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직업 동맹 단체들은 이상과 같은 일부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바 그것은 어데까지나 로동자들을 기업소 관리 행정에 대립시키는 방향에서가 아니라 행정측과 적극 단결하며 협조하는 원칙 우에서 개별적인 관리 일'군들에 대한 동지적인 충고와 비판의 방법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기업소들에서의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소 관리측과 직업 동맹 단체들의 공통된 임무이다.

직업 동맹은 행정 명령의 준수와 로동 대중에 의거하는 유일 관리제의 강화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직업 동맹의 과업은 주로 조직—교양적 및 경제적 분야에 있다

정권을 장악한 후 로동 계급 앞에 제기되는 중요 임무는 이미 쟁취한 혁명적 전취물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계급도 없고 착취도 없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동 계급의 최종적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직업 동맹을 비롯한 대중 단체들이 놀아야 할 역할은 실로 거대하다. 이에 있어서 직업 동맹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로동 계급을 공산주의 정신으로 교양 훈련하며 그들을 국가의 주인다운 참다운 사회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는 데 있다. 즉 레닌이 일찌기 교시한 바와 같이 직업 동맹은 《관리의 학교, 경영의 학교, 공산주의의 학교》로 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직업 동맹 앞에는 조직 교양적 과업이 더욱 중요하게 제기 된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로동 계급은 력사적으로 청소할 뿐더러 과거에 혁명적 단련이 부족하였으며 전후 그 대렬에 비프로레타리아층이 많이 인입됨으로써 그 구성이 복잡하며, 그리고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소상품 경리가 남아 있고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미제와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이 전파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독소가 로동 계급 대렬 내에 일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 동맹이 공산주의 학교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려면 그의 구성과 성격에 적응한 사업 체제와 방법을 확립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직업 동맹은 자기의 모든 사업에서 해석과 설복, 교양의 방법을 일관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로동 대중을 자기 대렬 내에 광범히 망라시켜 그들을 실지 동맹 생활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교양 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날 적지 않은 직업 동맹 일'군들은 직업 동맹의 성격을 망각하고 동맹 사업을 《권력화》 하려고 하였으며 대중을 교양 훈련하는 사업을 극히 차요시하고 직업 동맹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학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케 하였다. 일부 직업 동맹 일'군들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반당 종파 분자들이 날조 류포시켰던, 직업 동맹은 《반(半)국가적 조직체》란 그릇된 견해에 추종하여 직업 동맹의 《감독 기능》만을 일면적으로 지나치게 내세웠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당과 정부가 제시한 과업들의 수행을 직업 동맹의 성격과는 배치되게 행정적 방법으로만 보장하려 하였으며 군중을 해석과 설복의 방법으로 납득시켜 동원할 대신에 되는 대로 명령, 욕설, 추궁하는 등의 관료주의적 방법으로 동원함으로써 그들로부터 리탈되는 경향까지 나타냈던 것이다. 또한 일부 직업 동맹 일'군들은 자기의 조직을 부단히 공고히 하며 그를 통하여 대중을 교양할 대신에 사무실에 들어 앉아서 불필요한 문서 놀음에만 시간을 보내고 하부 조직과 대중에게 접근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기 조직은 제껴 놓고 행정 관리 일'군들 만을 대상하여 사업함으로써 동맹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켰으며 많은 맹원들을 동맹 생활에서 유리시켰다.

이러한 결함들이 발생한 원인은 직업 동맹 일'군들 자신이 혁명의 추진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직업 동맹 조직의 의의를 과소 평가하며 경제 사업의 성과는 직업 동맹 단체들의 조직 정치 사업에 의한 로동 대중의 창발성과 자각적 열성의 제고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리해하지 못하는 데 있었다. 그것은 또한 직업 동맹 일'군이 혁명적 군중 관점을 철저히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되는 바, 그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인민 대중과 로동 대중의 결정적 역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다.

직업 동맹 단체들은 상술한 결함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직업 동맹의 성격에 적응한 사업 방법을 확립하는 동시에 직업 동맹 사업을 《권력화》 또는

《행정화》 하려는 그릇된 사상 경향의 온갖 표현과 무자비한 투쟁을 철저히 조직 전개하며 동맹 단체들의 공고화와 맹원들의 동맹 생활을 강화하며 동맹 일'군들의 혁명적 군중 관점 확립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와 아울러 직업 동맹 단체들은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인 조직—교양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여 로동 계급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애국주의로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미제와 리 승만의 반인민적 정책을 폭로 해석하며, 남반부 인민들의 처지를 인식시켜 남반부 인민들을 성원하게 하며 미제를 남반부에서 물러가게 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층 궐기케 하며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케 할 것이다. 그리고 로동 대중으로 하여금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 강화의 필요성과 의의, 사회주의 건설의 목적과 과업, 국가 주권의 주인이며 령도적 계급으로서의 로동 계급의 사명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 어느 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자기들의 계급적 임무를 파악하며 그를 끝까지 고수하여 생산 활동에서 고용적 관념과 비과학적, 비문화적 생활 관습을 퇴치하며 생산에서 국가의 주인다운 자각성과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며 로동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업 동맹 단체들은 또한 로동 대중 속에 우리 당의 투쟁 력사와 정책들을 철저히 해석 침투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의 정책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로동 대중의 절실한 계급적 리해를 반영하고 있는바 그를 로동 대중에게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로동 대중으로 하여금 당 정책에 자기들의 광명한 미래가 약속되여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할 것이며 따라서 그의 실현에 최대의 자각적 열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조직—교양 사업을 통하여 직업 동맹은 로동 대중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 사업에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당 제3차 대회는 3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의 각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 부문들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며 공업화의 기초 건설을 더욱 힘차게 촉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 생산을 새로운 수준에로 제고시키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계속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한 제1차 5 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5 개년 계획의 첫해인 금년도 공업 생산 계획은 1956년도 실적에 비하여 22%의 장성을 예견한 방대한 계획이다. 근로자들은 우리 당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온갖 예비를 탐구 동원하여 국가 계획을 초과할 자체 증산 결의를 빛나게 수행하고 있다. 우리 당과 정부에 의하여 지도되는 로동 대중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은 전례 없는 강력한 앙양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의 과업은 로동 대중의 앙양된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을 계속 고무 추동하며 그들에게 온갖 방조를 주어 그들의 결의가 보다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일부 직업 동맹 단체들은 이러한 사업에 자기의 주되는 력량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증산 투쟁에 궐기한 로동자들의 뒤를 따라 가고 있다. 그것은 일부 직업 동맹 단체들이 로동 대중을 경제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중요한 형식과 방법인 사회주의적 증산 경쟁 운동의 광범한 조직, 생산 협의회의 합리적 운영, 대중의 창발적 지혜의 적극적인 발양, 가치 있는 경험들과 제의들의 보급 일반화 및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등한히 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직맹 일'군들은 전후에 우리에게 조성된 경제적 형편들을 충분히 타산함이 없이,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려면 온갖 난관과 애로를 근로자들의 창발적 열성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함이 없이 증산 경쟁 운동을 그릇된 방향에서 조직하였었다.

반당 종파 분자 서 휘는 하부 일'군에게 《조건이 없이는 증산 경쟁 운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결과에 일부 직업 동맹 단체들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증산 경쟁을 할 수 없다》는 립장을 고집하면서 사실상 증산 경쟁의 지도에서 물러 섰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생산 직장에서는 증산 경쟁 운동 참가자들이 점차 감소되여 갔으며 생산 협의회는 한 때 《애로 조건》만을 제기하는 회의로 변하였었다. 이리하여 반당 종파 분자들은 직업 동맹 단체들과 로동자들을 곤난 앞에서 굴복케 하며 증산 투쟁에서 리탈케 하여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성과적 수행을 방해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증산 경쟁을 조직함에 있어서 직업 동맹은 부당한 《조건》 만을 따지는 해독적인 사상 경향들과 견결히 투쟁하면서 증산 경쟁 운동을 생산 활동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들을 극복 타개하며 예비를 적극 탐구 리용하여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며 오작품을 근절하고 제품의 질을 제고하며 로력과 원자재의 소비 기준을 저하시키며 계획을 일별, 지표별로 완수하며 안전 조작법을 준수하며 로동 규률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조직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증산 경쟁 운동에서의 주의가 각이한 부분의 실정과 특성에 적응하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일시적 깜빠니야로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그의 실행 정형을 수시로 검토 분석하고 제때에 그의 개선 대책을 세우며 생산 조건과 기술 기능 수준 등의 발전 정도에 적응하게 증산 의무를 부단히 갱신 발전시키며 물질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를 옳게 결합시키며 락후한 부문과 로동자들을 진심으로 방조하며 그들을 선진적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데로 돌려져야 한다. 이리함으로써 만이 증산 경쟁 운동의 정치 교양적 역할을 한층 제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업 동맹 단체들은 생산 협의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직업 동맹 단체들은 생산 협의회가 로동자들의 기업 관리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배양하며 그들의 창발적 제기들을 생산에 도입케 하는 등으로 생산 과제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업 동맹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에 또한 주되는 력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로동 강도만을 제고할 것이 아니라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와 작업의 기계화를 추진시켜야 한다.

때문에 직업 동맹 단체들은 로동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도록 적극 도와 주며 기술 교양 체계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며 직장 강습소와 학교들에서 교수 수준을 제고하도록 방조를 주며 로동자들의 새 기술 도입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그들에게 생산의 기계화가 가지는 의의를 해석해 주며 대중적인 발명 및 합리화 운동을 적극 지지 장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로력 혁신자들과의 사업을 개선하고 새 로력 기준량 창조 운동을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며 이룩된 선진 기준을 일반화하여야 한다. 적지 않은 직업 동맹 단체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행정 관리측에만 위임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로동 대중의 창조적 열성을 마비시키는 현상들이 때때로 발로된다.

* *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 이후 직업 동맹 단체들을 사상적으로 공고화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데까지나 초보적인 성과에 불과하며 아직도 직업 동맹 단체들을 사상 조직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투쟁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각급 당 단체들은 현 시기 직업 동맹 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체 직업 동맹 단체들과 그 일'군들로 하여금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 《직업 동맹 사업에 대하여》를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한결같이 동원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동맹 일'군들 속에서 반당 종파 분자들의 죄행을 철저히 폭로하며 반당 종파 분자들이 직업 동맹 사업에 끼친 여독을 끝까지 청산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꾸준히 전개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당 로선과 정책을 더욱 깊이 체득시키며 직업 동맹의 임무와 역할을 정확히 인식시키며 그들의 당성 단련을 강화함으로써 직업 동맹 내에 맑스—레닌주의적인 확고한 당적 사상 체계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급 당 단체들은 직업 동맹 내 민주주의 중앙 집권적 조직 규률을 강화하며 그의 사업 체계를 직업 동맹의 성격과 당면 임무에 적응하게 정비 강화하며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동맹 내에 관철시키고 령도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며 일체 관료주의, 형식주의 및 사무실적 사업 작풍과 자유주의적 무규률적인 부화 타락한 현상들을 퇴치하고 질서와 제도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 직업 동맹 일'군들로 하여금 각급 동맹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사업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 직업 동맹 단체들의 사업 수준을 자기 앞에 제기된 정치 경제적 임무의 수준에로 급속히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당 정책 관철을 위한 수산 부문 일'군들의 투쟁

강 점 구

우리 당은 수산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를 언제나 당 경제 정책의 중요 부분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또 간주하고 있다.

그것은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를 백방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돌리고 있는 우리 당 경제 정책 집행에서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을 풍부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림하여 있는 해양국으로서 연 1만 7천 여 킬로메터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연해에만도 75만 평방 킬로메터 이상의 광활한 어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수산 자원은 세계적으로 풍부한 바 과거의 불충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우리 나라 근해에는 약 530 여 종에 달하는 수산 동식물이 회유서식하고 있다.

동해에는 허다한 난류성, 한류성 어족들이 회유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 동북 지구 근해는 세계 3대 어장의 하나인 오호쯔크해 어장에 련속되여 있어 중요 어장을 이루고 있다.

다종 다양하고 질 좋은 어류 자원이 풍부한 서해에는 또한 패류(貝類), 해조류(海藻類) 자원이 풍부한 어장이 광활하다.

이 밖에도 우리 나라의 자연 조건은 하천, 호소, 저수지들을 리용하여 담수 양어 사업을 발전시킨다면 벌판과 산간지대에서 얼마든지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지여져있다.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인식 리용하고 있는 우리 당과 정부의 현명한 경제 정책하에서 이러한 모든 유리한 자연 지리적 조건과 풍부한 수산 자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 수산업은 오늘 우리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북반부를 지상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우리 당의 위대한 정책——우리 인민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당의 전투적 지향을 해결함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가 가지는 인민 경제적 의의는 크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의 부단한 개선 향상, 무엇보다도 식생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거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 식료품의 하나인 수산물을 공급하는 우리 나라 수산업은 특히 농업이 아직도 량곡과 육류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킴에 더욱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수산업은 인민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수산업은 식료품 공업은 물론 유지 화학 공업, 비료 제조 공업, 제약 공업 등을 위하여 유지, 피혁, 가리, 옥도 기타 많은 귀중한 원료를 제공하며 농업을 위하여서는 농약과 어비와 동물성 사료를 주는 풍부한 원천이다.

이렇게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서와 공업, 농업 발전에 직접 막대한 기여를 하는 수산업은 또한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국가 자금 축적과 외화 획득의 중요 원천으로도 되고 있다.

이것은 재정 발란스와 외화 발란스가 일정한 긴장성을 띠고 있는 현 시기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경공업과 함께 자금 축적의 주요 원천으로서 국가 세입면에서 큰 비중을 갖는 수산업은 특히 그 수익성이 비상히 높은 것이 특징적인 바 지난 3 개년 계획 기간만 보더라도 그 평균 리윤률은 31.6%

에 달하였다.

우리 나라의 수산물 특히 고급 어족과 특산물인 해삼, 낙지, 갈미, 한천, 김, 패류, 어간유 기타 어류는 외화 획득에서 비상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국제 시장에서의 몇 가지 우리 나라 수산물의 교환 비률을 1956년도 수출 가격에 의하여 개략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품 명	단위	좁쌀(톤)	면직물(메터)	철판(톤)
해 삼	1톤	50	12,100	55
낙 지	〃	12	2,890	5.5
갈 미	〃	28	6,700	12
한 천	〃	38	9,250	17
김	〃	34	8,000	15
까 나 리	〃	3.5	750	1.5
어 간 유	〃	17	4,050	7
명 란	〃	3.5	750	1.5

이상과 같이 수산업은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인민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기 위한 당의 확고 불변한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중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발전을 위한 유리한 자연 경제적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이를 위하여 큰 력량을 돌려 왔으며 정확한 령도를 보장하여 왔다.

특히 전후 시기에 당은 수산업 부문에 조성된 혹심한 전쟁 후과를 청산하고 이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제6차 전원 회의는 전후 수산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방향과 과업을 제시하였고 력사적인 우리 당 제3차 대회는 금후 수산업 발전의 기본 방향과 과업들을 명시하였다.

지난 3 개년 계획 기간에 당의 수산업 정책은 집중적으로 이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구축 강화하며 이 부문에서 사회주의 경제 성분을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이에 기초하여 어획고를 백방으로 제고하도록 보장하는 데 돌려졌다.

이 기간에 당은 국영 수산 부문에만도 무려 31 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를 실시하였으며 수산 협동 조합들이 전쟁 피해를 가시고 조직 경제적으로 강화 발전되도록 방조하기 위하여 거액의 전쟁 피해와 세납금의 보상 면제, 자금의 장기 대부, 각종 선박 어구 자재의 렴'가 공급 등 일련의 특전을 보장하는 한편 새로 반농 반어 협동 조합을 광범히 조직하도록 장려하고 이들의 원만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대한 방조를 주었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어획고를 백방으로 제고할 것을 강조한 당의 정확한 수산 정책은 3년이란 짧은 기간에 이미 그 정당성이 실천에서 빛나게 확증되였다.

당의 정확한 지도하에서 우리 나라 수산업에는 지난 3년간에 거대한 량적, 질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수산업은 이 기간에 전쟁으로 인한 가혹한 피해를 완전히 청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 시설을 새 기술로 정비 확장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할 물질—기술적 토대를 구축하여 놓았다. 우리의 기계 선박 수는 전전에 비하여 193.5%로 증가되였고 대 소 범선은 131%로 장성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우리는 강력한 선박 공업의 토대를 구축하여 놓았으며 가공 설비들도 선진 기술로 장비 확장되였다.

이 기간에 수산 부문 지도 일'군들의 관리 운영 경험과 로동자, 조합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도 크게 제고되였다.

국영 수산 부문과 수산 협동 조합들은 더욱더 공고 확대되여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 섰으며 반농 반어 협동 조합도 급속히 장성되여 오늘 우리 나라 어촌에는 2만 여 명의 어민을 망라한 180 개의 수산 협동 조합과 820 여 개의 반농 반어 협동 조합이 있다.

국영 수산 부문 로동자 장성 동태

1954년	1955년	1956년
100	146	152

총어획고 중에서 사회주의 성분이 차지하는 몫의 장성 동태

	1949년	1956년
총어획고	371,875 (톤)	405,168 (톤)
사회주의 성분의 어획고	273,199 (76%)	391,710(96.7%)

우리 당의 정확한 수산 정책과 끊임 없는 물질—기술적 방조에 고무되면서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부문 일'군들이 헌신적으로 투쟁한 결과 우리 나라 어획고는 1956년에 전전 최고 수준을 국영 부문에서는 143.1%, 협동 조합 부문에서는 111.9%로 각각 초과하여 1956년의 총 어획고는 약 41만 톤에 달하였다. 이것은 전전 수준을 총체적으로 109%로 초과한 것으로 되며 인구 1 인당 분배량에 있어 실로 세계적 수준인 것이다.

지난 3 년간에 우리 수산 부문이 달성한 성과는 이렇게 크다.

그러나 우리가 달성한 이 성과는 우리 수산업 분야에 존재하는 그 모든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아직도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이 수산 부문 앞에 제기한 요구에 비하여 볼 때 아직도 멀리 뒤떨어지고 있다.

당의 수산 정책이 정확하게 관철되지 못한 결과 3 개년 계획 기간에 수산 부문은 매해 자기 계획을 미달하여 결국 3 개년 계획을 73.1% 밖에 수행하지 못하였다. 수산업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대 전변이 요구되였다.

❋ ❋

우리 당 경제 정책의 빛나는 승리로 되는 3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우리 인민 경제 내부에 새로운 경제적 조건들을 조성하였다.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에서 계획이 빛나게 초과 완수된 결과 우리 나라 인민 경제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앙양기에 들어 섰으며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우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현저히 향상되였다. 이로 말미암아 수산물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와 인민 경제의 수요는 비상히 제고되였다.

이렇게 제고된 수산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요구되였는 데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수산 부문에서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을 확고하게 집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요구되였으며 지난 시기 이 부문에서 당 정책을 옳게 관철시키지 않은 결과 존속된 허다한 본질적 결함들을 퇴치하는 것이 요구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는 지난 기간 수산업이 달성한 성과와 결함을 분석 총화하고 우리 인민의 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념원하여 제1차 5 개년 계획 기간에 어획고를 년산 60만 톤 이상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을 규정하면서 금후 수산업을 가일층 발전 시키기 위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 하였다.

전원 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난 시기 수산업 부문에 있던 기본적 결함은 일부 수산 부문 일'군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투기적이며 소극적인 사상과 사업 방법을 근절하고 어획고를 급속히 제고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이고 기동성 있는 어획 투쟁에로 전환할 것을 당이 그처럼 루차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의 결정 지시가 철저히 집행되지 않았고 보수적, 소극적, 투기적 어로 방법이 지속되여 온 것이다.

이 외에도 수산 설비의 리용률이 낮으며 수산물 가공 사업이 락후하며 수산 협동 조합의 조직, 경제적 활동에서도 당의 요구에 위반되는 각종 현상이 존재하는 등 주요한 결함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함들의 기본 원인은 바로 수산 부문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을 관철하려는 고상한 당성이 부족하여 수산업 발전을 위한 당의 결정 지시들을 원만히 집행하지 않은데 있었으며 지방 당 단체들과 수산 부문 당 단체들이 이 부문에 존재하는 기술적 락후성을 비롯하여 새것과 선진적인 것을 적극 도입하려 하지 않는 등 제반 락후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불충분하게 취하였으며 당의 수산업 정책을 이 부문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에게 해설 침투시켜 그들의 무궁 무진한 지혜와 력량을 당 정책 집행에로 조직 동원하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미약하게 집행하여 온 데 있었다.

그러므로 4월 전원 회의는 당 정책 실현에서 이러한 형식주의적, 교조주의적 태도를 근절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의 가능성과 실현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는 수산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심해, 원해에 적극 진출하여 미개척 어장을 개발함으로써 어장을 확장하며 이를 년중 비우지 말고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중 소 어업과 세소 어업을 대대적으로 배합 운영하여 적극적인 어로 투쟁을 전개하며,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어로 생산을 과학적으로 조직 전개하기 위하여 어군 탐색 사업과 선진 기술 도입 사업을 강화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경제 지도 일'군들과 당 단체들의 지도 수준을 제고하도록 강조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수산 정책에 철저히 립각하고 있으며 그를 더욱 구체화한 전원 회의 결정은 우리 나라 수산 부문 일'군들에 의하여 현실에 구현되고 있으며 오늘 이 부문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일으키고 있다.

4월 전원 회의 결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 당 수산 정책의 정당성을 명백히 본 수산 부문 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결정을 적극 지지 옹호하면서 그를 실천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다.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건설자들인 우리 수산 부문 로동자들과 조합원들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작업 방법을 퇴치하고 적극적 어획 투쟁을 전개하라는 당의 호소를 실천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첫째로, 어획고 제고를 위하여 수산 부문 일'군들은 특히 투기적 근성을 극복 시정하고 중 소 어업과 세소 어업을 광범히 배합하여 어획 투쟁을 다양하게 전개함과 함께 내부 예비들을 동원 리용하면서 기동성 있게 사업을 조직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쟁취하고 있다.

동해안의 수산 부문 일'군들은 올해에 고등어, 멸치 등 주대상 어류의 회유 상태가 극히 불량한 악조건을 극복하고 변동된 해양 조건에 적응하게 각종 어구들을 교체하거나 2중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이로써만도 5월에는 2,560 톤, 6월에는 4,650 톤의 수산물을 어획하였으며 함남, 함북의 건착선들은 고등어와 멸치떼만 기다리지 않고 적시에 눈치 탐색에 착수하고 이 어업에 기동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작년 6월에는 한 톤도 잡지 못하였던 눈치를 금년 6월에는 672 톤이나 생산할 수 있였다.

장전 수산 사업소 로동자들은 미리용 어장에 대담하게 진출하여 새 어장을 획득하는 적극적인 어로 작업을 전개하여 금년 상반년 계획을 131%로 초과 수행하였으며 함경남도의 각 수산 사업소 로동자들도 원해에 적극 진출하는 한편 원해 작업과 근해 작업을 옳게 배합하면서 어장을 합리적으로 리용한 결과 금년 6월에 484 톤에 달하는 공치를 생산하였는 바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하여 실로 585배에 해당하는 기록적 수'자인 것이다.

중 소 어업도 대담하게 심해에 진출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함남, 함북도 내 수산 사업소들에서는 연승 어업을 심해에 적극 진출시켜 금년 4, 5월에는 작년 동기간에 비하여 함남에서는 239%, 함북에서는 184%로 각각 척당 생산량을 제고시켰다.

서해 수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것을 강조한 전원 회의 결정을 실천하면서 서해안의 수산 부문 일'군들은 금년 상반년에 작년 동기간에 비하여 어획고를 141.7%로 제고시켰다. 서해의 각 수산 사업소 안강망선들은 고기떼가 찾아 오기만 기다리던 과거의 소극적 현상을 시정하고 금년에는 초도, 납도 앞 지점까지 적극적으로 마주 나가 잡으므로써 작년에 8 톤밖에 잡지 못하였던 첫 조기떼를 금년에는 131 톤이나 생산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수산 부문 일'군들은 당이 제기한 수산업에서 선진적 어로 방법을 광범하게 도입 적용하는 문제에서와 어로 생산 사업을 과학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어군 탐색 사업, 통신 사업 개선 분야에서 새로운 전변을 보여 주고 있다.

서호 수산 사업소 곱등어 건착선——청년호의 어로장 윤 우찬 동무는 대상 어족의 습성을 옳게 타산하고 이에 적응하게 곱등어 건착망 어로법을 적용한 결과 자기 계획을 573%로 초과 실행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앞으로 곱등어 건착 어로법이 완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고등어가 생산되지 않을 때의 건착선들의 새로운 리용 대책을 내놓았다.

4월 전원 회의 이후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연 860 시간의 항공 탐색과 원해 탐색이 실시되였으며 통신망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중요 어장에 선박들을 집중 동원시킬 수 있었으며 고등어, 멸치가 잡히지 않을 때 운반선을 적시에 다른 작업에 돌릴 수 있었다.

이 밖에 수산 부문 일'군들은 그들의 모든 사업이 인민 생활 향상에 직접적으로 련결되여 있다는 인식을 높이고 선어와 랭동어의 생산 비중을 증가시키며 가공 제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서와 양어 증식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도 노력하고 있다.

례하면 웅기 수산 사업소 일'군들은 과거에 버리던 갈미의 내장과 하기 명태의 밸 등을 식료품으로 리용하기 위한 시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과거 하지 않던 도 들에서도 담수 양어 사업을 시작하였다.

둘째로, 수산 부문에서 일어난 전변으로서 앞으로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이 부문에 대한 당 단체들의 지

도 수준이 제고되고 관리 일'군들의 지도 사업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수산업은 극히 중요한 인민 경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이 부문에 대한 지방 당 단체들의 지도 사업은 다수 경우에 미약하였고 수산 기업소들과 수산 협동 조합 내 당 단체들도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4월 전원 회의 이후 지방 당 단체들은 수산업에 대한 당적 지도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지도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적 지도의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과거 수산 부문 내 당 단체들의 역할 제고를 저애하던 당 단체 조직 체계에서의 일부 불합리한 점들—례하면 많은 선박들을 한 당 단체에 속하게 함으로써 당원들의 당 생활을 정상화할 수 없게 하던 것 등을 바로 잡은 결과 직접 선박 현장에서 당 정치 사상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어획고 제고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관리 일'군들의 지도 사업에서도 적지 않은 개선이 있었다.

전원 회의 이후 관리 일'군들은 직접 배를 타고 현장에서 지도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이로써 로동자들과 더욱 접근하고 로동자들의 애로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로동자들의 창발적 의견을 더욱 많이 들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러한 제의와 애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였다.

전원 회의 후 로동자들의 생활에 대한 지도 일'군들의 관심이 더욱 제고되여 벌써 로동자들을 위한 허다한 휴계실, 목욕탕들이 설치되였고 주택, 합숙 조건들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도 사업이 개선되고 로동자 대중을 더욱 더 광범하게 기업 관리에 인입하고 있는 결과 로동자들의 열성과 적극성은 제고되여 작업선들의 출어 일수와 기망 회수는 현저히 제고되였다.

상반년에 동해안 수산 사업소들의 기선 저예망 어업의 건당 출어 회수는 작년 동기에 비하여 대형 기선 저예망선은 169. 5%, 소형 기선 저예망선은 144. 5%로 각각 장성되였으며 서해안의 몽금포 수산 사업소 로동자들은 출어 일수를 작년보다 142%로 제고시켜 상반년 해삼 증산 계획을 115%로 빛나게 초과 수행하였다.

함남도 내 수산 로동자들은 잡어 기선 저예망선의 기망 회수를 4월 전원 회의 전의 1일 6회로부터 오늘에는 8.5회로 제고시켰다.

세째로, 전원 회의 이후 일어난 전변은 수산 부문에 대한 사회적 지원 사업이 특히 강화된 것이다.

로력 협조를 비롯하여 수산 로동자들을 격려하는 광범한 사회적 지원 사업이 전개되였고 평남, 평북 등지에서는 의료 일'군들이 직접 선박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로동자들의 치료 사업을 수행하여 로동자들의 생산 열성을 제고시키고 생산 성과를 높이게 하는 등 감동적인 사실이 허다하였다.

특히 청년들은 《당은 바다에로 청년을 부른다》는 호소를 실천하기 위하여 각급 민청 단체들에서 열성자 회의를 진행하고 바다에 진출할 것을 지원하는 청년들이 속출하였는 바 벌써 850 여 명의 청년이 양양한 바다에서 증산의 선봉대로 싸우고 있다.

남포 수산 사업소 민청호 선장 전 배실 동무가 일하는 안강망선의 전체 청년 로동자들은 선박 수리가 지연되여 다른 선박들보다 2 주일이나 늦게 출어하였으나 풍파가 심하여 다른 선박들이 출어하지 못하는 날에도 계속 작업하는 등 청년다운 기세로 투쟁하여 상반년 계획을 187%로 초과 수행하여 금년도 국영 수산 부문 안강망선중 제1위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오늘 청년들이 바다에 대량 진출하고 있는 결과 우리 나라 수산 부문 로동자들의 평균 년령은 벌써 6세나 젊어졌는 바 이는 앞으로 수산업을 가일층 발전시킴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수산 부문 내의 애국적 로동자들을 비롯한 전체 일'군들이 4월 전원 회의 결정에서 제시된 당 수산 정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개하고 있는 용감한 투쟁은 벌써 거대한 성과를 가져 오게 하였는 바 전원 회의가 있은 후의 금년 2.4분기의 어획고를 작년 동기간과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956년 2.4분기	1957년 2.4분기	장성 정형
	(톤)	(톤)	(%)
국영 수산 부문	24,419	38,009	155
협동 단체 부문	25,182	41,551	165

우리는 여기서 특히 금년 2.4분기에 있어서 국영

수산 부문 로동자들이 자기의 주대상 어물인 고등어와 멸치를 잡지 못한 정형하에서도 생산을 장성시킨 데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 ❈

이상과 같은 모든 사실은 우리 당 수산 정책과 그의 위력한 생활력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며 우리 나라 수산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수산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당 정책을 철두 철미 관철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하여 준다.

당 수산 정책의 정확한 관철——이는 곧 우리 인민의 증대되는 식료품에 대한 수요를 더 원만히 충족시키며 국가와 인민의 물질적 부를 더욱 풍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당의 총적 임무와 일관되여 있는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수산 부문 일'군들 앞에 제기되고 있는 기본 과업이다.

우리 나라의 수산 부문 일'군들은 이미 지난 기간 이 기본 과업 실천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그러나 이는 아직도 극히 초보적인 성과에 불과한 것이며 우리 수산업은 그 발전의 첫 단계에 들어섰음에 불과하다.

우리의 초보적 실천 행정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오늘 당의 수산 정책 관철에서 표현되고 있는 가장 주요한 편향은 지도 사업에서 어로 부문에만 력량을 집중하고 가공 보조 부문에는 힘을 약하게 돌리고 있으며, 당의 결정 지시를 자체 실정에 근거하여 창조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이 부족하여 높이 앙양 되고 있는 로동자들의 열성에 지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여기서 맥히고 있다.

당 단체들의 사업에서 주요한 결함은 당 수산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당 단체들의 사상 령도가 부족한 것이다.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몇몇 개별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만 지도 사업을 치중하고 있으며 당 정책 전반을 적극 옹호하여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사상 령도는 부족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당 단체와 지도 일'군들은 흔히 몇번의 심해 어업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을 보면 조급성을 나타내고 동요하면서 심해 어업의 유리성을 리해하지 못하는 경향 등과 타협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어로 생산에서 기술 수준을 제고시키는 문제, 수산물 가공 사업 개선 문제, 자원 보호 육성 사업 개선 문제 등에 대하여서는 강력한 당적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현상도 보이고 있다.

관리 부문의 일부 지도 일'군들은 4월 전원 회의 결정을 실천하는 문제는 마치 로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 나서지 않고있다.

한 국면, 한 단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전변들을 전체 부문에 보급 일반화하여 생산을 전면적으로 앙양시키는 사업에서도 부족점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결과 심해, 원해 어업은 아직 철저히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건도 불충분하게 보장되고 있다.

서해 수산 부문에서는 아직도 소극적이고 투기적인 사업 방법이 완전히 퇴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산 조직에서 예견성과 기동성이 부족하여 더 잡을 수 있는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중 소 어업을 차요시하는 경향이 아직 존속되고 있으며 이 부문에서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이 미약하게 취하여지고 있다.

어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인 기술적 지도 사업에도 부족점이 적지 않으며 가공 보조 생산 부문들과 수산 협동 조합들을 조직 경제적으로 공고 발전시키는 사업에서도 당의 요구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또 다른 결함의 하나는 우리 수산 부문에서 아직도 절약을 위한 투쟁이 미약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소의 전반적 사업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는 바로 원가이며 원가 저하를 위한 투쟁은 당 수산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물론, 력사적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실행하고 있는 오늘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수산 부문에서는 증산을 위하여서만 낯을 크게 돌리고 절약을 위한 투쟁을 미약하게 진행하고 있는 결과 설비의 리용률은 아직도 낮으며 자재 랑비가 허용되고 있으며 가공하면 훌륭히 리용할 수 있는 부산물들도 그대로 버리고 있는 등 랑비적 현상이 허다하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모든 결함이 주요하게 지도 일'군들이 수산업에 대한 경제 지식으로 자체를 충분히 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수산 부문의 지도 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이

러한 주요 결함들을 시급히 극복 시정하고 당의 수산 정책을 정확히 관철함으로써 제1차 5 개년 계획 기간에 어획고를 년산 60만 톤 이상 수준으로 올려 놓으라는 당의 호소를 어김 없이 실천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인민 생활 향상과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하여 그가 담당하고 있는 혁명적 사명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 수산업은 이 사명을 원만히 실행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

지난 기간 우리는 당의 정확한 정책과 지도하에서 앞으로 우리 나라 수산업을 가일층 발전시킬 수 있는 근대적 생산 시설들을 건설해 놓았으며 수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적극적이며 부단한 배려가 계속 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함에 무한히 충실하며 선진 기술로 충분히 준비된 애국적 수산 로동자들을 비롯하여 전체 수산 부문 일'군들의 앙양된 애국적 헌신성이 있다.

또한 우리는 수산업 발전에 대하여 거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전체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풍부한 수산 자원과 유리한 자연 조건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수산업 앞에 제기된 혁명적 과제를 훌륭히 실천할 수 있는 귀중하고도 공고한 물질적 기초이다.

문제 해결의 기본 고리는 바로 지도 일'군을 비롯한 전체 수산 일'군들이 우리 나라의 보다 아름다운 미래와 우리 인민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그들이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실천하고 우리 당의 정확한 수산 정책을 어김 없이 관철시키기 위하여 창조적으로 투쟁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 단체 지도 일'군들은 응당 수산업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습득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예비를 발굴해 내면서 《수산 일'군들의 당성은 물'고기를 더욱 많이 잡는데서 표현된다》고 하는 정신으로 이 부문 일'군들을 교양하고 이들에 대한 계급적 교양을 계속 강화하며 우리 당의 정당한 수산 정책을 그들 속에 정확하게 해석 침투시킴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 건설자로서의 자기의 애국적 헌신성과 고상한 당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며 당 수산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동원되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 단체들은 지난 시기 이 부문에 있었던 당 정책에 대한 일부 지도 일'군들의 형식적 태도가 수산업의 더욱 높은 발전을 저애한 기본 요인이였다고 하는 4월 전원 회의 결정을 망각하지 말고 수산 부문에서 당의 결정 지시를 형식적으로 접수하는 경향들을 결코 묵과하지 말며 사업상 락후성과 침체성을 적시에 적발 시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당 단체들은 수산 부문의 로동자들과 협동조합원들이 년중 거의 바다에서 살며 일한다는 특수성에 크게 류의하여 바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현장, 그들의 로동과 휴식, 그들의 실지 생활 속에 당 사업을 심입시키고 당원들의 당 생활을 적극화시키며 그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박 내 당 단체들을 강화하고 선박 내에서 당 정치 문화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매개 기업소들에서 로동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더욱 큰 관심을 돌리고 그들을 위한 주택 조건을 개선하고 각종 편의 시설들을 잘 갖추게 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수산업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기대는 거대하며 이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은 더욱더 성숙되여 가고 있다.

당 단체들은 이 부문내 직맹, 민청을 비롯한 근로 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제고시키며 대중적 증산 경쟁 운동을 옳게 조직 전개함으로써 앙양된 근로자들의 대해를 정복하는 왕성한 투지와 증산 기세를 실지 생산에 돌려 수산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을 관철하고 인민들의 거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출판물의 언어를 더욱 인민 대중에게 접근시키자

김 수 경

최근에 진행된 제2차 전국 기자 대회의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출판물의 언어, 출판물의 문체의 문제에 관하여 많이 언급되였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출판물이 당과 대중을 련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과업 실천에 근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강력한 무기인 만큼, 우선 무엇보다도 인민 대중이 우리의 신문, 잡지, 우리의 단행본, 우리의 결정서와 제강들을 읽어서 능히 리해할 수 있도록 그 언어가 알아 듣기 쉽고 보기 쉬워야 할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김 일성 동지는 《선전 공작은 선전을 위한 선전으로 될 것이 아니라 당면한 정치 경제적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실제 투쟁 과업과 결부되여야 하며 대중 속에 침투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는 군중이 알기 쉬운 글, 군중이 알기 쉬운 말로 선전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군중이 알아 듣기 힘든 술어를 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김 일성 선집, 제1권, 131—132페지) 라고 선전 사업에서의 인민적 언어의 중요성에 관하여 가르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군중의 요구가 무엇이며 군중의 정서와 동향이 어떠하며 군중의 각오 정도가 어떠한가에는 관계 없이 《선전을 위한 선전》에 몰두하면서 군중이야 알아 듣건 말건 군중의 동태야 어떠하건 이에는 주의를 돌리지 못하는 선전 일'군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공산당원으로서 만일 선전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대상을 보아야 할 것이며, 자기의 글, 연설, 담화, 글씨를 누구에게 보일 것이며, 누구에게 들릴 것인가를 잘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남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려고 결심한 것이나 다름 없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쓴 것, 자기가 말한 것을 남들이 보아서 잘 알며, 들어서 잘 아는 줄로 생각하고 있으나 기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활을 쏘려면 과녁을 보아야 하고 경을 읽으려면 들을 사람을 보아야 하는데 글을 쓰고 연설을 하는 데는 독자를 보지 않고 들을 사람을 보지 않아도 좋은가?……선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선전 대상을 조사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함부로 말해 치워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모 택동 선집, 제3권 상, 로동당 출판사, 95—97 페지).

한편, 출판물의 언어, 그중에도 신문의 언어는 인민 대중 사이에 아주 영향력이 크다. 우리의 신문이 당 정책의 선전자며 교양자며 조직자인 만큼 인민 대중은 다투어 신문을 읽으며, 열심히 읽는 사이에 어느듯 신문의 《말투》를 그대로 배워 버린다. 매일, 매 시각 우리의 출판물이 인민 대중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끼치고 있는 영향은 실로 크다. 출판물의 언어에 우리가 심중한 주의를 돌리게 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

조선 인민의 모국어—조선어는 실로 세계의 모든 언어 가운데서 가장 풍부하고 발달된 언어들 중의 하나이며, 강한 견인성으로써 민족적 자주성을 고수하여 온 언어들 중의 하나이다.

리조 봉건 시기에는 량반 통치 계급의 썩어 빠진 사대 문화 사상으로 말미암아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인민의 언어, 인민의 문'자로서 우리의 말과 글은 더욱 풍부히 되고 다듬어졌으며 반 세기에 걸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어와 조선 문'자는 굴복하지 않았으며 견디여 내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무력

침범을 개시하면서 우리 인민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며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를 파괴하고 없애 버리려고 온갖 야수적 행동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 무력 침범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 투쟁의 결과 조선 인민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였으며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언어를 고수하였다.

조선어는 이와 같이 항상 강제적 동화(同化)에 대한 비상한 강의성과 저항성을 보여 줌으로써 정복할 수 없는 조선 인민과 조선어의 자주성을 남김 없이 발휘하여 왔다.

실로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확한 시책으로 말미암아 광범한 인민 대중의 문화 교육 수준은 비상히 향상되였으며 민족 문화와 민족 예술은 급속히 개화 발전되고 있다. 세계 문화의 최고 달성인 맑스—레닌주의의 고전적 저작들이 광범한 인민 대중의 소유물로 되여 그들의 문화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조국의 과학자 문학가들의 우수한 로작들이 인류 문화의 고전적 걸작들과 함께 모국어로써 대량적으로 간행 보급되고 있다. 이 모든 위대한 문화 창조 사업은 근로 인민이 자기의 수중에 정권을 튼튼히 틀어 쥐지 않았더라면, 민족 문화의 형식으로서의 모국어의 중요성에 심심한 배려가 돌려 지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달성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조선어는 오랜 시기에 걸친 조선 사회의 발전과 조선 인민의 집체적 노력에 의하여 장성 발달되여 왔으며, 더우기 조선 인민이 당당한 자기의 국가—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고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등한 대렬에서 자기의 경제, 문화를 교류할 수 있게 되자 조선어의 국제적 지위와 위신은 더욱 높아졌다.

이렇듯 인민 정권 아래 무한한 발전의 길이 열려진 모국어에 대하여 전체 조선 인민은 무한한 애착심과 사랑을 느낀다. 조선어를 더욱 풍부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만들려는 그 사랑의 마음은 바로 우리의 숭고한 애국심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최근 언어 정화 운동이란 일반적 이름 밑에 정확하고 아름다운 조선어, 순결하고 건전한 조선어, 부드럽고 알기 쉬운 조선어를 위한 대중적 어문 운동이 전 민족적 관심 밑에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모국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 한층 조선 인민 사이에 높아졌으며, 공화국 북반부의 눈부신 사회주의 기초 건설 사업과 함께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각 분야에서 인간 교제와 사상 전달의 도구로서의 언어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진 사실에 기인한다.

언어 정화 운동이란, 조선어에 일정한 규범을 확립하고, 언문 일치의 정신에 알맞게 인민 대중이 원하고 인민 대중이 알기 쉬운 아름답고 정확한 언어로 이를 발전시키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의 효과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얼마 전까지 우리의 출판물들에 많이 나타나던 《청초 애취, 모돈, 자돈, 돈사, 제초, 추비, 춘잠, 상전, 상엽》 등의 말은 《풀베기, 어미돼지, 새끼돼지, 돼지우리, 김매기, 덧거름, 봄누에, 뽕밭, 뽕잎》 등으로 바뀌여 지고 있으며, 신문 기사의 표제들도 《가물을 이겨 내자》, 《논밭 김매기를 잘 하며 더 많은 덧거름을 내자》, 《해마다 좋은 사과를 따기 위하여》,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자》 등으로 퍽으나 부드러워졌다. 이러한 현상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의 효과에 만족할 수 없다.

출판물의 언어에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출판물의 언어는 우선 그 문장이 문법적으로 옳게 짜여지고 표현이 정확하여 그 말이 모호하지 않되, 알기 쉽고 대중적이면서도 비속하지 말아야 하며, 서술이 간결하고 생기 있어야 한다. 더욱 철자법, 띄여 쓰기, 문장 부호 등이 규칙에 알맞도록 되여야 할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출판물에는 아직도 그 언어와 문체가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는 례들이 많다.

영향력이 가장 큰 중앙급 신문들에서 그러한 실례들을 찾아 보기로 하자.

우선 초보적 문법적 상식에 위반되는 글이 아직도 적지 않다.

《전후 세 차례나 두만강을 넘나들며 국내의 애국력량과 련계를 맺고 투쟁의 구체적 방법을 지도하고 전망을 토론하는 씨동이의 활동은 우리에게 이 시기의 반일 투쟁이 자연 발생적인 단계를 지나 조직적 지도를 지향하는 첫 움직임을 보게 된다》.

이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서로 맞지 않는다. 마땅히 《씨동이의 활동은 우리에게 이 시기의 반일 투쟁이……조직적 지도를 지향하는 첫 움직임임을 보여 준다》로 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의 글도 문장 조직이 바로 되지 않았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한 식민지 노예의 쓰라린 고통을 겪고 다시는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으며 한 가정 속에서의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념원하는 조선 인민의 세기적 숙망은 바로 미제의 침략 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밑줄을 친 부분은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으며 한 가정 속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을 념원하는》으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록펠러의 표현대로 말하면 오늘날 미국 침략 계층은 오직 <모든 말들을 단일한 미국의 마구에> 메울 것을 획책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는 동사 《메우다》와 관계되는 직접 보어와 간접 보어를 뒤바꿔 놓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되여 있다. 《<모든 말들에다 단일한 미국의 마구를> 메울 것을》으로 고쳐야만 뜻이 통하게 된다.

《이 곳 조합원들은 미리부터 상묘 재배에 대한 기술을 전습하며 상묘전 설치에 필요한 일체 농구들과 비료 및 뽕씨를 마련하여 놓았다가 락종의 적기를 택하여 지난 5월 15일 제2 작업반원들에 의하여 300 평의 포전에 락종을 끝마치였는 바 지금 잘 립종된 포전의 애벌 김매기를 진행하고 있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뽕씨》, 《마련하다》, 《애벌 김매기》 등 알기 쉬운 말이 씌였는가 하면, 《상묘》, 《상묘전》, 《락종》, 《적기》, 《립종》, 《포전》 등 좀 부드러운 말로 고쳤으면 하는 어휘들이 있는 이외에, 《제2 작업반원들에 의하여》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옳게 되지 않았다. 《…에 의하여》라는 표현 다음에는 《…되다》 등과 같은 피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와야 한다. 이 문장에서는 전부 능동으로 되여 있기 때문에 《제2 작업반원들에게 분공을 주어》 또는 《과업을 주어》 등으로라도 고쳐야만 정확한 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끔 출판물들에 독자들에게 리해되거나 읽히지 않을 것을 결심한 것 같은 수수께끼 문제나 다름 없는 글들과 부닥치게 된다.

《그것은 현존 수채와 하륙기의 보수를 비롯하여 수채와 할복대의 합리적 배치와 수절대를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원료의 선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륙양장의 상옥 준비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그 기사 우에 《적극적 어로 대책》이라는 표제라도 없었던들 도대체 어떤 분야에 관한 이야기인지도 알기 힘들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불친절하게 되여 있다.

《이 성형기는 기계의 심장부인 내외 류출형 링그에 토판기 체대의 폐설물을 조밀하게 깎아 조립하였으며 기계 상층 롤라로부터 흘러 들어 가는 원료를 압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글을 보고 새로 창안된 기구가 어떠한 구조로 되여 있는가를 리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수고다. 대다수의 독자는 《여하턴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로구나》——이것으로 만족할 뿐이다. 결국 이 기구에 관한 장황한 설명은 과녁 없이 쏜 활이나 다름 없다.

《이 공장의 생사는 락조가 잘 되여 있지 않으며 또 락조 마디를 지내 약한 실로써 매기 때문에 하침할 때와 해사할 때 그것이 빈번히 끊어진다. 따라서 해사하기가 매우 곤난할 뿐만 아니라……파사가 생기기까지 한다.》

이 글을 읽고서는 어느 제사 공장의 제품에 대한 비판인 것만 추측할 수 있을 뿐, 마치 생소한 외국 글이라도 읽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다음과 같은 소제목들도 인민 대중과는 인연이 없다.

《모의 도장을 방지하자.》 (모가 헛되게 키만 자라는 것을 방지하자는 뜻.)

《결과 부위를 확장하자.》 (과수 나무가지에 열매가 맺는 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뜻.)

《격년 결과를 극복하자》 (한 해 건너 열매가 맺는 일을 없애도록 하자는 뜻.)

뿐만 아니라 조선어답지 않은 표현들이 독자들의 이마를 찌프리게 한다.

《낡은 고집을 타승하고》, 《근심을 끝게 하였다》 《높은 알곡 증산을 보장하자》, 《수목을 식수할 준비를 갖추고》, 《어류를 양어하는 사업》, 《그물을 편망하였다》, 《각종 어족들을 많이 어획하였으며》, 《겨울에 월동하여》, 《급여하여 주었다》, 《실물적 교양 사업》 등등.

더구나 《역곤충 작업을 하고 있는 국영 함흥 과수원 장흥 브리가다원들》이란 사진 설명은 아무리 사진과 설명을 번갈아 보아도 무슨 작업인지 알 길이 없다.

한'자를 보지 않고서는 그 뜻을 알아 내기 힘든 어휘들이 출판물들에 아직도 너무나 많다.

《치어, 친어, 종어, 호소, 유묘, 굴취, 립수, 적

지, 예비지, 착생, 적과, 복토, 상토, 립'고병, 수엽량, 상목, 곡관》 등등의 어휘는 《稚魚, 親魚, 種魚, 湖沼, 幼苗, 掘取, 粒數, 適地, 豫備枝, 着生, 摘果, 覆土, 床土, 立枯病, 收葉量, 桑木, 曲管》 등등의 한'자와 결부시킬 수 있는 독자만이 겨우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말을 쓰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자기의 글을 읽히고자 하는 것일가?

우리 당 제3차 대회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출판물을 《인민 대중이 읽고 리해할 수 있는 통속적인 출판물로 개변시키기》 위하여는 《문체의 간결, 정확 명료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우리의 출판물에는 아직도 장황하게 글을 늘어놓는 버릇이 가끔 있다.

《회령군의 어떤 교원처럼 교원 자신이 과학을 믿지 않고 당 정책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가 가르치는 학생이 과학적 지식으로, 당 정책의 적극적 실천자로 교양되리라고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이 글은 복잡한 생각을 문장 하나에 억지로 엮어 넣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 문장 아닌 문장으로 되여 버렸다. 차라리 《회령군의 어떤 교원은 그 자신이 과학을 믿지 않고 당 정책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교원이 가르치는 학생이 과학적 지식으로, 당 정책의 적극적 실천자로 교양되리라고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고쳐 놓는 것이 훨씬 알기 쉽지 않겠는가?

우리는 가끔 다음과 같은 식의 문장도 보게 된다.

《총회에서는 전면적으로 앙양된 첨예한 당적 비판과 자기 비판의 분위기 속에서 당 단체가 집행한 사업 가운데서 나타난 온갖 결함, 부족점, 과오들이 폭로되였으며, 당과 정부 및 당 단체 자체의 결정 지시들을 실생활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또한 당원들과 선동원들을 통하여 선전 선동 및 대중 정치 사업을 진행한 선전 일'군들을 당 단체가 지도하는 분야에서 발로시킨 온갖 현상들이 심각히 분석 비판되였다.》

우리는 또한 출판물에 나타난 번역문에 대하여 한 마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 국가 특히 쏘련의 우수한 경험들을 인민 대중에게 소개하는 글 가운데서 우리는 가끔 이 글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발표되였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된다.

어떤 그리 길지 않은 번역문 가운데서 《아르쩰리》, 《당원 꼴렉찌브》, 《선동원 꼴렉찌브》, 《중요한 우챠쓰또끄》, 《우락 페르마》, 《쩬뜨네르》 등 우리 말로 넉넉히 옮겨 놓을 수 있는 단어, 설명을 하여 주어야 할 단어들이 그대로 자꾸 나온다. 이러한 소개가 우리의 농민들에게 얼마만한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더우기 조선말답지 않은 표현이 그대로 로출되는 현상이 우리를 참을 수 없게 만든다.

《이 품종은 위험한 해충에 견고하다》 (전형적인 《번역투》다!).

《쏘련 축산가들은 30종 이상의 새로운 품종의 말, 젖소, 면양, 돼지를 안출하였다.》 (돼지를 《안출》하다니!)

《아스까니야 양은 세모 생산에서 세계 기록을 내였다. 그는 29.4 낄로그람의 전모량을 내였는데…》 (동물에 대하여 《그》 라는 대명사를 썼다!).

다음과 같은 문장은 대체로 그 뜻은 짐작할 수 있다.

《당 집행 위원회는 당적 영향을 주어 꼴호즈의 중요한 우챠쓰또끄들을 장악하기 위하여 첫째로 매개 당원들의 특성과 그들의 능력을 고려하고 공산 당원들을 옳바르게 배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산 당원들의 옳바른 배치는 사태를 잘 알고 농업 발전 문제를 취급하며 모든 중요한 우챠쓰또끄를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 글은 《어》, 《고》, 《며》 등의 토를 조선말의 습관대로 잘 쓰지 못하였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마치 핀트 안 맞는 사진을 볼 때와 같은 느낌을 준다.

✻ ✻

우리의 출판물의 언어와 문체 우에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결함들은 대체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대한 경시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좀더 깊은 사상상, 관점상의 문제와 관련되여 있으며 력사적 사정과도 관련되여 있다.

《밑거름》 보다는 《기비(基肥)》, 《오디》보다는《상실(桑實)》, 《모내기》보다는 《이앙(移秧)》, 《늦벼씨》 보다는 《만생종 벼종자(晩生種 벼種子)》, 《첫잠》 보다는 《초숙(初宿)》, 《묵은 땅》 보다는 《휴경지(休耕地)》, 《돛배》 보다는 《범선(帆船)》 등등을 더 즐겨 쓰는 심리가 리조 봉건 시대에 한'자는 《진서》 (진짜 글), 우리 글은 《암클》이라고 부르던 그 심리, 그 사상과 관련이 없겠는가? 여기에는 확실히 봉건 사상 잔재와 관련된 일종의 인습이 지배하고 있다.

《보리》 보다는 《대맥(大麥)》, 《밀》 보다는 《소맥(小麥)》, 《모판》 보다는 《묘대(苗代)》, 《삼 모종내기》 보다는 《묘삼식부(苗삼植付)》, 《비신》 보다는 우화(雨靴)》, 《로동화》 보다는 《지하족(地下足)》, 《짐꾸리기》 보다는 《하조(荷造)》 등등을 더 즐겨 쓰는 현상이 일제가 남기고 간 사상 잔재의 영향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혁명적 군중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 관료주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말과 글의 분야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우리의 혁명이 인민 대중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당이 인민 대중을 위하여 일하는 만큼, 당의 정책, 당의 결정을 인민 대중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여 주는 것이 우리 출판물의 첫째 가는 과업이다. 인민 대중이 원하지 않으며 인민 대중이 알아 들을 수 없는 어려운 한'자어, 어색한 일본말투를 함부로 쓰고 있다면, 그것은 당의 로선, 당의 결정이 인민 대중에게 침투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행동과 같지 않겠는가?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내가 오늘 여러 동무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대중 속에 들어 가서 대중을 찾아 가서 대중이 알아 들을 말을 하며 대중이 원하는 글을 쓰며 대중의 요구를 표현하며 해결하며 대중과 같은 의복을 입으며 대중에게서 배우며 또한 대중을 배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일성 선집, 제1권, 120—121 페지). 그렇기 때문에 모 택동 동지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들은 《인민 대중에게서 언어를 배워야 한다. 인민의 어휘는 매우 풍부한 것이며, 생기 발랄한 것이며, 실지 생활을 표현하는 것이》 (모 택동 선집, 제3권 상, 98페지)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또 한 가지 그릇된 견해가 있다. 제 나라말은 세살 때 어머니 품 속에서부터 배운 말인데 다시 더 무엇을 배울 것이 있겠는가? 밤낮 말만 배우다 나면 대체 일은 언제 하라는 말인가——하는 견해가 아직도 우리의 일부 일'군들의 머리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자기의 모국어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무관심이며, 모국어에 대한 자신의 무식을 은폐하려는 교묘한 변명이다. 모 택동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현재 선전 사업을 하는 우리의 수 많은 동지들은 언어를 배우지 않고 있다… 왜 언어를 배워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큰 힘을 들여서 배워야 하는가? 왜냐 하면 그것은 언어란 것이 아무렇게나 하여서도 잘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써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 택동 선집, 제3권 상, 97—98페지).

조선어가 봉건 시기에는 량반 통치 계급으로부터 극도로 천대 받았고, 일제 강점 시기에는 그 교육이 전연 금지되여 있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일'군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과거에 조선어를 계통적, 과학적으로 학습한 일이 없었다. 우리가 조선말을 능히 한다고 해서 모두가 정확한 글을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일'군들, 지어는 선전 사업에 종사하는 일'군들까지도 심히 부정확한 글을 많이 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과거에 조선어를 공부하지 못했다면 오늘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일'군들이 과연 조선어를 학습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리고 있는가? 따라서 새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가정에서의 모국어 교육도 충분치 못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보통 교육 부문과 전문, 대학 교육에서 모국어 교육을 위한 힘과 시간이 더 많이 돌려져야 할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출판 선전 일'군들, 작가, 과학자들은 사상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며 아름답고 대중에게 친근한 말로써 글을 쓰기 위하여 응당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모국어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 막으며 아름다운 그 자질을 더럽히려는 온갖 경향, 온갖 현상과 우리는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모국어의 순결성을 위한 투쟁이 우리의 새로운 민족 문화 창조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의의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 사업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아야 할 것은 누구보다도 말과 글에서 모범을 보이는 작가, 기자, 번역가들이다. 언어에서의 규범이 주로 문학 작품,

신문 기사, 번역 문학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전파되는 만큼 그들이 모국어의 발전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모국어의 순결성을 위하여 엠. 고리끼가 바친 완강한 투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일찌기 고리끼는 작가들에게 《언어에 의한 묘사 작업을 위하여 가장 생기 있고 적절하고 간결하고 명석한 단어들을 선택할 줄 알 것》 (엠. 고리끼, 문학 평론집, 모쓰크바, 1937년, 504 페지)을 요구하였으며, 문학의 제1차적 요소인 언어에 대한 지식 없이는 진정한 예술가로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부 작품들에는 조선말답지 않은 표현들이 아직도 허용되여 독자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 작가들이 더 많은 주의를 돌려 줄 것을 요망하지 않을 수 없다.

모국어의 순결성을 위하여는 단지 직접 글을 쓰는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출판물 편집 일'군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편집 일'군들은 독자들의 편에 서서, 인민 대중의 편에 서서 좋은 글을 쓰도록 필자들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모국어 연구의 분야에서 언어학자들이 져야 할 커다란 책임을 강조 아니 할 수 없다. 언어에서의 규범이란 무엇인가? 표준어와 방언과의 관계, 서사어와 회화어와의 관계, 문학의 언어와 인민의 언어와의 관계 등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하여야 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모국어의 순결성과 발전을 위하여 취한 각종 방책들에서 옳은 경험과 교훈들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체 인민에게 실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전, 좋은 문법책을 하루 속히 편찬하는 일이다. 모국어의 규범화를 위하여 해방 전후를 통하여 조선의 언어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이여 투쟁하여 온 것은 사실이며, 이 분야에서 성과도 적지 않으나 아직도 인민 대중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멀리 미치지 못한다. 바야흐로 전개되는 언어 정화 운동은 조선 어학 분야에서의 리론적 및 실천적 작업들을 촉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판물의 언어를 인민 대중에게 접근시키기 위한 과업을 실천하는 마당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학술 용어의 문제, 전문 기술 용어의 문제다. 아무리 출판 일'군, 보도 일'군들이 대중이 원하고 대중이 알아 들을 말을 쓰려 해도 인민 경제의 각 분야에서, 과학 기술의 각 분야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제식 말투, 필요 이상의 외래어들을 완강하게 고집할 때, 대체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려운 한'자어나 유식한 외래어가 아니면 자기의 해박한 지식을 자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알기 쉬운 인민적 언어로서는 도저히 학술 용어를 만들 수 없거나 또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부 독선적 《과학자》들의 그릇된 생각을 철저히 때려 부셔야 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과학과 기술을 전체 인민의 소유물로 만들고 있는 오늘날에 와서는 학술 용어가 어떤 폐쇄된 전문 《학자》 집단의 독점물로 될 수 없으며, 광범한 인민 대중을 위하여, 후손 만대를 위하여 과학의 문, 과학의 언어를 넓게 열어 놓아야 한다. 학술 용어 사정 사업에 종사하는 과학 일'군들은 바로 이 관점으로부터 자기들의 사업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조선 인민 고유의 어휘들도 능히 과학의 언어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옳게 인식하여 파묻힌 것을 찾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는 섬세한 작업이 반드시 진행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미 인민적 기초를 튼튼히 가진 한'자어나 외래어까지도 배격하려는 것은 아니다. 한'자나 외국 원어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거나, 또는 그것을 보더라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술어를 배격하는 것이며, 이미 인민 사이에 간직되여 있는 말이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하여 새 말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리고 한'자어나 외래어에만 매달리려는 그러한 경향을 배격하는 것이다.

인민 경제의 각 분야에서 특히 공업, 운수 분야에서 사용되는 술어 가운데 일본식 한'자어, 무질서한 외래어들이 적지 않다. 그것은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인민 경제 건설이 실로 눈부신 속도로 전개되였으며, 바로 그 속도가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추어 그 곳에서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작업, 직종 이름들을 제때에 조선말답게 생각해 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것은 리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농업이나 수산업 분야에서까지 선조 대대로써 내려온 농업 용어,

어업 용어들이 조선말 가운데 훌륭히 있는 경우에도 그런 것들은 일체 돌보지 않고 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를 써야만 할 까닭은 어데 있는가?

시기는 아직도 늦지 않다. 우리의 각 성, 기업소, 직장들에서 그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어휘들이 과연 조선어의 아름다운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관점에서 하나 하나 신중히 재검토하여 볼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기계, 기대, 새로운 작업, 새로운 조직, 새로운 제품 등 일체 새로운 것들이 인민 대중 속에서 창조되거나 외국에서 들어 올 때, 될 수 있는 한 전문 연구 기관을 거쳐 그것들에 알맞게 말을 찾아 처음부터 정확한 이름이 널리 쓰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모국어를 더욱 부드럽고 아름답게 발전시키며, 출판물의 언어를 인민 대중에게 더욱 접근시키기 위한 사업은 결코 일시적 사업으로, 일부 사람들의 사업으로만 간주될 수는 없다. 바로 이 사업이 조국의 위대한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전체 인민의 공동의 과업이며 중요한 정치적 과업이라는 옳은 인식으로부터 출발할 때 비로소 빛나는 성과는 약속될 것이며, 그러한 성과가 달성될 때 우리 세대가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분야에서도 훌륭한 일을 해 놓은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 나라 민족 문학 예술 고전 계승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신 구 현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창설되고 강화됨에 따라서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민족 문화가 개화되고 있으며 민족 문학 예술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빛나는 성과들이 확실히 오늘의 력사적 현실, 오늘의 물질적 생활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것이 오랜 력사적 시기를 통하여 축적되여 온 민족 유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레닌의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프로레타리아 문화는 우연히 아지 못할 곳에서 뛰여 나온 것도 아니요, 프로레타리아 문화에 대하여 권위라고 자처하는 인간의 허구도 아니다.……프로레타리아 문화는 인류가 자본주의 사회, 지주 사회, 관료 사회의 억압하에 창조한 바 지식의 축적의 합법적인 발전이다》(전집, 31권, 262페지).

이렇듯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문화를 물론하고 그것은 일정한 사상 자료, 일정한 표현 형식과 수법들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과거로부터 물려 받은 것으로 이것을 기초로 하여 해당 시기의 문화, 특히는 문학 예술은 출발하고 개화 발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문학 예술의 고상하고 혁명적인 전통과 유산의 계승 문제는 단순한 력사적 사실로 관찰하고 회상하는 데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민족 문학 예술 발전과 관련되는 가장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문제이다.

때문에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과거의 훌륭한 유산 연구와 그의 정당한 비판 계승을 항상 강조하였으며 그 길을 천명하였다. 특히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과거의 우리 나라 과학 문화의 우수한 유산을 계승하며 일체 과학 연구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는 사업이 곧 장래의 찬란하고 건전한 과학 문화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교시하였다.

과거의 우리 나라 문학 예술 유산을 연구하고 계승함에 있어서 류의하여야 할 것은 지나간 유산, 지나간 전통이라 하여 그것을 무조건하고 계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력사적으로 매개 인민들의 생활과 그의 투쟁은 문화 내지 문학 예술 령역에서 일정한 민족적 전통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 전통은 그 내용에 대하여 말한다면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계급적 성격을 띤다. 즉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형성된 인민적, 혁명적 전통과 유산이 있으며, 동시에 착취 계급이 부식하여 놓은 반인민적, 반동적 전통과 유산이 있는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어떠한 현대 민족에게든지 두 민족이 있다. … 어떠한 민족 문화에든지 두 개의 민족 문화가 있다》(전집, 20권, 16페지).

문학 예술도 포함하여 조선 민족 문화에 대하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치여 압박자들에 의하여 헤아릴 수 없는 억압과 박해를 당하던 조선 인민들의 생활 조건과 환경은 진리에 대한 사상, 인민에 대한 존경,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다른 한편 이를 저바린 억압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반영한 민주주의적—사회주의적 민족 문화를 형성케 하였으며, 이러한 유산을 출발점으로 해방후 우리 민족 문화는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찬란한 개화 발전을 보게 되였다.

우리 나라 문학 예술에는 그 유산에 있어 이러한 고상한 전통과 함께 장기간에 걸치여 착취자들에 의하여 부식된 반동적 반인민적인 것이 주요한 형

모로서 존재하였다. 이것이 오늘 남반부에서 미제 침략자들과 리 승만 역도들의 비호하에 재생되고 있으며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리 승만 도당들의 매국 매족 정책을 합리화하는 데 리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매개 민족에는 두 개의 문화, 즉 반동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이 있다. 그들은 어느 것이나 일정한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일정한 계급의 리해 관계를 위하여 복무하였던 것이며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는 언제나 문학 예술 령역에서 과거의 전통과 유산이 반드시 근로 인민들의 리해 관계와 합치되여야 한다는 것, 그들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장래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전통과 유산들을 보존하고 그를 비판적으로 계승할 것을 요구한다.

문학 예술을 포함한 과거의 문화 유산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 가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은 어느 민족 문화에서나 그의 민주주의적이요, 사회주의적인 요소만을 보존하며 그것을 오직 또 무조건하고 매개 민족의 부르죠아 문화에, 부르죠아 민족주의에 대치하여 보존한다》(전집, 20권, 8페지).

즉 우리는 과거 전통과 유산 가운데서 진보적인 것,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영광스럽고 찬란한 장래를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 다시 말하여 민족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 인민들의 리해 관계와 관련되는 것을 보존한다. 오직 이러한 것만이 해당 민족의 문화 내지 문학 예술의 륭성 발전은 물론 세계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 인민의 리해 관계와 관련되는 유산과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업이 제기되는가? 이에 대하여 레닌은 론문 《보이꼬트를 반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들은 우에서, 우리 과업의 하나는 이 전통 일반을 잘 보호하며 그것을 배양하며 자유주의적 (또는 기회주의적) 기생충들을 거기에서 청결해 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였다》(전집, 조선 문판, 13권, 28페지).

이러한 과업은 낡은 것을 모방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혁명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적으로는 새로운 문학 예술 창조를 위한 투쟁과 관련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인민 대중이 자기 력사, 자기 문학 예술을 창조함에 있어서 그들은 과거의 민주주의적, 혁명적 전통과 유산에 이끌리며 또한 이 전통과 유산은 그들을 힘차게 이끌어 낸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 대중의 혁명적 기세가 앙양되고 지배 계급을 반대하는 인민 대중들의 계급 투쟁이 날카로워지면 질 수록 문학 예술 령역에서 전통을 중심으로 가렬한 투쟁이 전개된다. 반동 계급은 우선 인민들의 의식으로부터 과거의 고상한 전통과 유산들에 대한 애착을 말살하며 외곡 중상하여 나선다. 이러한 반동 계급의 공세에 대치하여 력사 발전 및 민족 문화 내지 문학, 예술 발전의 백년 대계를 위하여 혁명 계급은 필연적으로 이미 레닌이 정당하게 지적한 바 혁명적 과업을 제기하고 그 실천에로 용감히 돌진하는 것이다. 즉 혁명 계급은 문학, 예술의 고상한 전통과 유산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인민 대중을 애국주의와 락관주의로 교양하는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서 이 유산들을 리용하며 낡은 사회 세력을 반대하는 직접적이며 줄기찬 투쟁의 무기로 인민 대중에게 소개한다.

혁명 계급은 선구자적인 혁명적 유산이 어떠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어떠한 계급의 리해 관계를 옹호하고 있는가 등등 그의 본질과 의의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것을 주장하며 그의 사회 력사적 제한성을 지적하면서도 그의 혁명적 의의를 강조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모범은 《세계 문학의 제1급의 작품을 제공한 천재적 예술가》인 똘쓰또이를 비롯하여 게르쩬, 체르니쉡스끼, 벨린스끼, 네크라쏘브, 등등 탁월한 사상가와 예술가들의 혁명적 유산들에 대한 레닌의 론문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똘쓰또이에 관한 일련의 론문들에서 레닌은 똘쓰또이를,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 량심의 사상가요, 예술가로 본다든가 또는 현실을 모르는 몽상적인 개혁자이며 예술가로 인정하는 관념론적 견해들을 배격하고 그를 1861년 농노제 폐지 후 1905년 제1차 혁명까지의 로씨야 인민의 혁명 투쟁의 력사적 현실, 즉 그들의 강한 점과 약한 점을 아주 명확하게 반영한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로 평가하였으며 로씨야 혁명의 거울로 간주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똘쓰또이의 견해의 모순에 대한 평가도 현대 로동 운동 및 현대 사회주의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물론 이러한 평가도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자본주

의와 대중의 빈궁화 및 토지 상실에 대한 항의, 가부장적 로씨야 농촌에 의하여 일어 나지 않을 수 없는 항의의 견지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안된다》(전집, 15권, 183페지).

레닌은 정당하게도 똘쓰또이를 그 시대 현실의 반영으로 보며 그를 본질적으로 위대한 인민의 예술가로 평가하고 있다.

《겔쩬의 추억》이란 론문에서도 겔쩬이 1848년 혁명의 실패 후 동요한 사실을 과장하면서 그의 혁명적 의의를 과소 평가하려는 자유주의자들의 중상과 외곡을 레닌은 정당하게 폭로하였다.

레닌은 이상과 같이 과거의 혁명적 유산에 대한 과업 실천의 모범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비평에 있어서 일찌기 사회주의 사실주의 방법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

과거 문학 예술 유산 계승에 대한 이상과 같은 레닌적 원칙에 립각함으로써 만 오늘의 쏘베트 문학 예술은 찬란하게 개화될 수 있었으며 이는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문학 예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모 택동 동지는 《신 민주주의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국의 장기간의 봉건 사회에서는 찬란한 고대 문화를 창조하여 놓았다. 고대 문화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며 그의 봉건주의적 찌끼기 (조백)를 청산하고 그 민주주의적 알맹이 (정화)를 흡수하는 것, 이것이 곧 민족의 신 문화를 발전시키고 자기의 자신심을 제고시키는 필수 조건인바, 절대로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덮어 놓고 흡수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반드시 옛날 봉건 통치 계급의 일체 부패한 물건들과 옛날의 우수한 인민 문화, 즉 많거나 적거나 민주성과 혁명성을 띤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 우리는 중국 력사를 존중한다.… 그러나 이 존중이라는 것은 력사에 대하여 일정한 과학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력사의 변증법적 발전을 존중하는 것이지, 송고 비금(예'것은 다 좋고 오늘 것은 다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민 대중과 청년 학생들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그들을 끌어서 뒤를 돌아다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 보게 하는 것이다》(선집, 제2권, 700—701페지, 1952년, 북경).

* *

우리 나라 민족 문학 예술 발전을 위하여 조선 로동당은 과거의 유산 계승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해방후 민족 문화의 개화 발전은 조선 로동당의 옳바른 문예 로선과 관련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1946년 5월 24일 각 도 인민 위원회, 정당, 사회 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 대회에서 진술한 연설에서 우리 나라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로선을 천명하였다.

그 연설에서 김 일성 동지는 문화인, 예술가들 중 두 가지 그릇된 편향, 즉 하나는 순 조선 것만을 요구하며 외국 것은 다 나쁘다고 하는 배타적이며 민족주의적이며 우리 문학 예술의 락후성을 그냥 보수하자는 경향,' 다른 하나는 조선 것은 다 나쁘고 서양 것만 다 좋다는 허무주의적이며 꼬스모뽈리찌즘적이며 우리 문화 예술의 우수한 점을 부인하는 경향과 사상 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 문화인들은 자기의 고유한 문화 중의 우수한 점을 발양하고 약한 점을 극복하며 다른 선진 국가들의 문화 중에서 우수한 것들을 섭취하여 우리의 민족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선집, 1권, 103페지).

우리 문학 예술의 우수한 점을 발양하고 약한 점을 극복하는 사업 및 다른 선진 국가들의 문화 중에서 우수한 것들을 섭취하는 사업은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매개 민족들의 예술은 자기 민족의 력사, 문화적 및 민족적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랑스러운 형상이며 문학 예술의 전 민족적인 보물로 되는 특이한 묘사 수'법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매개 민족 문학 예술은 자기의 질적 독자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오직 그 민족에만 속하는 것이며 다른 민족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매개 민족 예술은 이러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하드라도 모든 민족의 인민들에게 있어서는 억압자들을 반대하며 사회의 진보를 지향하는 그들의 투쟁 목적이 공통하기 때문에 매개 인민들의 예술의 사상 내용은 국제적이며 전 인류적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 예술을 멸시하는 배타적 경향도, 자기 나라 예술을 경히 여기는 옳지 못한 사상도 민족 문학 예술 발전을 위한 백년 대계를 저바리는 것으로 된다. 문제는 문학 예술 발전을 위하여 부족점을 극복하고 우리 문학 예술로 하여금 민족적 독자성, 즉 민족적 성격과 민족적 향기가 원만히 발현하도록 우리 유산을 연구하는 데 있으며 이와 함께 선진 국가들의 문학 예술의 경험을 허심하게 섭취하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문학 예술 유산의 계승과 관련되는 리론적이며 실천적인 문제들은 1951년 6월 30일 종견 작가, 예술인들에게 주신 김 일성 동지의 담화에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천명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인민 문학, 그 중에도 특히 민요, 구전 문학 등을 연구하여 광범히 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요라고 해서 죄다 좋은 것도 아니며 구전 문학이라고 해서 죄다 리용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예술가들은 과거의 민요 그대로를 존속함으로써만 민족 문화의 계승으로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민족 문화 발전의 기본 로선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민요, 음악, 무용 등 각 부면에서 우리 민족이 고유하고 있는 우수한 특성을 보전함과 아울러 새로운 생활이 요청하는 새로운 리즘, 새로운 선률, 새로운 률동을 창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이 가지고 있는 예술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비과학적이며 저속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고상한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작가, 예술가들은 인민이 가지고 있는 허다한 예술 형식에 적당한 새로운 내용을 담아 리용할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선집, 3권, 246—247페지).

이상 담화 가운데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유산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구유하고 있는 우수한 특성들을 리용하여 새로운 생활이 요청하는 새로운 스찔, 새로운 형식을 창조함과 동시에 인민이 가지고 있는 허다한 민족적 예술 형식에 적당한 새로운 내용을 담아 리용하는 문제이다.

어느 민족 문학 예술이든지 그것은 오랜 력사적인 근원을 가진 민족적 형식을 통하여 발전되여 왔다. 이 형식들은 오랜 력사적 생활을 통하여 인민들이 쌓아 올린 경험으로 문학, 회화, 조각, 음악, 건축 등 각종 예술 창작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이들 경험은 당해 인민들에게 특유한 예술적 형상화와 묘사 수'법 및 수단에서 명백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는 7—9 세기 신라의 고전 예술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있고, 12—14 세기 고려 예술 및 17—19 세기 조선 예술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있다. 섬세하고도 밝은 선들의 조화미로 알려여진 신라 금관은 신라 예술의 정화라고 한다. 그러나 금관에서 볼 수 있는 고상한 예술성은 서정시에서도, 조각에서도, 건축에서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전설로 길이 찬양하여 오는 솔거의 회화 《로송》도 그의 탁월한 예술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균형미와 함께 스찔의 다양성으로 알려진 고려자기를 고려 예술의 정화라고 한다. 그러나 고려자기에서 볼 수 있는 고상한 예술성은 그 시기의 서정시들에서, 벽화들에서, 조각 및 건축들에서도 볼 수 있다.

민족적 형식은 그 내용과 긴밀한 련계 속에 있으며 그 내용에 의하여 제약된다. 따라서 예술의 형식은 항상 내용에 이끌리는 것으로, 우선 예술가들에 의하여 인식된 해당 인민들의 생활과 풍습의 특성 속에 원천을 두고 있으며 예술 창작의 력사적 발전 과정에서 형성되고 련마되여 간다. 예술 형식은 창조 과정에서 그의 사상—예술적 구상에 복종되며 기본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데 복무한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 형식의 작용은 크다. 그러나 예술 형식이 생활의 반영인 그 내용에 순응하지 못하고 장애물로 될 때, 그는 긍정적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내용에 적합하게 자기 형모를 바꾸든가 교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에 적합한 예술 형식은 직접적인 예술가들에 의하여 급작히 창조되는 것은 아니다. 선행한 유산들에서 우수한 특성들, 우수한 표현 재료와 수'법들을 일체 보유하면서 새로운 생활에 적합하게 개변시켜 나간다.

4구체의 단순한 형식으로부터 8구체, 10구체 등 다양한 형식으로 분화 발전된 7—9 세기의 서정시, 력사적 생활과 그 요구에 순응하여 다채롭게 꽃핀 12—14 세기의 공예 예술, 그 밖에 한림별곡체의 가사체에로의 지양, 평시조로부터 사설 시조의 파생 등등의 력사적 사실은 새로운 형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세련되여 가는 가를 똑똑히 말하여 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변하였으며 그들의 처지와 생활 풍습과 문화상 요구도 변하였다. 우리 문학 예술은 이러한 전변된 민족 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박을 때에라야만 자기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있다. 인민 생활의 본질적인 측면을 반영함이 없이 예술은 예술로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생활적

요구에 적응되는 새로운 예술 형식과 스찔 창조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풍부하고 다양한 유산들을 가지고 있다. 음악 령역에서 본다면 풍부한 원천으로 민요와 창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 악기를 가지고 있다. 조선 인민들은 력사적으로 다양한 노래로서 가지가지 사회 생활과 자연 현상에 향응하였다. 그 노래, 그 반주가 가지는 음악적 인또나찌야 노래를 부름에 있어서 이루어 놓은 독특한 다양한 성악적 기교와 표현 수법들은 새로운 생활에 수응하는 새로운 리즘, 새로운 선률, 새로운 률동 창조에 풍부한 원천으로 된다.

다음으로 인민이 가지고 있는 허다한 예술 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담아 리용하는 문제다. 사회주의 사실주의는 문학 예술 형식에 대하여 다양성을 요구한다. 광범한 인민 대중들의 생활과 기호는 다종 다양하다. 이러한 현실과 인민 대중들의 생활적 요구에 비추어 단순히 한가지 형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문학 예술은 아주 풍부한 유산들을 가지고 있다. 문학에서는 이미 국제적 성격을 띤 소설 형식(장편, 중편, 단편)은 그만 두고라도 시가 형식에서 민요를 비롯하여 시조, 가사 등의 민족적인 다양한 예술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연극에 있어서는 사상—예술적으로 고상한 창극, 가면극, 인형극 등 독특한 민족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

건축 예술에 있어서도 궁전식(宮殿式), 루각식(樓閣式) 건축 양식을 비롯하여 생활 풍습, 기후 조건 및 재료 등등의 차이에 따르는 각 지방의 부동한 주택 양식 등등 다양한 형식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술 형식은 이미 오랜 력사적 시기를 통하여 형성되고 세련되여 가지고 대대손손 상전되여 온 것들이다. 보통 이러한 형식들을 낡은 것으로 락인찍고 소홀히 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들이야 말로 민족적 성격과 풍치가 깃드리고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민족 예술 발전을 위하여 연구하여야 할 귀중한 재보로 된다.

이상과 같이 과거 문학 예술의 다종 다양한 예술 형식은 새로운 제도와 사회주의 사실주의 기치 밑에서 재생의 길이 열리였으며 오늘 우리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 예술은 이 유산으로 하여 더욱 다채롭게 되였다.

최근 문학 예술 분야에서 고전 예술 작품들의 발굴 보급 및 연구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미 많은 고전 작품이 출판되였으며 또 무대에로, 영화에로 진출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 작가들과 예술인들의 훌륭한 학교로 되고 있다.

고전 예술들이 이와 같이 전체 인민들의 고귀한 재산으로 그들로부터 한결같이 열렬한 사랑을 받은 적은 일찌기 우리 력사에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고귀한 유산들에 대한 옳지 못한 인식과 태도가 우리들 가운데 부분적이나마 없지 않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남반부에서 미제 략탈자들과 리 승만 도배들이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민족 문화를 말살시키려 하며 우리 문화의 고귀한 유산들을 외곡 중상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묵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 문학 예술 유산을 계승하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가들의 유일한 과학적 방법인 변증법적 유물론의 철저한 체득을 위하여 맑스—레닌주의를 심오하게 연구하는 사업이다. 왜냐 하면,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방법을 소유함이 없이는 유산 계승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창조 사업에 잘 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맑스—레닌주의를 연구하는 목적은 이 리론의 일반적 원리에 근거하여 우리 문학 예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우리 문학 예술 앞에 제기된 실천적 과업들을 해결하는 데 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심오하게 연구하지 않는 결과는 유산 연구에 있어서 변증법적 유물론과는 인연이 전연 없는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낳게 되는 것이다.

문학 예술 유산 연구에서 교조주의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연구하지 않는 데서, 낡은 방법론에 립각하거나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연구한다 하드라도 그 리론의 혁명적 본질을 리해함으로써 현실적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박 겉핥는 격으로 피상적으로 대하며 기껏해야 그 리론의 개별적 명제들을 암송하는 데 그치는 결과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따다가 통채로 삼키는 모방주의로 표현되였던 것이며 남의 것은 알아도 우리 것은 모르며, 지어는 자기 것에 대하여 알 필요 조차 느끼지 않는 허무주의적 태도에서도 표현되는 것이다. 그의 실례를 음악 유산 연구에서 들기로 하자.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음악을 배웠다는 극히 부분적인 음악가들은 한 때 우리 고전 음악의 독자성과 그의 과학적 발성법을 무시하는 나머지 과학적 발성법을 《서양 발성법》으로만 인식하며 따라서 우리 민족 음악의 독특한 선률, 맑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명랑한 음색을 《서양 발성법》이란 자막대기로 재서 서양 것으로 교체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며 그 잔재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서양 것은 다 좋고 우리 것은 다 나쁘다는 사상 표현으로, 고전 음악의 근본 원리를 부인하고 소위 《진보》와 《혁신》을 운운하면서 조선 인민의 예술적 취미에 맞지 않는 형식주의를 설교하는 반인민적 립장이다. 발전된 음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과학적 발성법이 동반한다.

이와 함께 우리 민족 음악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수한 발성법이 있기 때문에 선진 국가 음악의 발성법을 배울 것을 거부하는 배타적인 립장도 물론 유해롭다.

다른 실례로 국립 예술 극장에서 상연된 무용극 《심청전》을 들어 보자. 물론 《심청전》이 연극으로 또는 창극으로 혹은 판소리로 연출하여 성공한 이상, 그것을 무용극으로는 연출할 수 없다는 리론은 서지 않는다. 그러나 무용극 《심청전》은 완전히 실패작이며 우리 민족 고전인 《심청전》의 아름다운 예술적 형상의 풍부한 내용을 외곡하고 있다. 무용극 《심청전》의 연출자는 무엇보다도 원작 《심청전》의 기본 빠포스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작품의 사상 내용도 리해하지 못하고 있다. 즉 연출자는 의도 여하를 불구하고 《심청전》의 기본 의도와 사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그 사상을 구현한 예술적 형상들의 풍부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연기를 복종시키지 못하고 교조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하였다.

문학 예술 계승 사업에서 형식주의는 고전 작품들의 평가와 그의 탁월한 솜씨들을 창조에 적용하는 사업에서 볼 수 있는 사회학적 비속화로 표현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립장과는 정반대되는 보그롭쓰끼류의 소위 《오늘의 립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해로운 형식주의는 교조주의와 상통하는 혼혈종으로서 적지 않은 문예학자들이 맑스—레닌주의를 심오하게 연구하지 않음으로써 력사적 사실을 그것이 진행된 객관적 현실과 제 정형을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관조하는 데서 파생되였으며 고전을 본받되 개변할 줄 모르며, 새것을 창조하되 예술 창작의 객관적 법칙에 의거할 줄 모르는 데서 초래되였다.

고전 문학 예술 평가에서 형식주의는 예술적 형상의 풍부한 내용을 분석할 대신에 인물 형상의 출신 성분을 따진다든가, 작가의 계급 출신을 고려한다든가, 《오늘의 립장》에서 요모 조모 재는 데서 불후의 걸작들이 외곡 중상되는 경우가 왕왕이 있었다. 대표적 실례로, 기왕에 《사시남정기》는 등장 인물이 대부분 량반 출신이여서, 정 철의 시가는 작가의 출신 계급이 《량반 관료》이여서 라고 각각 외곡되게 고려되였으며, 고대 중세의 고전 시가들이 애정을 노래하고 《염군 사상》이 농후하다 하여 《구운몽》의 주인공 양 소유나 《홍 길동전》의 주인공 길동은 《오늘의 립장》에서 이미 《낡았다》하여 버림 받았거나 그의 력사적으로 되는 사상적 모순이 과대 평가되고 불가피한 약점들이 과장되였었다. 또한 17—19 세기의 선진적 실학 사상을 맑스—레닌주의 혁명 사상과 대비함으로써 연암 박 지원이나 다산 정 약용을 결국 《봉건 수정주의자》로 락인찍는다든가, 걸출한 시인 윤 선도라든가 탁월한 화가 김 홍도 등 예술적 천재들이 직접 근로 인민들의 생활을 그리지 않고 주로 자연을 묘사하고 노래하였다 하여 그의 사실주의적 립장과 예술적 형상속에 관통하고 있는 애국주의 사상 감정과 락천주의 사상이 관조적 립장으로 현실 도피의 《은둔 사상》으로 외곡되였으며 《오늘의 립장》에서 고려되군 하였다.

사회주의 사실주의는 자연이나 사회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그 대상이나 사건들을 그것이 발생하고 발전하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산생한 구체적인 력사적 환경과의 관련에서 고찰하고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구운몽》이나 《홍 길동전》의 결점—그것은 곧 이들 고전 작품들이 가지는 진실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잠간 뿌슈낀의 《예브게니 오네긴》에 대한 벨린쓰끼의 평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네긴>을 우리와는 이미 동뜬 시대의 소설로 본다. 이 시대의 리상과 모찌브는 이미 그렇듯 우리와 동뜨고, 그렇듯 우리 시대의 리상과 모찌브의 범위 밖에 속해 있다. …만일 <오네긴>에서 오늘날 이미 낡았거나 우리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 뽀에마에 진실이 없으며 거기에 묘사된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한 사회가 아니라 상상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말해 주는 명백한 표징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였다면 그것이 무슨 뽀에마이며 그 무엇을 말할 가치가 있겠는가 ?…》(벨린쓰끼 선집, 2권, 33—34폐지 1957, 조쏘출판사).

음악에서 표현되는 형식주의와 교조주의의 그릇된 경향은 특히 민족 음악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형식을 리용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는 창조 과정에서 볼 수 있다.

우리의 우수한 고전적인 민요나 창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요의 맛이 나잖는다 !》, 《설익은 민요를 부른다!!》, 《멜로디는 좋은데 가사가 나쁘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없거니와 들을 수도 없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는 적잖은 민요나 창은 이 목소리가 그 뒤를 따른다. 이는 작시자, 작곡가의 잘못이다. 이것은 민요의 선률과 그 《새로운 내용》의 배합이 마치 기름과 물처럼 되여 그것이 잘 조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노래의 내용이 그 민요가 본시 가지고 있는 선률과 맞지 않아 마치 허재비에 비단 옷을 입혀 논 것 같기 때문이다. 우수한 형식을 리용한다 하여 아무 것에나 막 입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그마한 구김살도 잡히지 않도록, 그 선률이 순응할 수 있는 내용이 미리 주어져야 한다. 작시자는 그 모찌브라든가 그 사상 감정을 사실주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고려하지 않고 작시하며 작곡가는 그 가사의 모찌브, 사상 감정을 떠나서 형식주의적으로 편곡하는 데 이러한 간격이 생긴다. 이는 현대식 쎄멘콩크리트 고층 건물에다 민족적 형식을 부여한다 하여 조선 궁전식 목조 건물의 처마 양식이나 고분의 문채를 베풀어 건축의 조화미를 훼손시키는 경우와 같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경우는 사자무나 검무와 같은 민간 무용 리용에서도 볼 수 있는바 이 춤의 모찌브와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어떠한 힘으로도 이겨 낼 수 없으며 질풍 노도라도 숨을 죽이고야 말, 힘차보이며 민활하며 날랜 동작을 보여 줄 대신에 그냥 아담하게 춤을 추기로 하여 관중들에게 절실한 감명을 주지 못한다.

요사이 부분적인 시인들이 시조 형식에 주의를 돌리며 창작에 그를 리용도 하고 있다. 이도 매우 의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황 진이, 윤 선도 등등의 고전 시조들과 같이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며 그들을 매혹케 하는 작품들을 볼 수 없다. 이도 민요의 경우와 같이 예술 창작의 객관적 법칙에 의거하여 그 형식을 리용하는 립장이 아니라 그 형식을 틀로 삼아 사상 감정을 꾸겨 넣으려는 형식주의에 시인이 사로잡혀 버린 소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전 예술 연구에서의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는 부분적이나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향이 결국 우리의 고상한 유산을 외곡 중상함은 고사하고 우리 것은 모두 나쁘고 남의 것은 덮어 놓고 모두 좋다는 관념을 산생시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

우리가 문학 예술의 고전 유산 계승 문제에 언급하게 될 때에 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사상적 재료로서의 애국주의적 전통은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여야 할 문제의 하나이다.

조선 인민은 단일한 민족으로 자기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 있다. 이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근로 애호적인 조선 인민은 찬란하고 풍부한 문화 예술을 창조하였다. 특히 장기간에 걸치는 지나간 봉건 시기에 우리 조상들이 이룩하여 놓은 정신적 및 물질적인 고상한 문화 유산은 아주 풍부하고 찬란하다. 인민은 물질적 재보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정신적 재보의 창조자임을 조선 인민의 청사(靑史)에서도 명백히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청사는 오래기도 하도다.
천년의 흔적을 오늘 다시 맞보도다.
(靑史綿陳跡, 千年開際會)

이는 13 세기 조선이 낳은 탁월한 시인 리 규보가 그의 유명한 장편 서사시 302 운시(韻詩)의 허두에서 한 말인데, 리 규보의 심정으로, 그보다 700 여 년 후인 오늘 우리가 그때보다 더 보충되고 풍부화된 우리 문학 예술의 보고의 문을 열고 볼 때, 오색 령롱한 빛갈로 인하여 눈부심을 금치 못한다. 이 유산들이야말로 오늘의 사회주의적인 우리 문학 예술을 발전시킴에 필요한 보물들이다.

이 유산 가운데서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문학 예술과 혈연적, 정신적 관계를 가진 것은 그 사상적 재료이다. 그 사상적 재료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것이 곧 애국주의다.

엥겔스는 그의 유명한 로작 《반듀링론》 서설 총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근대 사회주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근대 사회에서 지배하고 있는 유산자와 무산자, 임금 로동자와 부르조아간의 계급 대립, 타방으로는, 생산에서 지배하고 있는 무정부 상태에 대한 관찰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 리론적 형식에 있어서는 그것은 처음에는 18 세기의 위대한 불란서 계몽 학자들에 의하여 제창된 제 원칙의 보다 철저한 발전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온갖 새로운 리론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도 그 뿌리는 비록 깊이 물질적 현실 가운데 박혀 있다 하더라도, 우선 종래 축적되여 온 사상적 재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아니되였다.》 (프리드리 엥겔스 반듀링론 18폐지,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5년).

오늘 우리 문학 예술의 중요한 속성의 하나로 되고 있는 애국주의——이는 확실히 엥겔스가 교시한 바와 같이 오늘의 물질적 현실 가운데 뿌리를 박고 있으며 따라서, 그 물질적 조건이 달랐던 지나간 력사적 시기의 그것과 구별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의 애국주의가 출발하고 있는 그 사상적 재료는 역시 지나간 력사적 시기에 조선 인민들이 문화 예술 령역에서 아로새겨 놓은 고상한 애국주의 특히 1930—40년대에 김 일성 동지가 령도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혁명적 애국주의 전통이다.

일찌기 레닌은 《삐찌림 쏠로낀의 값 있는 고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애국주의—이는 수세기, 수천년에 걸치여 견고하여 진 자기 조국에 대한 가장 심오한 감정의 하나이다》 (전집, 28권 167폐지).

여기서 우리는 애국주의란 것은 매개 인민들 속에 깊이 살고 있는 감정의 하나이며 또 그 감정은 오랜 세기에 걸치여 형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랜 시기에 걸치여 조선 인민들이 걸어 온 력사적 과정은 이 심오한 감정이 자기 조국을 위한 투쟁에서 발현되여 보다 견고하여 지며 발전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국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고 나라의 부강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긴박하여지면 질 수록, 이 투쟁에서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곤난과 애로가 많으면 많을 수록 인민들의 투지와 단결은 보다 한층 견고하여 지며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보다 더 불타 오른다는 것을 력사는 실증하여 준다.

어떠한 힘으로도 끌 수 없는 이 고상한 감정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과 그 구체적인 발현 형태는 어떠한 것인가 ?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고 있다. 《애국심은 자기 조국의 과거를 잘 알며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전통과 문화와 풍습을 잘 아는 데서 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애국심은 그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심은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와 문화를 사랑함과 아울러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심, 고향 사람들에게 대한 생각과 감정, 부모, 안해, 자식들에 대한 애정에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애국심은 인간의 감정에서 구체적으로 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집, 3권, 240폐지).

즉 애국심의 구체적 표현을 이상 교시에 비추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ㄱ, 자기 조국의 력사적 과거,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화, 그의 혁명 전통, 민족적 독자성에 대한 사랑.

ㄴ, 자기 향토, 조국의 자연, 부모 처자 및 자기의 창조적 로력의 결과에 대한 사랑.

ㄷ, 일정한 사회적 및 정치적 질서를 이루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의 사회적 조건으로 되여 있는 자기 국가에 대한 사랑.

우리는 오랜 력사를 통하여 탁월한 작가, 예술가들을 가지고 있다.

신라의 설 총, 최 치원, 솔거, 고려의 리 인로, 리 규보, 리 제현, 리 왕조의 김 시습, 박 인로, 정 철, 황 진이, 림 제, 허 균, 김 만중, 박 지원, 김 홍도, 정 약용, 신 재효 등등 우리 나라 문학 예술 발전에 불후의 업적을 쌓아 올린 탁월한 조상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탁월한 작가인 동시에 진정한 애국자였으며 그들의 고귀한 유산들은 그것이 어떠한 예술적 작품이건 애국주의로 일관되여 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조선 인민들이 문학 예술 방면에서 발휘한 애국주의는 그것이 당해 력사적 시기의 전체 인민들의 생존상 리해 관계와 긴밀히 련결되였던 것이며 련결되고 있다.

매개 력사적 시기의 인민들의 생존상 리해 관계 가운데서 가장 절실하고 강고한 요인은 무엇이였던가 ? 그것은 바로 조국이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조국》 즉

해당한 정치, 경제, 문화 및 사회적 환경은 로동 계급의 계급 투쟁에 있어서 가장 강고한 요인이다. 로동 계급은 자기 투쟁의 정치, 사회 및 문화적 제 조건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랭담하게 대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나라 운명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전집 15권, 171—172페지).

물론 조국이 처한 력사적 환경과 조건에 따라, 계급적 리해 관계의 차이와 변화에 따라 애국주의의 그 특징들은 다를 것이나 그러나 지나간 력사적 시기나 오늘을 막론하고 조국—이것이야 말로 공통적으로 전체 인민의 각계 각층의 리해 관계상 가장 강고한 요인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인민들이 자기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주인으로 된 공화국 북반부에서와 지배 계급의 억압과 착취로 노예의 생활을 면치 못하던 그 이전 시기 및 오늘의 남조선에서 조선 인민들의 애국주의 원천과 표현 형식 및 특징들이 동일한 것으로 될 수 없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와 같이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수립된 조건하에서는 그 제도 자체가 전체 인민들의 생활상 리해 관계와 일치하고 있다면 그 이전 시기라든가 남조선과 같은 착취 제도하에서는 제도 자체가 인민들의 생활상 리해 관계와 합치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인민들의 생활상 리해 관계와 일치하고 인민이 국가 주권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오늘의 북반부에서 애국주의는 전체 인민들이 사회주의적 성원으로서 단결되여 혁명의 근거지며 진정한 행복의 발원지인 자기 조국을 보위하고 공고화하는 로력과 창조 사업과 행복한 미래, 자기 조국의 완전 독립과 부강 발전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과거나 오늘의 남반부에서 애국주의는 불행을 가져 오는, 착취 제도를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려는 투쟁에서 뚜렷이 표현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문학 예술을 일관하고 있는 애국주의는 그 원천과 그 특징으로 보아 력사의 어느 시기의 애국주의보다 새롭고 높은 형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애국주의의 배양을 위하여 과거의 애국주의가 가지는 의의는 아주 크다. 그것은 첫째로 조국에 대한 태도, 인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구감으로 되며 다음으로 그것은 사상적 재료로서 오늘 우리 문학 예술의 출발점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국주의와 관련하여 락천주의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에 대한 공민적 의무감, 그를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자기 희생의 정신, 자기 인민들의 력량을 확신하는 데서 흘러 나오는 그들에 대한 불타는 존경심은 일체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고야 말겠다는 신심을 불러 일으키였다. 이렇게 숭고한 락천주의가 오늘 우리 인민들을 애국주의 사상과 함께 혁명적 락관주의로 교양하는 데 관계가 없겠는가?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예술은 그가 우리 인민의 현 처지와 영웅적 투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가 인민을 뒤로 돌아 가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행복스러운 장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르는 경우에라야만 자기의 과업을 성과 있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선집, 제4권 37 페지).

우리 고전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 조국의 부강 발전과 인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념원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애국자이며 락관주의자였다. 그들의 작품들은 이 정신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장검을 빼여 들고 백두산에 올라 보니
일엽제잠 (一葉鯷岑)이 호월에 잠겼어라
언제나 남북 풍진을 헤쳐 볼가 하노라

이 시조는 주지하는 바 남 이(南怡)(1441—1468) 장군의 작품이다. 북으로는 녀진족의 침입이 있고 남으로는 왜구의 침입이 있어 우리 나라가 부단히 원쑤들의 침략과 략탈에 잠기여 있을 때 이를 물리칠 숭고한 사명을 지닌 남 이 장군의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주의가 짧은 화폭 속에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락관주의는 비단 고전 문학 작품의 화폭 속에만 아니라 고전 민족 음악에서도, 회화에서도 기타 모든 고전 예술 작품에서도 일관하여 흐르고 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랜 그림으로서 고구려 벽화의 귀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가 귀중하다는 것은 그 화폭을 통하여 고구려 인민들의 애국적이며 전투적인 모찌브와 함께 꿋꿋하고 락관적인 기백을 능히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고구려의 벽화만이 아니라 12—14 세기 리 녕(李寧)공인왕 등을 비롯한 기타 사실주의 화가들의 화폭 가운데서, 또한 17—19 세기의 화폭들, 특히 겸제, (謙齋) 단원, (檀園) 혜원(惠園) 등의 사실주의 화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조국의 자연을 주제로 한 겸제의 풍경화는 자연의 아름다운 외모만을 복사한 것이 아니다. 귀중한 것은 그 화폭 속에 담겨진 작가의 애국주의, 락관주의인 것이다.

근로하는 인민들의 생활을 즐기여 그린 단원의 그림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대장'간에서 일하는 근로인의 모습, 땅바닥에 둘러 앉아 씨름하는 농민들, 훈장 앞에서 글을 외우는 올망졸망 어린아이들, 이를 풍속화라는 단 한마디로 때울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는 이 화폭 속에 넘치여 흐르는 작가의 인민들에 대한 애정의 불'길은 너무도 뜨거우며 그 락관성은 너무도 짙은 것이다.

혜원의 명랑한 화폭에서 볼 수 있는 풍자적 빠포스가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날카로운 풍자의 밑바닥에 깔려 있으며 내풍기고 있는 작가의 인민들에 대한 애정이며 락관주의다.

맑고 은은한 시내'물에서 목욕을 하는 녀성들을 중대가리들이 바위 뒤에서 고손도손 엿보는 장면, 평안 감사가 녀자를 끼고 진탕 추태를 부리며 배'노리하는 장면! 우리는 전자에서 가벼운 웃음을 자아 낸다면 후자에서는 증오의 분노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도 전자나 후자에서 화폭을 쥐였다 폈다 하는 작가의 꿋꿋한 락관성을 통감하게 되는 것이다.

조각 예술에서 우리는 고귀한 유산으로 신라 경주의 석굴암과 그의 불상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조선 예술 사상에서 만이 아니라 세계 미술 사상에서 그 조각이 지니고 있는 예술적 가치로서 대리석이 아니라 화강암을 솜씨 있게 구사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의 조형미, 무르녹을 대로 무르녹은 량감(量感)과 질감(質感)의 아름다움, 부드럽고 밝은 정서미를 북돋구는 선의 선률미 등등을 들고 있다——이는 공민왕릉의 립상(立像) 및 기타 조각들에 대하여도 말할 수 있다——그러나 여기에서도 귀중한 것은 통일 신라 인민들의 심리의 반영인 그 락천성이다.

이러한 공통성은 건축 예술에서도 볼 수 있는바 석조 건물로서 석굴암을 들 수 있으며 목조 건물로서 가장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것으로 대동문을 들 수 있다. 그 건물 자체는 본시 웅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건축들 특히 대동문은 그의 균형미와 함께 건물 전체에 내풍기고 있는 락관적인 기백으로 하여 옛날이나 오늘이나 평양 일대의 건물우에 우뚝 솟아 있으며 상금도 우리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우리를 기쁘게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이들 건물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향, 우리들의 미'적 감흥과 일치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들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꿋꿋한 기백, 그의 락관성이다.

다음으로 민요와 창 등 우리 민족 음악의 고전미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들이 설혹 가사가 없건 있건 우리들을 공감케 하는 모찌브는 무엇인가? 그것을 단지 아름다운 멜로디로서만 설명할 수 없다. 석굴암의 불생의 부드럽고 맑고 섬세한 선과 같은 그러한 음색으로만 설명하겠는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 음악의 아름다운 선률에 나타나 있는 그의 락천성이다. 우리 민족 음악의 특징은 대체로 그것들이 그 내용으로서 가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사의 사상 감정을 음으로서 정당하게 형상화한 데 있다. 따라서 가사에서 볼 수 있는 애국주의, 락관주의는 곧 바로 선률 속에 재현되고 있는 데 이것이 곧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건물에 무슨 감정이 있겠는가, 음악에 무슨 감정이 있겠는가, 화폭에 무슨 감정이 있겠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관념론이라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술 작품에는 인간 생활 감정과 지향을 반영한 일정한 내용이 있으며 이 내용이 각양 각이한 표현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형식에 재현된다. 예술의 진실한 화폭들은 말만 잘하는 인간보다도 감정이 풍부하며 설득력이 크며 생명력이 영원하다. 이러한 힘이 없는 예술 작품은 김빠진 맥주같으며 정신 나간 송장과 다름 없다. 이러한 예술 작품은 예술로 될 수 없다. 그것은 김빠진 맥주를 술이라 못하며 얼빠진 송장을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다.

건축이건 조각이건 회화건 음악이건 문학이건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면 반드시 고상한 사상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들과 그들의 생존상 요인인 조국의 리해 관계를 반영하면서 인민들을 애국주의와 락관주의로 교양하는 투쟁 무기로 되였다. 이는 우리 사실주의 고전 작품들이 확인하여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민주주의적 예술은 반드시 깊은 사상성을 가져야 하며 인민에게 투쟁적 무기로서 복무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술성으로 더욱 강하여진 고상한 사상성——이

것은 어떠한 예술 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든지 유일하고 정당한 범주입니다. 이것은 예술 일'군들이 기타 어떠한 부문의 일'군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자기의 사상 수준을 제고시키면서 항상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는 우리의 예술은 앞으로 멀리 발전되지 못할 것입니다》(선집, 제4권, 39—40페지).

예술 평가의 유일하고 정당한 범주로서의 《예술성으로 강하여진 고상한 사상성》——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선 풍부한 고전 예술에서 우리 선렬들의 조국에 대한 태도와 인민에 대한 관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예술가라면 그는 우선 열렬한 애국자여야 되며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이여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열렬한 애국자가 아닌 작가가 어찌 애국주의적인 작품을 창작할 수 있으며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예술가가 어찌 인민을 위한 예술을 창작할 수 있겠습니까?》(김 일성 선집, 제3권, 250페지)

이상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우리 고전 문학 예술에도 해당된다.

※ ※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우리 나라 문학 예술의 고전 계승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명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들이다.

재삼 강조하노니 문학 예술의 고전 계승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레닌적 원칙의 체현인 우리 당의 문예 로선을 고수하는 일이며 모든 과학의 유일한 과학적 방법론인 변증법적 유물론의 철저한 체득을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미학을 꾸준히 연구하는 일이다.

맑스—레닌주의는 행동의 지침이다. 이것 없이는 우리 나라 문학 예술의 고전 연구에 적대되는 교조주의, 형식주의 등 일체 해독적 요소를 극복할 수 없다.

다음으로 다시 강조할 것은 맑스—레닌주의 미학 연구 사업과 함께 우리 나라 문학 예술의 훌륭한 유산들의 존중과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는 사업이며 고전 계승의 리론 실천상 문제들을 구명하는 사업이다. 아무리 좋은 리론과 방법이 서 있더라도 이 사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나무 우에 올라가 고기를 구하는 격으로 하등의 결실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유산의 수집 정리—이는 문화—내지 예술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3차 대회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 놓은 우수한 작품들에 대한 연구 분야가 아직도 거의 미개척지로 남아 있으며 귀중하고 많은 고 문헌과 사료들이 분산되고 파묻힌채 유실되여 가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업적들이 단편적인 자료들로써 소개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 민족 문화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의 부진 상태의 원인은 물론 복잡한 것이다. 력사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치여 우리의 고귀한 문화재들이 외래 침략자들에 의하여 략탈된 사실, 해방후 십유 여 년 우리 나라가 미제 야만들로 인하여 통일되지 못한 채 남북으로 인공적으로 분렬되여 우리 유산이 집중되지 못하고 원쑤들의 식민지 노예화 정책으로 인하여 략탈 인멸되여 가는 참을 수 없는 사실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와 함께 내부적 원인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5차 전원 회의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 도당들의 우리 고전과 전통에 대한 외곡과 중상, 1956년 1월 18일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 도당들과 사상적으로 결탁한 일부 견전치 못한 사람들, 8월, 9월 전원 회의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 최 창익과 같은 종파 분자들의 영향, 그리고 적지 않은 문화인들에게서 나타나군 하는 교조주의와 형식주의가 또한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는 문화 유산 연구에 자못 나쁘게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르죠아 반동 사상과 리론을 수수 방관하여 연구 사업에서 협조와 단결의 정신을 희박케 하였다.

문학 예술의 고전 연구에서 문예 학자, 작가, 예술인들 앞에 제기된 당면 과업은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 선진 리론과 방법의 체득 및 문화 발전의 토대 구축이며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와 부르죠아 반동 사상과 리론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데 있다.

우리 당 3차 대회는 과학 문화 일'군들이 자기들의 매개 연구 분야와 사업 령역에서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의 선진적 과학 수준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을 당면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문학 예술도 포함하여 우리 나라 과학이 세계 선진 과학 수준을 따라 가기 위한 투쟁—이 투쟁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그의 기초로 되는 과거 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는 사업 및 유산 계승에 대한 리론 실천적 문제를 해명하는 사업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거대하다.

인민 정권하에서의 개성의 자유

백 재 욱

제국주의 반동들과 그 사상가들 기타 그들의 모든 앞잡이들은 모든 종류의 자유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개성의 자유에 대해서도 그것은 오직 자본주의 사회에만 있고 사회주의 사회에는 없으며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은 《전체주의》 나라, 《독재》의 나라라고 떠든다. 지어 그들은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마치도 사람들의 개성, 개인적 특성들이 말살되고 모두가 《한 모양, 한 틀》로 되며 독자적으로 사고하는 인간 대신에 《기계적 인간》으로 되는 것처럼 묘사하기를 즐겨한다.

이것은 물론 날조이며 중상이다.

우리는 한편 부르죠아 사회에서의 소위 《자유》, 《개성의 자유》와 반동들이 웨치는 이러한 구호들의 의미를 옳게 평가할 줄 알아야 하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 인민이 일제의 통치와 지주, 자본가들의 억압 착취로부터 해방됨으로써 과연 어떠한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였으며 인민 주권하에서 얼마마한 자유를 향유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개화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광활한 여지가 열려져 있는가를 정당히 리해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하나의 력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본질적이고 실천적인 문제 즉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진보냐 반동이냐의 문제에 직접으로 련결되여 있다. 왜냐 하면 반동들은 바로 이들 《자유》와 《민주주의》, 《개성의 자유》 등 구호로써 사회주의를 반대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는 데로 대중을 이끌 것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 ※

개성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사회 제도의 성격 문제와 밀접한 련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 제도가 진보적인가 반동적인가 또는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 처지가 여하한가에 의하여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 여부가 결정된다.

개성의 자유는 공민들이 나라의 경제적, 국가적, 문화적 및 사회—정치적 생활에 참가할 가능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조항의 하나이다.

력사상 매개 새로운 사회 제도는 개성의 발전을 위한 조건들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적대적 사회 구성에서는 례컨대 자본주의하에서는 근로자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근본적 조건들이 지어지지 못하였으며 또 지어 질 수도 없었다. 자본주의 사회가 기초하고 있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억압, 그로 인한 대중적 빈궁은 근로자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의 질곡으로 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진정한 개성의 자유는 오직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하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개성 해방의 기초이며 필수적 전제 조건인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폐절하고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창설함으로써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는 근로자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 놓았으며 백방으로 그를 보장하고 있다.

인간의 개성은 사회적, 력사적 산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그의 《본질은 개별적인 개인에 고유한 추상물이 아니다. 실지에 있어서는… 사회적제 관계의 총체인 것이다》(맑스, 엥겔스 선집, 조선로동당 출판사 판, Ⅱ<2> 139페지). 따라서 인간의 개성에는 사회적 제 관계의 총체로써 형성되는 인간의 기호, 감정, 지향, 소질, 성격 등등이 속한다.

인간의 개성, 그의 발전 수준은 항상 사회적 제 관계의 총체에 의하여 결정된다.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의 개성이든지 모두 일정한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다. 왜냐 하면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매 개인이 모두 일정한 계급에 속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동일한 계급 내부에서도 사람들은 각각 각이한 사업, 개체 생활 양식, 처지, 각이한 지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매 개인이 처하고 있는 구체적 환경과 그가 섭촉하는 구체적인 생활면에는 여러가지 각이한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서로 다른 개인적 특성을 가진다. 즉 능력의 차이, 취미의 차이, 성격의 차이 등이 생긴다. 그리하여 사회적, 개인적 생활과 투쟁의 다양성은 사람들의 개성을 다양하게 한다.

그러나 계급 사회에서는 순수한 개성이란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그것은 계급적 성격을 띤다.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은 언제나 개성의 계급적 성격을 음페하면서 《순수한 개성》에 대하여 떠벌인다.

《순수한 개성》, 《개성 일반》에 대한 부르죠아적 선전은 완전한 허위이며 이것은 근로자들의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고 부르죠아적 략탈, 억압의 자유를 정당화하며 《영구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개성이 사회적 제 관계의 총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면 어느때 어데서를 물론하고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개성의 자유》란 있을 수 없다. 《절대적인 개성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개성이 절대적으로 제약되여 있다고 하는 숙명론적 견해와 꼭 마찬가지로 자기 행위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숙명론적 견지에서 볼 때에는 인간은 다만 환경, 정황에 종속되여 있는 하나의 무기력한 노리개에 지나지 않으며 비결정론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인간의 행위는 아무 것에 의해서도 제약되지 않는 자의적인 행동인 것이다.

사회적 제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이러한 《절대적인 개성의 자유》는 아무리 그 개성을 《선량한 개성》, 《리성적인 개성》 등등으로 분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부르죠아적 자의를 합리화하는 리론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 즉 그것은 사회적 리익을 유린하고 모든 사회 관계를 자기의 략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르죠아 개인주의를 리론적으로 옹호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오늘날 《자유 세계》, 《미국식 생활 양식》을 찬미하면서 《절대적인 개성의 자유》를 떠벌리고 있는 리면에서는 민주주의자들에 대한 탄압, 군비 경쟁, 타국 령토에 대한 침략, 자국내 로동 계급에 대한 탄압 등등이 감행되고 있다.

오늘 미국은 한줌도 못 되는 독점 자본가들의 파쑈적 독재의 나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태프트—허틀리법은 미국 로동자들로부터 파업의 자유조차 박탈하고 있으며 맥카디법은 일체의 진보적 시민들의 활동을 고문과 학살로써 구속하고 있다. 미국의 《게슈타포》인 《련방 조사국》 정보원 (간첩)은 체포령 없이 공민을 체포할 권한을 법령에 의하여 부여 받고 있다. 저명한 학자 로젠버그 부처는 오직 그들이 진보적인 시민들이였다는 리유로 《간첩》이라는 죄명하에 전기 사형을 받았다.

미국에는 선거의 자유가 있다고 한다. 미국의 국회 선거에는 거주 기간, 재산, 교육 정도, 세납 정형 및 신앙 등 각 주들에 도합 50종에 달하는 선거권 제한 규정이 있다. 또 근로자들에게는 선거 운동을 위한 신문, 잡지도, 라지오도, 집회 장소도, 비용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독점 자본가 그루빠들은 3K단, 군국주의화한 미국 재향 군인 협회 등 테로 단체들을 가지고 있어 매수, 협박, 공갈, 테로 등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대표 선출을 방지한다.

미국에서의 자유——그것은 오직 독점가들의 자유이며 딸라의 자유이다. 개성은 딸라에 예속되여 있다. 민주주의의 초보적 권리마저 박탈 당해 가고 있는 근로 대중과 량심적인 인사들에 있어서 개성의 자유란 문제도 될 수 없는 것이다. 한줌도 못되는 소수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전체를 위한 자유와 민주주의로 가장되고 기만되는 것이 미국식 선전의 특징이다.

맑스—레닌주의는 개성의 자유의 사회 계급적 내용을 과학적으로 천명함과 동시에 진정한 개성의 자유를 위한 투쟁 방도도 제시하여 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의 계급적 처지로 보아 아무러한 생산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가혹한 착취와 빈궁에 처하고 있는 광범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성의 자유도 말할 수 없다. 거기에서는 오직 부르죠아적 《개성의 자유》 즉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의 자유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근로자들의 진정한 개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부르죠아적 《개성의 자유》가 기초하고 있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철페하고 그 우에 솟아 있는 부르죠아적 상부 구조 전체를 전복하여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절대 다수 인민의 개성의 자유란 있을 수 없다.

부르죠아적 《개성의 자유》는 그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의 개성의 자유와는 원칙적으로 대립된다. 후자는 전자의 자연 생장적 성장이 아니라 원칙적인 부정이며 그 페절의 기초 우에서만 발생 발전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부르죠아적 《개성의 자유》가 가지는 력사적 의의를 전혀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르죠아적 《개성의 자유》는 사회 발전의 필연성에 의하여 성숙된 봉건 제도의 페기, 자본주의 제도의 확립, 봉건적인 신분적 예속 관계의 페절에 있어서 긍정적 의의를 가졌었다.

그러나 부르죠아적 《개성의 자유》는 의연히 프로레타리아트를 비롯한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억압의 자유였다. 봉건 제도로부터 자본주의 제도에로의 이행은 부르죠아지에게는 신분적 억압의 페지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륭성도 가져 왔지만 로동자, 농민들에게는 신분적 억압 대신에 오직 더욱 잔인한 새로운 경제적 억압을 가져 왔을 뿐이였다. 프로레타리아트는 비록 신분상으로는 해방되였지만 그들에게는 언제나 실업과 빈궁과 기아의 연추(鉛錐)가 따라 다니고 있다. 모든 인간은 법적으로 동등하다는 부르죠아지의 선언은 전혀 형식적, 기만적인 것이였다. 부르죠아지는 프로레타리아트가 자기의 해방을 위하여 그것을 리용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에는 그러한 형식적 자유마저 온갖 방법으로 철페하여 버리며 파쑈 테로 통치를 수립하는 바 과거의 히틀러 독일과 같이 미국도 오늘 파쑈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우에서 본 바와 같다. 이것은 부르죠아적 개성의 자유의 론리적 귀결이며 운명이다.

부르죠아적 《개성의 자유》는 임금 로동을 착취하는 부르죠아적 기업과 상업의 자유이며 개인의 리윤 추구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려는 극단의 개인주의적 자유이다. 부르죠아적 상품 경제는 개인주의의 온상인 상품 생산의 가장 발전된 체계이다. 매개 자본가는 다만 자기의 리윤 추구를 위해서만 행동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부르죠아지는 사기, 횡령, 살륙, 전쟁 도발 기타 어떠한 비렬하고 비인도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는다. 이러한 것이 부르죠아적 《개성의 자유》이다. 오늘날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의 미제의 야만적 만행, 알제리야 인민들에 대한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의 폭행 등 동서양에서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모든 반인민적 행동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르죠아적 《개성의 자유》의 발현으로 되는 것이다.

부르죠아들이 떠벌리는 소위 《개성의 자유》는 마치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 같은 환상을 일으키게 하나 실지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경제 법칙의 맹목적인 힘에 예속되고 있는 부자유이다.

자유 경쟁, 시장을 통한 매매 관계 등에서 개인은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자주적이며 평등한 것 같이 보이며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자기의 자주성의 완성된 형태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부르죠아 사회처럼 상품 경제의 자연 생장적인 필연성에 사람들이 예속되여 있는 사회는 없다. 부르죠아지는 자기들의 리윤 추구를 위하여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부단한 경기 변동, 빈번한 파산, 법칙적 주기적인 경제 공황의 강제적 맹목적인 힘에 예속되여 있다. 자유란 인식된 필연성이다. 부르죠아들은 바로 이러한 필연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여하한 《자유로운》 행동도, 정책도 필연의 복쑤를 면치 못하며 자체의 부자유와 무능을 폭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공평 무사한 개성의 자유》라는 보자기를 벗기고 보면 그 속에는 오직 추악한 돈주머니가 들어 있을 뿐이다.

* *

엥겔스는 허위적인 부르죠아적 《개성의 자유》로부터 진정한 개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하여 생산 수단을 사회주의적 소유로 전화시켜야 하는바 이로부터 《필연의 왕국으로부터 자유의 왕국에로의 인류의 비약》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는 《자유의 왕국》 즉 공산주의 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사회적 생산 내부의 무정부 상태는 계획적, 의식적 조직 운영으로써 대치된다. 개인적 생존 경쟁은 종식된다. 이리하여 인간은 비로소… 야수적인 생존 조건으로부터 참으로 인간적인 생존 조건으로 넘어 간다… 종래에는 인간을 지배하는 외부적인 자연 법칙으로서 인간에 대립해 온 인간 자신의 사회적 행동의 법칙이, 인간에 의하여 극히 로련하게 적용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지배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연과 력사에 의하여 우로부터

장효된 것으로서 인간에 대립하여 온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이제는 인간 자신의 자유로운 일로 된다》 (맑스, 엥겔스 선집,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Ⅱ<1> 259—260페지).

이와 같이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하에서 만 사회의 모든 성원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조건이 지어진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과 구라파와 아세아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 과정은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가 근로자들의 모든 소질과 재능의 발전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집단의 해방은 개성의 자유의 기초이다.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전화함으로써 전체 근로자들을 해방하는 바 이것은 개성의 전면적 발전을 보장하는 확고한 기초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의 지도하에 도시와 농촌에서 청설 공고화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근로자들의 개성의 전면적 발전, 진정한 개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주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지도하에 사회적 생산을 장악 관리함으로써 사회 발전의 필연적 합법칙성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를 새롭게 변혁할 모든 능력,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는바 이것은 개성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장구하고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적 경제 제도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의 인민 정권은 법적으로 인민들의 권리와 개성의 자유를 보장하며 그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실제적 조건들을 지어 준다.

우리 인민 정권은 조선 인민이 쟁취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유하며 그것을 일층 확대 강화하면서 공화국 헌법으로써 그것을 법적으로 고정화하여 놓았다. 그리하여 오늘 매개 공화국 공민들은 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광범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

공화국 헌법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일체 공민이 성별, 민족별, 신앙, 기술, 지식 정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사회—정치 생활과 경제 문화 부문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가할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매개 공화국 공민들은 부르죠아 국가가 단순히 《선포》하는 데 그치는 일반 선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등을 실질적으로 생활에 구현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근로자들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까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리승만 통치의 파쑈적 본질은 언론 출판에 대한 탄압 조치에서도 뚜렷히 나타나고 있는바 그들은 《출판물 림시 조치법》등을 조작하여 몇 개의 언론 출판 기관만을 독점 리용하려고 시도하면서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언론 출판물들을 모조리 유린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제와 리승만 도당은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일체 애국적 민주 력량을 탄압하며 또 자기 계렬아닌 모든 당파와 인사들을 국가 정치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야당파 내의 일부 정객들의 사소한 언론까지도 감시하며 박해를 가하고 있다. 가장 초보적인 정치적 자유도 없는 조건하에서 무슨 개성의 자유에 대하여 말할 여지가 있겠는가?

공화국 헌법은 또한 근로자들에게 부르죠아 사회하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자유와 권리, 즉 로동의 권리,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권리, 휴식에 대한 권리, 사회 보장에 관한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근로자들을 실업과 빈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바 이것은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새로운 자각적 태도를 환기시키며 사회적 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시킴으로써 그들의 적극성과 창조적 열성을 가일층 제고하여 준다. 그러므로 이것은 근로자들의 성격, 능력 발전에 커다란 충동을 주며 개성의 가일층의 개화 발전을 보장한다. 오직 진정한 개성의 자유가 보장되여 있는 곳에서만 근로자들의 무궁 무진한 창조적 적극성이 있으며 또 앙양된다.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의 앙양은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는 주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는 근로자들의 자각적 열성과 자각적인 참가에 의해서만 건설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의 앙양은 더욱더 새로운 기적적 성과들을 보이여 주고 있는바 근로자들은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토의시에 맹세한 자기들의 증산 과제를 제때에 보장하고 있다. 금년도 1. 4 분기 계획에 대한 총화는 근로자들이 맹세한 결의들이 실지 로력 투쟁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력력히 보여 주고 있다. 1. 4 분기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은 110%로 초과 완수되였으며 증산 과제를 포함한 계획은 104%로 초과 완수되였다. 이것은 작년 1. 4 분기 총 생산액에 비하여 136%이라는 장성 템포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 기간에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기술적 개선에서 수 많은 획기적인 창의 고안들을 하여 로동 생산능률을 현저히 제고시켰다.

인민 정권은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준다. 근로자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됨이 없이는 개성의 전면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교육을 받으므로써 만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지'적 능력, 기능 등등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 정권은 근로자들과 그 자제들의 교육 교양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돌리면서 수 많은 각종 학교들을 창설하였으며 그들이 자유로이 교육을 받으며 로동하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보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죠아들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고 대다수 근로자들을 몽매하게 만든다. 남반부의 교육 제도를 보더라도 오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소수 부유한 자들의 자제들이며 근로자들의 자제들은 교육에로의 길이 막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오늘날 남조선에서는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학비를 조달해 줄 도리가 없어 부모들이 자살하는 등 수다한 비극을 빚어내고 있다. 사람들이 생계와 생명을 유지할 길이 없는 곳에서 어찌 자유에 대하여, 더우기 개성의 자유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인민 정권은 또한 과학 및 예술 활동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인민 정권은 부르죠아 사회에서 창작을 억제하는 쇠사슬을 분쇄하였으며 예술가들이 시장을 위한 상품을 만들어내며 구매자를 구하는 비루한 의무로부터 그들을 해방하였다. 부르죠아 사회에서는 례컨대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이 자기 인민에 봉사하려는 예술가들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자유도 주지 않는다. 그들은 과학과 예술을 오직 자기들에게 복무하도록 강요한다. 남조선의 대부분의 잡지며 영화관의 영사막이며 극장의 무대며 미술 전람회장에 범람하고 있는 것은 저급하고 퇴폐한 작품들이다.

우리의 인민 정권은 아무것에도 구애됨이 없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재능과 리상에 따라 자유로이 창작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문화의 보물'고에 거대한 기여를 한 적지 않은 우수한 작품들이 속출되고 있으며 우리의 민족 문화는 날로 개화 발전하고 있다.

우리의 예술과 문학은 결코 직업적 예술가, 작가들에 의해서만 발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화국 방방곡곡 직장들과 가두들에서 꽃피고 있는 써클 문화의 장성은 근로자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의 가장 뚜렷한 례증의 하나로 된다.

당과 인민 정권은 개성의 개화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되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그의 물질적 기초로 되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면서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단한 배려를 돌리고 있다. 당과 정부의 이러한 정확한 정책은 우리 인민의 개성의 자유로운 전면적인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의 암흑 통치하에서 전대 미문의 빈궁과 기아와 무권리의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는 남반부 인민들에게 있어서는 개성의 발전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남조선에서의 민족 경제의 파탄, 수백만 실업자들과 수 많은 아사자들의 출현, 백주에 인민들에게 감행하는 미제의 살인 행위 등은 부르죠아적 《개성의 자유》, 미국식 《민주주의》 및 《자유》의 직접적 결과이다.

⁂ ⁂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의 개성의 자유는 인민 정권의 계급적 성격에 의하여 명백히 규정되고 있다. 우리의 인민 정권은 외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조선 인민의 극악한 원쑤인 친일, 친미파, 민족 반역자들과 지주 및 예속 자본가들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민주 제도를 계속 공고히 할 것을 자기의 임무로 한다.

인민 정권은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한 각계 각층 애국적 민주 력량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는바 이리하여 북반부 인민들은 자기의 진정한 인민 정권의 배려와 혜택에 의하여 사회 생활의 모든 부면에서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실현하게 되였다.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의 개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개화 발전된다. 매 개인은 국가와 집단의 리익에 부합되게 자기의 소질, 기능에 따라 자기의 개성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 국가는 개성의 다방면적인 발전을 장려하며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부분적이지마는 오늘 우리 일부 인테리들과 학생들 가운데서는 개성의 자유 문제에 관하여 우리 인민 정권하에서는 마치 개성이 판에 찍은 어떤 딱딱한 것이며 개성의 다방면적인 발전이 용허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모든 일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로부터 《아무런 구속 없는》 개성의 자유, 《개성의 절대적 자유》를 운운하는 경향을 간혹 볼 수 있는바 이는 개성의 자유에 대한 그릇된 리해와 우리 현실에 대한 외곡된 견해에 기인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제 관계의 총체로써 형성되는 인간의 개성은 사회의 복잡한 현상, 그가 처한 구체적 생활 제 조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객관적 세계의 산물로서의 개성의 다양성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객관적 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꼭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개성을 《한 모양 한꼴》로 만들 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발전시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맑스주의는 인간의 개인적 특성을 무시하지 않으며 그것의 자유로운 발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개성의 자유에 대한 이상과 같은 견해들은 의심할 바 없이 과거에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인테리들이 생각하던 것 즉 자유에 대한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 잔재의 표현인 것이다. 또 그것은 좋은 경우에라야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미래의 《자유의 왕국》을 오늘에 당장 기대하는 착오에 기인하는 것일 것이다.

오늘 우리의 자유, 우리의 개성의 자유는 다른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맑스—레닌주의 당이 령도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하에서의 자유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의 자유이다. 따라서 그것은 당과 국가의 지도와 통제하에서의 자유이며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하에서의 자유이며 국가적, 집단적 규률하에서의 자유이다.

통제와 규률, 중앙 집권제——이러한 것은 물론 자유, 개성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며 제한이다. 우리는 이것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제약과 제한은 바로 무엇에 대한, 무엇을 위한 제약이며 제한인가? 그것은 바로 부르죠아적, 착취자적, 침략자적 요소에 대한 제약과 제한이며 또 이 요소의 극복을 위한 제약과 제한이며 사회주의의 승리, 《자유의 왕국》의 도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약과 제한인 것이다.

누구를 물론하고 현실을 바로 보기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는 싫든 좋든간에 오늘날 인류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의 혈투의 마당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하건 못 하건간에 이 두 진영의 싸움에서 초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르죠아지와 그의 지지자들은 부르죠아적 생활 양식과 부르죠아적 자유를 위하여 싸우며 프로레타리아트와 그의 지지자들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를 위하여, 《자유의 왕국》을 위하여 싸운다.

인류가 전 세계에서 착취와 억압을 소멸하고 《자유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는 응군한 력사적 시기를 요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력사적 시기는 곧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시기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가렬한 계급 투쟁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다. 이 세기적, 세계사'적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트를 비롯한, 자유와 해방을 원하는 전체 인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맑스주의 당의 령도, 프로레타리아 독재, 강철의 규률이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것도 또한 알고 있다.

오늘 우리 조국 북반부에서 이 투쟁은 이미 기본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한편 원쑤들의 반항을 반대하며 한편 우리의 자유와 행복의 물질적 토대를 건설하는 두 전선에서.

우리가 이미 쟁취한 승리는 우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과 남반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를 인민을 위하여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원쑤들을 타도 진압하며 자연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때문에 가렬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 두 전선의 투쟁의 승리, 그 승리의 촉진을 위하여——오직 이것을 위하여서만 당의 령도, 인민 정권의 지도와 통제, 중앙 집권제, 조직과 규률이 필요한 것이며 불가결한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부르죠아적 요소, 부르죠아적 자유에 대해서는 제약으로 되며 공포로 되지마는 프로레타리아트와 그의 립장, 인민의 립장에 서는 사람들, 우리의 투쟁의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와 그들의 개성의 자유를 위해서는 하등의 제약으로 되지 않으며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오늘 규률을 싫어하며 조직 생활을 싫어하며 집단적 생활을 싫어하며 더나아가서는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의 원칙을 거부하며 지도를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무정부주의적——부르죠아적 《개성의 자유》에 대한 동경의 표현일 것이다. 사회적, 집단적 규률조차도 없는 절대적 자유, 개성의 절대적 자유란 계급이 없고 당도 없고 국가도 없는 공산주의의 조건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자유, 개성의 자유에 대한 부르죠아적 견지는 당의 규률을 파괴하며 당의 유일적 지도를 거부함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려고 지향하는 기회주의적 견지에로 전락될 수 있다. 맑스주의는 규률은 곧 자유이다 라고 주장한다. 만일 자유가 인식된 필연이고, 인간은 필연을 인식하고 그에 적합하게 행동함으로써 만 자유로울 수 있다면 매 개인이 지도와 통제와 규률의 객관적 필연성을 깊이 리해하면 할수록 그는 그만큼 더 자유로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규률은 집단과 그의 요구 및 규범에 대한 자발적이고 자각적인 복종으로 되며 집단의 성과를 증대하려는 자각적인 지향으로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하에서의 개성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광범한 인민 대중의 개성의 자유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인면 민주주의 제도하에서의 개성의 자유의 우월성인 바 여하한 부르죠아적 개성의 자유도 이러한 광범한 근로 대중에 대한 개성의 자유를 실현할 수 없다.

둘째로 그것은 집단주의적 개성의 자유라는 것이다. 맑스주의 창시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은 다만 집단에서 만 자기의 천품의 다방면적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집단에서 만 개성의 자유는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개성의 자유는 집단의 리익과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에 조화적으로 복무하며 자유로운 집단 속에서만 보장된다.

세째로 그것은 자연과 사회 발전의 필연적 법칙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의거하고 있는 당과 정부의 지도하에서 실현되는 개성의 자유이다.

부르죠아적 《개성의 자유》가 필연과 대립되는 따라서 어떠한 지도도 거부하는 허위적인 개성의 자유이라면 프로레타리아트적 개성의 자유는 당과 정부의 지도하에서의 자유이며 결코 무정부주의적인 자유가 아니다.

당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에 립각하여 조선 인민 앞에 당면한 혁명적 로선을 제시하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전체 인민들을 조직 동원하는 지도적, 향도적 력량이다.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 기초 우에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조직, 지도하는 당의 현명한 령도하에서 만 우리 인민의 진정한 개성의 자유는 보장된다. 만일 우리 당의 현명한 지도가 없다면 조선 인민은 우리 나라가 처한 복잡한 국제 국내 정세하에서 우리 혁명의 객관적 필연성을 우리의 혁명 승리를 위하여 유리하게 리용하지 못할 것은 물론이며, 강력한 민주 기지를 창설하고 미제 무력 간섭자들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 당 제3차 대회가 제시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과학적인 강령은 조선 인민의 위대한 자유에로의 광활한 전망을 열어 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 인민은 당이 제시한 강령을 한결같이 지지 옹호하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정력과 재능을 다 바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은 력사 발전에서의 인민 대중의 결정적 역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기초하고 있다. 대중의 창조적 력량과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에 대한 신뢰는 우리 당 활동의 기초이다. 당은 인민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재능,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또 대중들이 창조적 적극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당의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며 그의 지도하에서 전진할 때만 우리들의 활동은 더욱 자유로워 질 것이다.

*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르죠아적 《개성의 자유》는 허위이다. 오직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만 진정한 개성의 자유가 보장된다.

부르죠아적 《개성의 자유》는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적 개성의 자유이다. 이와 반대로 프로레타리아트적 개성의 자유는 절대 다수의 개성의 자유이며 당의 지도하에서의 개성의 자유이다. 당의 지도적 역할이 없이는 진정한 개성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강화하며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당의 레닌적 조직 원칙을 견결히 수호하면서 당을 약화시키려는 종파 분자, 우경 기회주의자, 좌경 기회주의자들에 대하여 제때에 타격을 주었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에서 부르죠아 선전이 말하는 소위 《자유》와 《민주주의 확대》를 떠벌리면서 당의 통일 단결을 파괴하려고 기도한 최 창익, 서 휘, 김 승화, 윤 공흠, 박 창옥 등 종파 분자들에 대한 폭로 분쇄는 우리 당의 가일층 단결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졌다. 종파 분자들이 떠든 《자유》,《민주주의》의 구호의 본질은 당을 말공부쟁이들의 종파 집단으로 전변시키려는 데 있었으며 종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간판이였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의 자유에 대한 그릇된 리해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개성만을 인정하고 계급성, 당성을 2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많은 당원들은 모두 넓은 사회의 여러가지 복잡한 계급과 계층들로부터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개성에는 적지 않게 전 당적 리익에 배치되는 행위와 사상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하는바 그를 위해서는 부분적이며 협소한 자기의 리익을 계급적 리익에 복종시켜야 한다.

당의 요구에 의하여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매개 당원은 먼저 혁명의 리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원에게 있어서 무조건적이다. 그러나 물론 이렇다고 해서 당이 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은 매개 당원들의 사업 능력과 특성, 그의 희망을 적당히 고려하여 그들이 자기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며 자기 사업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일부 동무들은 《개성에 맞지 않는다》는 구실 밑에 당이 위임한 사업을 거절하려 하며 또 불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당성과 개성을 결합시켜야 하며 그래야만 자기의 능력,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우리는 개성과 당성의 일치를 위하여, 부단히 자체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개인주의적 심리가 많이 남아 있으며 자유주의적 사상 잔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 잔재들은 반드시 극복되여야 한다. 여기에는 부단한 자체 교양과 동지적인 호상 방조가 필요하다.

독일의 재통일과 서부 독일에서의 원자 무기 무장 위협을 반대하는 투쟁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주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대 사 리하르드 피쉐르

(1)

1, 독일 량 국가의 사회적 성격

독일 정세를 평가함에 있어서 독일에 각이한, 대립되는 사회 정치 제도를 가진 두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두 국가의 국경은 구라파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계와의 분계선으로 되고 있다.

서부 독일의 정치 경제적 주권은 독점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다. 이 주권은 3백 여 명의 콘체른과 은행 백만장자들에 의하여 행사되고 있는바 그들의 대표자로서는 악명 높은 크루쁘, 페르드멘게쓰, 클레크네르, 뜨이쎈, 스띤네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서부 독일의 중공업, 례하면 《전기 총 회사》,《지멘쓰》 그리고 《이. 게. 파르벤》 상사의 후계 회사 등 대부분의 콘체른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서부 독일의 대부분의 금융 자본은 독일 은행, 드레즈덴 은행, 상업 은행이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 자본가들의 대표자들과 그루빠들이 국가 주권 기관과 관리 기관들에 독점적으로 참가하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서독의 독점 자본가들의 의사가 그대로 《국가적 의사》로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표현으로 되는 것은 449 명의 대의사로 구성된 서독 하원 분제쓰따끄의 사회 성분이다. 그들 중에서 85 명은 대기업가와 대상인이며 51 명은 지주, 85 명은 콘체른의 지도자들이며 138 명은 소위 자유 직업자 대표들이고 로동자 출신은 15 명밖에 못 된다. 여기에 부언하여야 할 것은 서독에서는 거의 전체 국가 기구들을 과거의 반동적 관리, 파쉬쓰트들과 군국주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독의 독점 자본가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는 아데나우어 정부는 국내에서의 권력 확대 및 침략적 대외 정책의 적극화를 위하여 로동 계급에 대한 가강한 착취 및 민주주의적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반동적인 대내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데나우어 정부는 이미 수년전에 자유 독일 청년 동맹을 금지하였으며 어느 때나 서독의 헌법을 위반함이 없이 활동하여 온 독일 공산당을 비법화하였고 오늘에 와서는 민주 녀성 동맹의 활동까지 금지하는 반동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유 독일 직맹 련합회와 사회 민주당에 대하여서도 아데나우어 정부는 이와 같은 공세를 취할 책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직맹 련합회 리론가인 마가르츠 박사의 체포와 그리고 정치적 동기를 구실로 허다한 독일 련방 공화국 공민들을 형사 재판에 회부한 사실들이 증명하여 준다.

서독 지배층들은 서독 금융 자본의 독재를 전 독일에 확대시키며 구라파에서의 헤게모니야를 탈취할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미국의 금융 자본과의 긴밀한 련계와 지지 밑에 달성된 자기의 우세한 공업력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서부 독일은 《서구 동맹》, 북대서양 동맹, 구라파 리사회, 광산 공장 련합회, 서구 지불 동맹 그리고 최근에 조작된 서구 《공동 시장》에 가입하게 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1) 독일 제국주의가 서독을 나토의 중요 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독일 인민은 물론이거니와 전 구라파 인민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전쟁 근원지로 만들었다는 것,

2) 독일 제국주의는 현재 구라파에서의 헤게모니야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는 것,

3) 독일 제국주의는 미국의 지도하에 중근동에서의 영 불 식민주의자들의 《유산》의 일부를 얻으려고 하며 아프리카에서 일정한 세력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는 것,

4) 독일 제국주의는 힘으로써 독일을 통합하려 하며 1939년에 존재한 것과 같은 독일 제국을 창설하기 위하여 동남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협하려고 한다는 것,

5) 서독 정부는 쏘련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펴하며 그에 근거하여 모든 회담을 진행하려고 시도한다는 것 등을 말하여 준다.

그렇다면 전쟁 준비 특히 원자 무기의 무장화에 광분하고 있으며 식민주의 기치를 들고 있는 서독 독점가들이 어찌하여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서부 독일에서 자본 계급은 국가 주권의 폭력, 서독 근로자들에 대한 강력한 정치, 경제적 압박과 종교적 수단을 리용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교묘한 선전을 통하여 로동자들을 기만하고 각종 《리론》을 꾸며서 마치도 리윤의 일부를 로동자들에 나누어 주는 듯이 분장하는 데 광분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서독에서의 계급 투쟁을 없애 버리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들은 서부 독일에 아직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로동 계급의 당인 사회 민주당 지도부의 불철저한 행동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다.

독일 정세를 연구할 때 우리들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가 독일의 재통일을 위한 새로운 방도들을 부단히 찾고 있으며 그리하여 1949년부터 본 제쓰딱과 련방 공화국에 86회 이상의 제의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이러한 제의를 하면서 언제나 재통일을 위하여 호상 평등적인 회담의 방법으로 량 독일 국가를 접근시키자는 정치적 립장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련방 공화국은 언제나 이 독일 인민의 민족적 념원을 실현하는 데 응하지 않았다. 반대로 아데나우어 정부는 구라파에서 독일 제국주의의 헤게모니야를 달성하기 위하여 독일 인민의 민족적 리익을 나토의 침략 정책에 희생시켜 버렸다.

그러나 력사의 수레바퀴는 끊임 없이 돌아가며 사회는 계속 앞으로 발전하고 있다. 독일에서 첫 로농 정권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부단히 강화 발전되고 있으며 국토가 량단되고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난관들이 적지 않는 조건하에서도 인민 경제를 엄밀한 계획 밑에 지도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우리 로농 정권의 경제적 기초로 되는 것은 1956년에 전체 공업의 85.5%를 차지하던 사회주의적 공업 부문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전체 경지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농촌 경리의 국가—협동조합 부문이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의 지배적 계급은 농민과 동맹한 로동 계급인 바 그의 의사는 268 명의 로동자, 42 명의 농민, 67 명의 사무원, 41 명의 수공업자, 48 명의 인테리 등 466 명으로 구성된 인민 의원을 통하여 국가적 의사로 전환되고 있다.

이 로농 정권은 군비 축소를 위한 실제적 대책을 취하며 또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2,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재통일 정책

현 시기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재통일 정책은 서부 독일에서 우선 일련의 장해물들이 제거되며 동시에 민주주의적 제 조건이 조성되여야 한다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오늘 독일의 재통일에 있어서 이러한 제 조건이 필요하게 된 것은 본 정부가 계속 평화적 재통일을 방해하는 일련의 장애물들을 조작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들은 서부 독일에 사회주의적 개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련방 공화국 령역 내에서 독점체의 지배를 청산하며 아데나우어 정부가 재군국화와 재파쑈화 정책을 거부하며 침략적 군사 동맹들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민족적, 민주주의적 요구를 제기한다. 나토를 비롯한 기타 군사 동맹들로부터의 서독의 탈퇴는 독일 재통일의 선결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련방 공화국내에서 전 인민적 토의를 실시하는 것도 좋다고 인정한다.

미래의 독일은 평화 애호적, 민주주의적 독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서부 독일의 일반 병역 의무제가 철폐되며 동서 쌍방의 무력을 제한하며 국가 및 경제 기관으로부터 지도적인 파쑈 활동가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 외에 량 독일 국가가 참가하는 구라파 집단 안전 체계의 창설과 소(小)무장 지대의 창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곧 독일의 평화적 재통일을 위한 선결적 제 조건인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력량이 독일의 재통일에 대한 숭고한 민족적 과업을 완수할 수 있겠는가?

독일의 재통일은 오직 독일 사람 자신의 일이다. 독일의 재통일은 4대 렬강이 할 일은 아니다. 비록 서부 독일은 소위 독일 조약 제2조에 의하여 재통일의 책임을 미, 영, 불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우리의 견해는 변할 수 없다. 현 조건하에서 반동적 군국주의 세력과 독일 독점 자본을 반대하는 평화 애호적 민주주의 력량의 성과적인 투쟁만이 재통일을 위한 유일한 방도로 되는 것이다. 독일의 재통일을 위한 이러한 민주주의 세력의 투쟁은 그의 선두에 영웅적인 독일 로동 계급이 서는 때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 사회 통일당 제30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된바 재통일에 관한 모든 구호와 제의들은 우선 독일 로동자들과 개별적 견실한 혁명적 계급에 돌려지고 있다. 중간층들과 민족 부르죠아층들도 이 투쟁에 인입하여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제 요구가 실현된 후에 하여야 할 첫 사업은 량 독일 국가로부터 동수의 대표들로 구성되게 될 전 독일 쏘베트 (위원회)의 창건이다. 그의 구성 위원들은 현행 선거법에 기초하여 선거되여야 할 것이다. 이 쏘베트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련방 공화국의 련합에 기초한 동서 독일의 련합 기관으로 될 것인바 이는 독일 련합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통일적 독일의 회복을 위한 모든 대책들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 전 독일 쏘베트는 민족 회의의 조직을 위하여 전 독일적 자유 선거를 실시할 제반 대책들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선거에 있어서 외국 군대의 어떠한 영향이나 독점 자본가들의 정당에 대한 자금 충당, 대의원의 매수가 금지되여야 하며 또한 독점 자본가들이 출판, 라지오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여야 될 것이다. 피선된 민족 회의는 새 헌법을 작성하며 독일 인민에게 확고한 미래를 보장하며 전 세계 인민들에게 평화적 친선 협조를 보장하여 주게 될 것이다.

3, 현 시기 량 독일 국가간에 존재하는 제 련계

독일의 분렬을 심화하기 위한 서구 렬강과 아데나우어 정부의 갖은 발악적 책동도 공동적 력사 및 경제적 발전과 친척 관계에 기초하여 조성된 량 국가간의 허다한 련계는 방해할 수 없다. 국가적 범위에서 보아 가장 현저한 련계는 독일의 국내 상업이다. 포츠담 협정 제3조 "베" 14항에서 4대 렬강은, 독일은 한개의 경제적 단위로서 간주되여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렬강은 독일의 국내 통상에 난관들을 조성하여 왔다. 지금 아데나우어 정부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상품을 공급할 능력이 없다거나 그의 상품의 질이 저급하다느니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느니 떠들면서 서독 인민들로 하여금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멸시하도록 하는데 갖은 애를 다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상적 주장이 허구 날조이라는 것은 국내 상품 류통의 부단한 장성이 여실히 말하여 주고 있는바 상품 류통액은 1951년에 3억 3천 5백만 계산 단위로부터 1956년에는 13억 3천 8백만 계산 단위로 장성하였다. (이 계산 단위는 동독의 1 마르크와 서독의 1 마르크가 동일함).

량 독일 국가간에는 우편 전신 및 철도 운수면에서도 호상 련계가 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련방 공화국 우편국들 사이에는 우편물과 전신 전화 련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서부 독일측에서는 서신과 소포 교환에 대한 통제를 가하고 있으며 편지를 뜯어 보는 부정 행위를 함으로써 신서의 비밀 보장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있다. 동서의 독일로부터 매일 6 개의 렬차가 각각 국경을 통과하고 있으며 특히 명절 같은 날에는 이 수'자가 더욱 붙으며 기차는 려행자들로 초만원을 이루게 된다.

독일 사회 통일당과 독일 사회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는 아직 공식적 련계는 없으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전 독일 로동자 대회들이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였는 바 여기에는 동서 독일의 직맹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례컨대 1957년 3월 9일 라이쁘찌에서 제5차 전 독일 로동자 대회가 열렸을 때 1,300 명의 회의 참가자들 중 서부 독일에서 온 활동가들은 1,115명이나 되였다. 전 독일 로동자 대회들은 서부 독일 로동자들이 자기의 계급적 형제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실지에 있어서 독일 로동 계급은 독점 자본과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그의 통일적 행동에 의하여서만 그들의 공동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는 그 대회에서 채택된 《독일 로동 계급의 길과 목적》이라는 강령이 명시하여 주고 있다.

독일 청년들도 《전 독일 써클》이라는 전 독일적 련합체를 가지고 있다. 이 단체에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으로부터 자유 독일 청년 동맹이 참가하고 있으며 서독으로부터는 사회 민주당 청년 동맹 《팔켄》과 병역 거부자 동맹, 《나뚜르프로인데》동맹 등등이 참가하고 있다. 1957년 5월 초순에는 와이마르에서 《전 독일 써클》 대회가 2일간 계속되였으며 그에서 채택된 성명은 서부 독일 군국주의 파쑈 세력의 청산과 민주주의적 자유와 안정된 생활의 실현들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다면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스포츠 분야이다. 스포츠 협회들은 신문들을 호상 교환하고 있는바 이것은 훌륭한 전 독일적 련계로 되는 것이다. 서부 독일에서는 스포츠 지도부의 거의 전부가 히틀러 시대의 파쑈적 스포츠 지도자들의 수중에 있으며 그들의 스파이적 파괴 암약이 있으므로 하여 전 독일적 스포츠 련계는 다소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나 주지의 사실이지만 멜보른에서 개최된 올림픽 대회에는 전 독일 공동 선수가 참가하였던 것이다.

문화적 련계면에서는 우선 영화 필림들이 교환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정부의 탄압으로 인하여 아직 전 독일적 예술 영화가 제작되지 못하고 있다. 음악을 비롯한 예술 경연 대회들에도 동서 독일로부터 다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범위의 사법 분야에서도 동서 독일이 공동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바 례를 들어 일정한 범죄들에 대하여 공동 조사를 실시하며 부양료의 지불 문제에 있어서도 공동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다만 한개의 독일 대표만을 인정하는 국제 기관 단체들의 사업에서 동서 독일이 공동적으로 사업하고 있다. 례를 들어 국제 규격화 단체, 국제 도량형국, 국제 건축가 동맹 및 기타 분야들이다.

특별히 지적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동서간의 련계의 설정은 본 정부가 동서간의 자유로운 협조를 방해하기 위하여 조성한 일련의 난관들과의 견결한 투쟁 속에서 이룩된 것이다.

(2)

1, 무엇이 현재 서부 독일이 반동적 군사 독재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특징 지어 주는가

현재 서부 독일은 더욱더 공공연한 파쑈적 성격을 띠게 되였다. 그것은 과거 히틀러에게 복무하던 악질 분자들, 례컨대 글로브께, 하이징겔, 스빠이델과 같은 파쉬쓰트들이 점점 본의 국가 기구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사실 뿐만 아니라 로동 계급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가혹하게 박해 박탈하는 정책에서 명백하게 표현되고 있다.

본의 파쑈 도당들은 독일 공산당의 활동을 금지, 비법화하였으며 그후 또한 쟈르주의 공산당까지 금지하는 반 민주주의적 행위를 하였다. 진보적 청년 단체인 자유 독일 청년 동맹을 비롯한 많은 진보적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하였는 바 이러한 모든 악독한 책동들은 본 정부가 독일의 평화적 재통일을 무서워하며 량 독일 국가의 호상 리해를 지향하는 모든 민주주의적 세력의 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최근 서부 독일의 침략적, 반인민적 계층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책동을 감행할 것을 언명하고 있다. 그들은 독일 직맹 련합회의 진보적 력량을 위협하며 독일 사회 민주당 대렬내의 진보적 당원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위협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고 투쟁하는 모든 진보적이고 량심적인 독일 사람들에게까지 돌려 지고 있다.

더우기 최근에 와서 서부 독일에서는 로동 계급을 적대자로 가정하는 허다한 군사 기동 연습들이 진행되고 있다. 서독 신문들이 전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연습들은 금년 가을에 실시될 본 하원 선거시까지 계속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또한 서부 독일은 지난날 쏘련 병사를 적으로 가정하고 군사 훈련을 받아 온 나토 군대에게 그들의 대군사 연습을 위하여 자기의 령토를 빌려 주려고 한다. 본 통치자들은 선거시까지 군사 연습을 계속하고 총칼과 힘의 위협으로써 선거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서독의 독점 자본가들과 그의 정부의 이러한 모든 책동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은 다음과 같은데 있다. 즉

1) 그들은 선거에서 군대와 경찰의 힘을 빌어 서독 반동 지배층의 승리를 보장하며,

2) 서독의 무장, 우선 원자 무기에 의한 군대 무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독의 진보적, 애국적 력량, 주로 로동 계급의 반항을 탄압하려고 한다.

서독에서의 모든 애국적, 진보적 력량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이것이 바로 서부 독일이 반동적 군사 독재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특징지어 준다. 서독에서 원자 무기로 장비된 침략 군대를 편성하는 것은 이러한 파쑈적 탄압을 목적하는 동시에 전 구라파 인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2, 서부 독일은 원자 무기 무장에 대한 완고한 옹호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부 독일은 침략적 군사 조약인 나토의 성원국이다. 그런데 이 조약을 기초로 하는 파리 협정에는 서독에게 원자 무기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 예견되여 있었다. 그당시 이 조항은 서부 독일이 미국의 원조하에 그의 경제, 군사적 우세를 두려워하던 영, 불과 같은 나토의 성원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오늘에 와서는 본 통치자들이 이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것은 그들이 원자 무기 생산에 착수하며 본의 군대를 원자 무기로 무장함으로써 나토 성원국들의 원자 무장 경쟁에 정식 참가하여 이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각종 통신에 의하면 크루쁘 공장 시험부와 데웨르꾸젠시 바이애루 공장들은 일련의 원자 무기 시험을 강화하고 있다. 벌써 4월에 영국 신문은 서독 스뚜뜨가르드시 부근에서 현대적 원자 로케트가 생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56년 1월 중순에 본 통치자들은 서독의 유명한 원자 물리학자들에게 군사적 목적을 위한 연구 사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였던 것이다.

본의 통치자들은 나토 성원국들이 서독 령토 내에 원자 무기를 도입하는 데 동의케 하였다. 최근 사회계는 서독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외에 미국이 원자 무기를 비롯한 기타 대량적 살륙 무기를 과거보다 더 많이 서독에 반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현재 독일 련방 공화국은 나토의 구라파 성원국들 중에서 핵 무기가 가장 많이 집중되여 있는 나라로 되여 있다.

원자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본은 미국으로부터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본 지배층의 발언에 의하여서도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파리 협정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정부에게 주기 위하여 나토 수뇌부 회의를 본에서 개최할 데 대하여 동의하였다.

나토 리사회의 최종 콤뮤니케는 나토 성원국들, 우선 독일 련방 공화국을 원자 무기로 무장시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확증하여 준다. 본 정부의 대표자들은 나토 성원국들을 원자 무기로 무장하는 문제는 금년말에야 해결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외무상 로타르 볼쯔 박사가 아데엔 통신 인터뷰에서 성명한 바와 같이 선거시까지 4개월이나 남아 있는 오늘 그들의 이와 같은 언명은 나토가 걷고 있는 길의 위험성을 음폐하며 서독의 전쟁 준비를 기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나토 리사회는 이러한 결정을 이미 채택하였고 금년 12월에는 다만 나토 성원국들의 원자 무장 범위 및 최신 무기와 보통 무기간의 균형 문제를 결정하게 될 뿐이다. 나토 리사회는 이렇게 함으로써 금후 선거시에 아데나우어를 원조하며 서독 인민의 압력으로부터 아데나우어와 그의 정부를 구원하려 한다. 서독 군대를 원자 무기로 무장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문제이며 아데나우어 정부는 나토 리사회에서 원자 무기 경쟁과 힘의 정책의 주요한 옹호자로 등장하였다.

3, 서독의 원자 무기 무장을 반대하는 독일 인민의 투쟁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독일 문제의 정당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리용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왔다. 그는 독일 문제에 대한 자기의 옳은 견해를 수차 표명하였으며 원자 무장의 위험성을 경고하였고 또한 허다한 제의를 통하여 평화의 유지와 독일의 재통일 준비에 대한 대책들을 제시하여 왔다.

서부 독일의 독점체들과 통치자들이 초래한 엄중한 사태와 나토 리사회의 부당한 결정들과 관련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전 독일 인민의 운명에 대한 민족적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본 정

부에게 각서를 보냈다. 각서는 본 정부가 나토 리사회에서 독일 인민 다수의 의사에 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인민의 의사란 서부 독일 령토내에 있는 원자 무기의 근절과 서독 군대의 원자 무기 무장 거부들인 것이다. 동시에 각서는 미국과 독일 련방 공화국의 태도가 평화적 통일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으며 또한 련방 공화국의 원자 무장화는 통일적 평화 애호적 민주주의 독일로 향하는 길을 방해하는 바리케트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량 독일 국가의 통일은 더욱더 곤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각서는 계속하여 원자 무장 경쟁 금지와 구라파 긴장 상태 완화에 대한 구체적 방도들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는 군사적 긴장성의 완화와 서부 독일 및 기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일 현실적인 기여로 될 수 있는 것은 서독 군대를 원자 무기로 무장하지 않는 것과 서독 령토로부터 전체 외국의 대량 살륙 무기를 철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만일에 독일 련방 공화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그의 원자 기지를 서독에서 근절시키라고 요구한다면 이것은 독일에서의 원자 전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실제적 첫걸음으로 될 것이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독일 령토내의 어떠한 외국의 대량 살륙 무기의 배치와 량 독일 군대의 원자 무장화를 거부하며 또한 이러한 무기의 독일에서의 제조를 금지하자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제기하였다. 최근의 각서에서도 우리 공화국 정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상시키고 있다. 《이 제의들은 우리 인민의 사활적 리익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기필코 실현되여야 한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임의의 시기에 해당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

본 정부는 이상과 같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측으로부터의 진지한 태도와 호소, 그리고 호상 리해에 대한 용의에 대하여 《접수하기를 거부한다》는 한마디로써 대답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본의 지배층들이 원자 전쟁을 통하여 구라파에서의 령토 재부들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변경시켜 보려고 발악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여 준다.

그러나 량심적인 독일 사람들은 이러한 흉책을 반대하여 나선다. 금년 4월에는 18 명의 유명한 서독 물리학자들이 궐기하였고 그중 다수의 학자들은 노베루상 수상자들인 것이다. 그들은 아데나우어 정부의 원자 정책을 반대하여 본의 군대 즉 나토 군대에 원자 무기 공급을 결정적으로 거부하며 원자 무기 생산, 시험, 사용에 절대 참가하지 않을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성명은 전 세계의 광범한 반향을 일으켰다. 서독의 진보적 로동자들과 광범한 인민대중,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와 인민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이 이 대담하고 성실한 태도를 충심으로부터 지지하고 있다.

이미 1,000 명의 서부 베를린 직맹 활동가들이 이 성명을 접수하고 원자 무기 무장 위협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서독 군대에의 원자 무기 공급을 반대하는 대책을 취하기 위하여 자유 독일 직맹 련합회 비상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독일 남방의 뮨헨 금속 가공 공장 위원회 위원장은 8만 명의 로동자들을 대표하여 경고 파업으로써 이 원자 학자들의 성명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금년 5. 1절을 원자 전쟁 준비를 반대한다는 전투적 구호로써 경축하였다. 독일 사회 민주당 지방 당 대회들과 독일 직맹 련합회 다수의 지방 단체들은 이 학자들의 호소를 지지하고 있다.

본의 통치자들이 이에 당황하게 되였다는 것은 두말 할것 없다. 처음에 아데나우어는 그 학자들을 비난함으로써 이 중요한 성명을 없애버리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그 학자들을 초대하기도 하였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초대도 위협도 원자학자들의 정당한 립장을 변경시킬 수는 없었다. 그들은 평화와 생활을 위하여 자기들의 확고한 립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 교수 폴메르 박사, 프리드리흐 박사, 에르뗄리 박사를 포함한 14 명의 유명한 물리학자들도 5월 5일 성명을 발표하였는 바 그들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자기 조국 전체에 대한 위협을 두려워할 근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독일 사람이다. 이 위험성은 각종 원자 무기 즉 원자 포탄, 라께트, 원자 폭탄 등의 보존과 관련하여 더욱더 증대된다. 왜냐 하면 가장 약하다는 <전술적> 핵 무기라도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던졌던 폭탄들보다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독일 령토상에 원자 무기의 배치를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한사람의 학자도 핵 무기 연구와 그의 시험을 위한 사업에 결코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성명하였다.

학자들과의 담화에서 옷토 그로테볼 수상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령토상에 하나의 원자 무기도 없으며 또 생산되지 않았으며 또한 금후에 있어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회담에서 학자들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철저한 평화 애호 정책과 독일 재통일 정책에 대하여 완전한 신임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원자 에네르기의 리용과 적용에 대한 량 독일 정부의 립장을 특징지여 주는바 련방 공화국 정부 수상 아데나우어는 대량 학살을 요구하였으며 그로테볼 수상은 새로운 평화적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4, 아데나우어에게 보낸 쓰미르노브의 회답

4월 28일 본에 보낸 쏘련 정부의 각서도 련방 정부가 구라파 인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책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쏘련 정부는 만일 련방 정부가 원자 무장화의 길로 나간다면 위험하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동 각서는 독일 령토상에 외국 원자 무기도, 독일 원자 무기도 허용할 수 없다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오직 이 길만이 구라파에서의 모든 정치 정세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원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독일 인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련방 공화국 주재 쏘련 대사 쓰미르노브는 1957년 5월 5일 아데나우어에게 보낸 자기의 회답에서 쏘련은 현 시기의 긴절한 문제인 군비 축소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독일 련방 공화국의 모든 대책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 ❉

독일의 모든 평화 애호적 진보적 력량이 원자 전쟁의 위험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으며 쏘련과 함께 전체 사회주의 진영이 이를 지지 성원하고 있으므로 독일에서의 평화 유지는 유망하다. 더우기 독일의 운명과 평화 그리고 독일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량어깨에 걸머진 영웅적인 독일 로동 계급의 군국주의와 원자 무기 무장을 반대하는 용감한 투쟁은 독일로 하여금 다시금 전쟁 재화의 장본인으로 만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승리할 것이다.

조선 로동당 투쟁사 연구 자료

일제 식민지 정책의 본질과 그에 의한 조선 사회 계급 구조의 변화

김 선 홍

조선 로동당 투쟁 력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일제 통치하 반일 민족 해방 운동과 로동 운동의 장성 발전 및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를 위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과학적으로 리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에 있어서 일제 통치하의 사회 경제적 형편과 그에 따르는 여러 계급의 성장 발전 및 그 처지의 변화 그리고 혁명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역할을 정확하게 연구 평가하는 것은 불가결한 전제로 된다.

일제 통치하 사회 경제적 및 계급적 구조의 력사적인 변화 발전을 체계적으로 리해하기 위하여 대체로 1910년—1919년에 걸치는 군사 봉건적 무단 통치 시기, 1920년—1929년에 걸치는 소위 《문화 정치》를 표방한 시기, 1930년 이후 조선이 일제 통치로부터 해방되는 날까지의 시기—파쑈적 통치 시기 즉 3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 ＊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애국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일제의 독점적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1910년에 조선을 자기의 독점적 식민지로 강점한 일본 제국주의는 군사 봉건적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우선 정치적 령역에서 강력한 군사, 헌병—경찰 제도를 확립하였다. 2개 사단의 정예 병력을 룡산, 평양, 라남에 배치하였고 함대와 륙전대를 영흥, 진해 등 항만에 주둔시키였다. 또한 13,971 명의 정복 입은 헌병 경찰과 수만명의 헌병 보조원들을 도시와 농촌에 배치하였고, 24 개 소의 감옥을 설치하였으며, 수천개소의 구류소와 류치장을 거미줄처럼 전국에 포치하였다.

한편 일제는 《보안법》, 《형사령》, 《민사령》, 《신문법》, 《교육령》 등 각종 악법들의 실시로 조선 인민으로부터 일체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였고 어떠한 사소한 반일적 경향도 용납하지 않았다.

경제적 분야에서 일제의 강탈 정책은 가장 야수적이였다.

일제는 1910년 12월에 《회사령》을 발포하여 조선 민족 산업의 자립성을 파탄시키고 그의 발전을 적극 억압하였다. 《회사령》은 조선에서의 기업체의 설치, 폐쇄, 해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일제 총독에게 집중시켰는 바 이로써 일제는 조선 산업에 대한 자기의 독점적 지배권의 확립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회사령》 실시로 인하여 일제는 조선 산업의 90% 이상을 독점하게 되였으며 교통, 운수, 체신, 상업, 무역 등 모든 분야를 자기 수중에 틀어 쥐게 되였다. 오직 일부 예속 자본가만이 일제의 소위 《국가 보조금》에 의하여 보존되였다.

일제는 강점 초기에 소규모로 투자하였으나 1910년대 후반기에 들어 서서 훨씬 많은 자본을 경공업 부문에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1917년 불입 자본 중 조선인 자본은 1911년에 비하여 약 2배 장성하였는 데 일본인 자본은 약 7배 장성하였다. 1915년에 일제는 《조선 광업령》을 공포하여 철, 석탄, 아연, 흑연, 석, 수은, 중석 등 조선의 풍부한 지하 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하였다.

1910년대에 있어서 일제는 토지—농업 부문에 대하여 가장 심혹한 강탈 정책을 실시하였다.

조선 강점 전부터 토지 략탈을 자행하여 오던 일제는 강점 이후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조선 농촌에 대한 략탈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1910

년에 《림지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1912년 8월에 《토지 조사령》을 광포하였으며 이때로부터 1918년에 이르기까지 4차에 걸쳐 장기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은 결코 종래의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철폐하거나 봉건적 소작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였다.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은 일본 국가 및 일본인 토지 소유 규모를 더욱 강탈적으로 확대하여 그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었으며, 일제 조선 통치의 기둥인 봉건적 지주들의 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었다.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은 또한 일제가 조선에서 최대한의 리윤을 획득하기 위한 자기의 착취 방법에 적응하게 조선의 농촌을 반봉건적, 반농노적 경리로 편성하는 데 있었으며, 조선 통치의 재정적 기초를 확립하며, 농산물 략탈의 토대를 확고히 이룩하는 데 있었다. 전대 미문의 강제, 협박, 공갈의 방법으로 진행된 《토지 조사 사업》은 이른바 토지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유권의 확립과 토지 귀속권의 확정을 《달성》한 기초 우에서 일제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조선 농민들에 대한 강도적 착취를 자행하게끔 보장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900 여 만 정보의 토지가 《국유지》라는 명목 밑에 일본 총독부와 《동척》을 비롯한 일본인 회사의 수중에 들어 갔으며 일본인 및 조선인 지주들의 수중에는 방대한 면적의 토지가 집중되였으며 절대 다수의 조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되였다.

일제에 의한 토지 략탈로 말미암아 농민의 계급 분화는 급격하게 진행되였다. 1915년에 945,398호였던 소작농은 1919년에는 1,003,003호로 증가되였으며 1913년에 833,771호였던 자작 겸 소작농은 1919년에는 1,045,606호로 격증되였다. 또한 1913년에 586,471호였던 자작농은 1919년에는 525,830호로 감소되였다. 반대로 1919년에 이르러 일본인 및 조선인 지주는 80,385호로 증가하였으며 그는 전체 농가의 3.4% 밖에 안되나 전체 경작지의 50.4%를 점유하고 있었다. 파산된 농민들은 혹은 로동자로, 혹은 화전민으로, 혹은 해외 류랑민으로 되였다.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에 뒤이어 1918년에 소위 《림야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전체 림야 면적 1,600만 정보 중 1,300만 정보를 국유지로 강탈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는 조선 농촌에 대한 야수적 정책으로써 조선 농촌에서 반봉건적 생산 관계를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확립하였으며 조선에서의 봉건적 착취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무제한한 농산물 략탈의 토대와 조건들을 만들어 놓았다.

일제는 산업 및 농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상업, 무역 부문에서도 전형적인 식민지 상업 체계와 무역 체계를 형성하여 놓았다. 일제는 화페—금융 기관을 틀어 쥐고 화페 제도를 정리하며, 도량형 제도를 일본식으로 통일시킨 기초 우에서 상업, 무역의 모든 분야에 대한 독점적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조선인 중 소 상공업자들을 억압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10년대에 일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적 정책들은 조선의 사회 경제적 구조에 커다란 변동을 초래케 하였다.

일제에 의하여 조선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편성되게 되였으며 정치,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식민지 통치 체계와 식민지 경제 체계는 강화되게 되였다.

일제의 이러한 횡폭한 통치 정책을 규탄하면서 브. 이. 레닌은 《일본은 모든 새로운 발명들과 순전한 아세아식 고문을 결합시킨 전대 미문의 야수성으로 조선을 략탈하고 있으며 그를 계속 략탈하기 위하여 싸울 것이다》라고 일제의 악랄한 본질을 폭로하였다.

일제의 조선 강점 초기 10년간의 군사,봉건적 통치 정책의 결과 조선 인민들은 참혹한 상태에 처하게 되였다.

그러면 1910년대 조선의 여러 계급의 처지와 조선 혁명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역할은 어떠하였으며 그들 호상간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사회 경제의 성격은 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제 계급의 특성 및 혁명의 추진력도 규정한다.

로동 계급은 아직 이 시기에 발생기에 처하고 있었다. 일제 강점 초기의 일본 자본 투하는 소규모적이였으나 공장, 기업소들을 증가시켰고 로동자들의 대렬을 증가시켰다. 1910년에 151 개 소의 공장, 기업소와 8천 명의 로동자가 있었다면 1919년에는 1,900 개 소의 공장, 기업소와 48,000 명의 로동자가 있게 되였다. 로동자들의 처지는 참혹하였다. 로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14시간 일하면서도 일본인 로동자에 비하여 (2분의 1) 훨씬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주택 없이 야외의 초막에서 또는 토굴에서 살지 않을 수 없었다. 로동자들은 또한 봉건적인 《전차

금 모집제》, 《선불 임금제》 등에 의한 강제 로동과 《벌금제》, 《전표 임금제》 등 각종 명목으로 가혹한 착취를 당하였다.

조선의 로동 계급은 이러한 비참한 처지——민족적 억압과 정치적 무권리 및 계급적, 경제적 착취——에서 필연적으로 발생기 첫 시기부터 계급적 해방과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련결시킴에 불가분리적인 리해 관계를 가지게 되였다. 로동자들은 아직 량적으로 적으며 혁명적, 조직적 투쟁의 세련을 받지 못하였으며 자기의 혁명적 전위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그는 사회 경제적 처지로 보나 계급적 본성으로 보나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며 장차 조선 혁명의 수령으로 등장할 유일한 계급이였다. 1910년대에 로동자들은 자연 발생적이며 소규모적이였지만 대우 개선과 로동 조건 및 생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견결한 파업 투쟁을 시작하였다. 로동자들은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직 투쟁으로써만 노예적 철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농민은 1910년대 로동 계급이 아직 발생기에 처하고 있는 형편에서 반일 투쟁의 기본 동력으로 된 계급이였다.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조선 농민은 가장 극심한 희생을 당하였다. 농민들은 조상 전래의 땅을 뻬웠으며, 50—80%의 소작료를 물지 않으면 안되였다.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농촌의 계급 분화는 급격하게 진행되였는 데 70% 이상의 농민들이 빈농으로, 소작농으로 전락되였고 수십만명의 농민들이 조국을 떠나 연해주와 만주로 이주하였으며 25만 이상의 화전민들이 산간 벽지에서 연명하고 있었고 30—40만의 농민들이 거처를 잃고 계절을 따라 품팔이로 살았다. 50종 이상의 가렴잡세, 상품—화폐 관계와 은행—금융 조합망의 농촌에의 침투, 특산물 전매제 설정, 각종 무보수 로동의 강요 등등은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렇게 령락된 농민의 머리 우에는 또한 일제와 지주, 고리 대업자, 그리고 일본 관료 경찰들이 군림하여 무제한한 억압과 착취를 진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처지에서 조선의 농민——빈농 대중과 중농들은 토지와 자유를 위한 투쟁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였다. 농민들은 착취와 예속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는 지주를 타도하여야 하며, 지주를 타도하기 위하여는 그와 결탁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점차로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조선에서 로동 계급이 형성되기 전시기에 있어서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기본적 추진력으로서, 주요 담당자로서 자연 발생적이며 분산적이였으나 적극적인 반일 의병 투쟁과 소작 쟁의들을 전개하였다.

1910년대에 조선의 농민은 물론 로동 계급의 령도를 받을 수 없었다.

소부르죠아지——주로 소상인, 수공업자들 그리고 인테리겐챠, 학생들——는 일제의 강탈적 식민지 통치에 의하여 치명적 타격을 받은 계층들이다. 일제의 독점적 산업 및 상업 정책의 실시의 결과 소부르죠아지는 각종 통제와 각종 세금들의 강요와 일본인 및 조선인 예속 자본가들의 억압과 압력하에서 파산과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소부르죠아지는 자기의 계급적 제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강점 정책을 반대하며 조선의 예속적 부르죠아지의 추악한 행동에 대하여 증오하는 립장에 서 있었다.

그리하여 소부르죠아지는 로동자, 농민과 함께 일제의 강점 초기부터 혁명 동력의 일부분으로 되였으며 자기의 계급적 리해의 한계 내에서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참가하고 있었다.

인테리겐챠, 학생들 중의 일부 (예속적 부르죠아지 및 지주와 련결된)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원들은 일제의 탄압과 노예 교육 정책,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하여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조차 박탈 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혁명성을 가지고 반일 민족 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처한 사회 경제적 제 조건 및 계급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테리겐챠, 학생들은 민감하고 선봉적인 역할과 대중에 대한 교양적 역할을 일정하게 수행하게 되였다.

부르죠아지는 주로 중소 자본가들과 예속적 대자본가로 구분되게 된다. 중소 자본가들은 일제의 억압을 받았으며 일제 자본과 조선인 예속 자본과의 경쟁에서 견디여 내지 못하였고 그들에 의하여 구축당하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자체의 경제력이 상당히 빈약하였던 조선의 중소 자본가들은 외래 자본과 예속 자본의 상대로 될 수 없었다.

1910년대에 조선의 부르죠아지들 중 예속 자본가들은 일제와 결탁하여 그의 방조 밑에 장성하게 되였으나 적지 않은 부르죠아지——주로 중소 자본가들은 일제의 자본과 일제의 군사 봉건적 제약

들에 의한 타격과 예속 부르죠아지의 억압을 받았으며 몰락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였다. 산업에서는 물론 상업 무역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일제의 조선 강점 초기부터 조선의 중소 자본가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그와 결탁한 예속 자본가들에 대하여 증오를 느끼게 되였으며 자본주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었던 봉건적 관계에 대하여도 반의를 표시하였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 자본가들은 자체의 계급적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조선 혁명의 동력의 일익으로 참가할 수 있었으며 또 참가하고 있었다. 또한 사실상 이 계급들의 출신인 일부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1910년대에 있어서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을 령도하려고까지 시도하였었다.

조선의 부르죠아지의 다른 한 부분 즉 예속 자본가들은 처음부터 인민을 반역하고 일제와 결탁한 조선 혁명의 원쑤이며 대상이였다. 그들은 일제에 아부하며 일제의 정치적 및 경제적 방조하에서만 부르죠아지로서 존속할 수 있었으며 거부를 장만할 수 있었다. 김 성수, 민 규식 등을 비롯한 대자본가들이 그러한 부류에 속하였다. 1910년대 조선의 예속 자본가들은 주로 경공업 및 상업, 고리대업 등에 주로 련관되여 있었다.

예속 자본가들이 일제와 결탁하는 과정은 다만 경제적인 령역에서 뿐만 아니라 기타의 모든 분야에서 각종 형태로 일제의 앞잡이로 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조선 혁명의 대상으로서의 예속적 부르죠아지는 일제에 복무하며 그에 의지하여 존립하며 《농촌의 봉건적 세력과 천갈래 만갈래로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원쑤들이였다.

지주는 조선 강점 첫날부터 일제와 결탁하였고 그와 운명을 같이하게 되였다. 왜냐 하면 지주는 오직 일제의 비호하에서만 봉건적 지주로서의 존재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농민들에 대한 지주적 착취를 고정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조선의 봉건적 지주들은 1910년대에 있어서 일제의 악랄하고 야만적인 토지 조사 사업의 혜택으로 방대한 토지를 일제와 함께 나누어 가졌다. 그리하여 지주는 일제 조선 통치의 사회적, 정신적 기둥으로 되였으며 또한 일제의 정치적, 법률적 비호 밑에서 농민들에 대한 봉건적인 경제적 및 경제 외'적 착취를 유지 강화하게 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년대 일제의 군사 봉건적 통치 정책에 의한 조선의 사회 경제적 형편과 그에 상응한 제 계급의 상태는 조선 혁명의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성격과 그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혁명의 동력과 대상에 대한 비교적 선명한 판정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로부터 조선 혁명은 일본 제국주의를 구축하며 동시에 그와 결탁한 예속적 부르죠아지와 지주들을 타도하는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민주 혁명이며 이 혁명의 동력은 계급적 리해의 상치에도 불구하고 로동 계급, 농민, 소자산 계급 및 일부 민족 부르죠아지(예속 부르죠아지가 아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아직 1910년대에 있어서 인민들은 혁명의 반제, 반봉건적 성격과 그의 과업에 대하여 명백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혁명의 동력 구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10년대에 전개된 반일 혁명 투쟁들은 제각기 분산적이고 호상 련계를 맺지 못하였으며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각 계급의 투쟁이 고립적으로 전개되였다. 로동 계급이 아직 발생기에 처하고 있었던 조건에서 농민은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주요 담당자이며, 기본 추진력이였으나 그는 전반적 투쟁을 조직 지도하는 계급으로는 될 수 없었으며 또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정은 1919년 력사적인 3.1 인민 봉기가 명확히 실증하여 주고 있다. 인민들은 3.1 인민 봉기를 통하여 비로소 누가 혁명의 원쑤이며 누가 혁명의 편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투쟁 무대에 등장하면서 있던 로동 계급에게 장래 투쟁에 대한 기대를 걸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은 3.1 인민 봉기 이후 1920년대에 들어 서면서 급격히 전파 침투된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영향하에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 서게 되였다.

* *

1920년대에 들어 서면서 일제는 종래의 무단 통치 방법을 《문화 통치》로 바꾸었다. 일제의 《문화 통치》에로의 이행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정에 기인되였다. 즉 한편으로는 1919년 3. 1 인민 봉기를 통하여 식민지 통치 체계가 위기에 처하게 되였으며 조선 인민의 비등된 반일적 기운 앞에서 종래의 무단적—군사 봉건적 통치 방법을 그대로 계속 적용할 수는 없게 되였다는 사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 자체가 제1차 세계 대전을 통하여 일약

치부를 하게 되여 이미 1910년대에 처하고 있었던 자본주의 발전의 빈약성을 일정하게 극복하게 되였고 조선에의 자본의 다량적 투입이 가능하게 되였다는 사정들이였다.

《문화 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일제의 조선 인민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약화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교묘하게 강화하였다. 《문화 정치》는 사실에 있어서 종래의 폭력적 통치 방식을 문화적인 외양으로 간악하게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였다.

정치적 령역에서 일제의 식민지 강압 체계는 일층 조직적으로 정비 강화되였으며 발전되였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권리를 허용하는 듯이 겉으로 떠들어 대면서도 실제상 그를 더욱 간교하게 억압 유린할 수 있는 모든 체제와 조건들을 조작하였다. 헌병 경찰제는 보통 경찰제로 바꾸어졌으나 그의 력량과 포치망은 전국에 걸쳐 더욱 조밀하게 확대되였다. 1917년에 1,700 개 소였던 경찰 기관은 1921년에 이르러서는 2,721 개 소로 확장되였으며 여기에는 18, 589명의 경관들이 배치되였다. 1925년에는 《치안 유지법》을 발포하고 각종 규칙으로써 조선 인민의 일거 일동을 감시하며 구속하였다.

경제적 분야에서도 식민지 경제 체제는 일층 강화되였다.

막대한 전시 리윤에 의거하여 자본에 의한 수탈을 본격적으로 강화한 것과 《조선의 자본주의화》의 명목 밑에서 조선의 사회 경제적 구조에 더욱 깊이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을 부식시킨 것이 1920년대 일제의 경제 정책의 특징이였다.

일제는 1920년에 《회사령》을 철폐하고 《계출제》를 실시하여 회사와 기업체들의 설립을 《자유롭게》 하여 놓았으며 또한 일본 자본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폐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초부터 일본 자본은 대량적으로 조선에 투입되게 되였는데 비록 기형적이나마 산업은 확장되였고 교통 운수 시설들이 증설되였다. 1917년에 1,358 개 소의 공장, 기업소들이 있었다면 1928년에는 5,342 개 소로 증가되였으며 산업 생산액은 1917년에 8천 4백 73만 1천 원이였던 것이 1928년에는 3억 1천 871만 3천 원으로 격증되였다. 이 투자 자본 총액중 90.6%가 (1928년) 일본 부르죠아지의 것이였다.

일제의 농촌에 대한 착취와 강탈도 간악하게 진행되였다.

일제는 《산미 증식》, 《남면 북양》, 《서북선 개척》 등 각종 구호하에 식량 및 원료의 가일층의 략탈을 획책하였다. 일제는 매년 1,000만 석의 량곡을 강탈할 목적으로 《토지 개량》과 황무지 개간에로 농민들을 강제 동원하였다. 증산된 량곡의 과반분이 일본으로 반출되였는데 1918년에는 220만 석, 1930년에는 900만 석이였다. 일제는 미곡 이외에 각종 공예 작물에 대한 략탈도 강화하였다. 담배, 인삼, 아편 등에 대한 점탈과 양모, 면화, 누에고치 및 기타 일반 공예 작물에 대한 대량적인 략탈을 감행하였다.

상업, 무역 분야에 대한 일제의 독점적 지배 체계도 일층 강화되였다. 일제는 1920년대에 있어서 대외 무역의 거의 전부를 독점하였으며 국내 상업에 있어서도 조선인 중소 상업자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였으며 일본 상인에게 특권적 조건을 지어주었다.

교육, 문화 방면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겉으로 《계발》, 《문명》, 《자유》를 떠들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우민화 정책을 일층 강화하였으며 노예 교육 제도를 더욱 체계화하였다. 조선 력사를 비롯한 조선 관계 학과목의 정규적 교수가 전'적으로 금지되였거나 또는 엄격한 단속을 받게 되였으며 학원의 자유란 찾아 볼 수 없었다. 농민들의 계몽을 위한 농촌 야학들도 적들의 강압을 받았다.

이상과 같이 1920년대 《문화 정치》를 표방한 일제 침략 정책은 조선의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강력히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적 강압 체계는 더욱 간교하게 강화되였고 근대화되였으며, 식민지 경제의 편파성과 기형성은 경제의 내부적 구성, 그들 간의 호상 관계 등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1910년대에 비하여 비할바 없이 확장되고 심각화되였으며, 식민지 우민화 정책에 기초한 문화 교육 분야의 노예적 교육 형식과 내용도 더욱 체계화되게 되였다.

이 모든 사회 경제적 변화들은 조선 로동 계급을 비롯한 여러 계급의 처지와 특성에 더욱 심각하게 반영되였으며 혁명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역할을 더욱 선명하게 규정하였다.

그러면 1920년대 조선의 여러 계급의 처지는 어떠하였으며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그들 호상간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로동 계급은 가장 비참한 《문명적》 노예 상태에 처하고 있었다. 로동자들은 기아 임금을 받았으며 12시간—16시간의 장시간 로동을 계속 강제 당하였다.

로동자들은 일제의 강탈적 착취 이외에 조선인 예속 부르죠아지들의 착취를 받았으며 또한 반봉건적인 억압과 구속도 당하였다.

그런데 1920년대 로동 계급의 상태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그의 대렬이 장성 확대되였고 또한 혁명 투쟁을 통하여 점차 자위적 계급에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그것이다. 기형적이며 편파적이였지만 조선에서의 식민지 산업의 확장과 발전은 로동자들의 대렬을 우선 량적으로 증대시키였다. 1917년에 정규 산업 로동자 수는 42,000명 이였는데 1925년에는 80,000명으로, 1928년에는 약 1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1920년대 하반기에는 정규 산업 로동자들 이외에 수만명의 광산 로동자들과 기타 수다한 자유 로동자들이 있었다).

식민지 경제의 기형성, 편파성은 불가피적으로 조선 로동 계급의 규모와 직종 구성을 규정하게 되였다. 즉 1920년대 조선 로동 계급은 대부분이 소규모적 공장, 기업소 (200명 이하)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또한 압도적 다수가 경공업 분야에 종사하였으며 80% 이상이 초보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였다. 형성기에 처하여 있었던 조선 로동 계급의 이러한 조직과 규모의 수준, 문화적 수준의 미약성과 저급성은 그의 하나의 약점이였다.

그러나 조선 로동 계급은 1920년대 초부터 민족 해방 운동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위대한 10월 혁명과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영향하에 실제 투쟁을 통하여 계급적으로 각성되였으며 혁명적으로 단련되여 갔다.

1920년대 초부터 인류 해방의 길을 열어 놓은 위대한 10월 혁명의 영향하에 급격히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조선에 전파된 결과에 《우리 나라의 산업 중심지들에서 선진 로동자들과 인테리 속에서는 비밀리에 맑스—레닌주의 소조들이 발생》하였으며, 《운동의 다음 단계에 이르러 맑스—레닌주의는 분산된 소조 형태로부터 대중적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의 령역에 출현하여 그에 조직성과 목적 지향성을 주게 되였다》 (김 일성 선집, 4권 4페지).

이리하여 로동 계급의 투쟁은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였으며 일본 략탈자들을 반대하여서만 아니라 조선의 예속 부르죠아지와 봉건 지주들을 반대하여서도 진행되였다. 로동 계급은 실제 투쟁을 통하여 점차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을 자기의 전략 전술적 기초로 삼기 시작하였으며 자기의 조직——대중 단체들을 창건하기 시작하였으며 혁명적 전위——공산당 창건에로 적극 지향하였다. 동시에 로동 계급은 농민 운동을 비롯한 다른 계급들의 반일 투쟁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게 되였으며 그들과의 련계를 실현하기 시작하였다.

농민은 이 시기에 지난 년대에 비하여 더욱 심혹한 착취를 당하였다. 일제의 농촌에 대한 수탈의 가일층 강화는 농민의 계급 분화를 계속 심각화하였다. 소작농 대렬은 계속 증가되였고 자작농과 자작 겸 소작농은 계속 파산 당하여 소작농으로 전락되고 있었다. 화전민의 대렬은 계속 비참한 처지에 있었다. 수십만의 농민들은 해마다 해외에로 이주하여 갔다. 1925년에 이르기까지 150만 명의 농민들이 해외에로 류랑하여 갔다(강점 이후부터 1925년까지).

파산 당한 수 많은 농민들은 도시에로 흘러 갔으나 그의 대부분은 직업을 얻지 못하고 다시 농촌에로 돌아와 더욱 참혹한 반봉건적, 제국주의적 착취를 당하게 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농민들은 일제와 지주들에 대한 증오심을 제고하게 되였으며 그들을 반대하는 혁명적 진출을 더욱 강화하였다.

농민들의 투쟁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영향과 로동 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발전되여 갔다. 농민들의 혁명성은 상당하게 제고되였고, 투쟁에 있어서의 조직성도 현저하게 강화되여 갔다. 1910년대와는 달리 1920년대의 농민은 로동 계급의 조직적, 혁명적 진출에서 고무와 격려를 받았으며 투쟁에서 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였다. 농민들은 농민 조직—대중 단체들을 결성하여 운동의 통일과 단결에 기여하였으며 로동 운동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소부르죠아지는 역시 1920년대에 일제와 조선 예속 부르죠아지의 압력하에서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되였다. 특히 일제에 의한 대량적 투자와 그의 독점적 산업 및 상업 정책의 결과 조선의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영업 조건과 생존 조건은 급격하게 악화되였다. 해마다 수 많은 소상인, 수공업자들은 파산당하고 로동자로 직업을 바꾸어 공장으로 들어 갔다. 이러한 형편에서 그들은 일제와 그의 주구 예속적 부르죠아지와 지주들을 반대하여 더욱 혁명적

으로 궐기하게 되였다. 1920년대에 있어서 그들의 투쟁은 벌써 로동 운동의 지도적 영향과 지지를 획득하기 시작하였다.

인테리겐챠, 학생들도 1920년대 일제의 간악한 문화 교육 정책의 결과 진정한 배움의 길을 두절당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일제의 노예적 문화 교육 제도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통치 체계를 전복하는 투쟁의 령역에까지 진출하게 되였으며, 이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와 로동 운동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였다.

부르죠아지의 내부적 분렬은 1920년대에 더욱 심각하여 졌다. 중소 자본가들은 일제의 대량적 자본 수출과 상품 수출 및 국내 시장의 독점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업을 유지해 나갈 수 없었으며, 시장에서의 경쟁은 그들의 패배와 몰락을 초래할 뿐이였다. 그들은 일제에 의한 각종 법률적 제약과 세금의 과중한 부과 앞에서 《자유롭게 발전》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국내 시장에서 몰락과 패배적 운명을 체험하면서 더욱 민족주의를 배우게 되였으며 반제국주의적 투쟁에 대한 일정한 각오를 더욱 다지게 되였다. 중소 자본가들과 예속적 매판 자본가들과의 사이의 모순도 1920년대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로 격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중소 자본가들은 자체의 계급적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로동 운동의 급격한 발전 앞에서 주저와 동요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투쟁에서 철저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사상적 대변자들은 민족 해방 운동의 령역에서 물러 서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동 운동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민족 해방 운동의 강력한 조류 속에 그들은 여전히 서 있었으며 로동 계급의 강력한 혁명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조선 혁명의 대상으로서의 예속 부르죠아지는 1920년대에 이르러 더욱 반역적인 길에로 굴러 떨어졌다. 그들은 일제의 비호 밑에 자기의 경제적 지반을 더욱 확장하였으며 또한 일본 자본과의 공동 출자에 의한 기업을 더욱 확대하였다. 예속적 부르죠아지들은 정치적 분야에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일제의 침략 정책을 방조하며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을 약화시키는 책동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일제와 함께 중추원을 확충하여 지주들과의 결탁을 일층 강화하였으며 심지어 1920년대 중엽에 이르러서는 《자치 운동》과 같은 기만적 구호를 들고 조선 인민의 일제에의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려고까지 하였다.

지주는 1920년대에 일제와 더욱 악질적으로 결탁하였고 예속적 부르죠아지와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면서 농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상공업에 투자한 자본을 통하여 도시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도 더욱 확대하였다. 지주들은 3. 1 인민 봉기와 1920년대 상반기부터 급속히 장성하는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에 겁을 집어 먹고 일제와의 결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책동하였으며 혁명 력량에 대한 《공세》를 목적으로 예속적 부르죠아지와 《합세》하였다.

이상과 같이 1920년대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 형편과 제 계급의 처지와 혁명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1910년대에 비하여 더욱 현저한 정도로 명백하여졌다. 1920년대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로동 계급이 량적으로 장성되였고 혁명적 투쟁을 통하여 형성기를 체험하고 있었다는 점이였으며 또한 로동 운동 자체가 발전 일로를 걷고 있는 한편, 민족 해방 운동의 다른 모든 령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있었다는 점이였으며 특히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의 련계가 초보적으로나마 강화되면서 있었다는 점들이였다. 로동 계급은 다른 모든 계급들 (예속 부르죠아지, 지주를 제외한)에 대한 령도적 계급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자기의 혁명적 전위—공산당을 창건하였으나 실제 운동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령도권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로동 계급은 자기의 견실한 공산주의적, 지도적 핵심 대오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종파주의자들의 심중한 범죄적 행동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1925년에 창건된 조선 공산당의 해산과 관련된 제 사실과 교훈은 로동 계급의 령도권이 객관적 요구로만 남아 있게 되였고 실천되지 못하였으며, 운동에서 종파주의, 수공업주의, 자연 발생성, 분산성 등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었던 1920년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1920년대에 있어서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농민, 소부르죠아지 및 일부 민족 부르죠아지를 포괄한 혁명의 동력은 1910년대에 비할바 없이 강대하게 장성되게 되였고 그들은 점차로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지도와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반대로 예속 부르죠아지와 지주들은 더욱 혁명의 적으로, 일제의 앞잡이로 되여 버렸으며 이때에 와서는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을 와해 약화시키며 로동자, 농민 운동을 진압하는 공개적인 반혁명적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 *

1920년대말— 1930년대초 (1929년— 1933년)와 1937년에 세계 자본주의 체계는 심대한 파괴력을 가진 경제 공황에 휩싸이게 되였으며 자본주의의 제 모순은 더욱 격화되였다.

일제도 역시 이 기간에 경제 공황의 심중한 피해를 입었다. 일제는 자국내에서 파쑈적 통치 체제를 수립 강화하면서 1931년에는 만주를 강점하고 1937년에는 드디여 중국 관내에로 침습하였으며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는 데까지 나갔다. 일제의 파쑈화와 침략 전쟁의 계속적 도발은 조선의 사회 경제적 형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는 경제 공황으로 말미암아 입은 피해의 중하를 조선 근로자들에게 넘겨 씌웠으며 침략 전쟁의 물질적 및 인적인 부담을 조선 인민에게 전가시켰다. 1930년대—1940년대 상반기에 이르는 기간은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 정책이 가장 악랄한 파쉬쓰트적 형식과 내용으로 관철된 그러한 시기였다. 일제는 1930년대 초부터 급격하게 경찰망을 확대시켰는 데 1939년에 이르러는 24,064명의 정복 입은 경찰관과 무수한 스파이망을 늘여 놓았으며 경찰 보조 기관으로서의 경방단을 새로 조직하였다. 일제는 또한 《군기 보호법》, 《조선 림시 보안령》, 《사상범 예비 구금령》 등을 비롯한 각종 파쑈적 악법들을 조작하여 조선 인민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탄압을 단행하였다. 일제는 혁명의 변절자 및 자기의 주구들을 사촉하여 반공산주의 단체들을 허다하게 조작하였으며 조선 인민을 파쑈 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았다.

경제적 령역에서 일제는 조선을 파쑈 전쟁의 《공고한 후방》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대규모적 군수 산업의 확장과 자연 부원에 대한 가일층의 략탈에 주요한 목적을 돌렸다.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 서면서 급진적으로 식민지 산업—주요하게는 군수 화학 부문—을 확장시키였다. 공업 총생산액은 1930년에 2억 8천 96만 3천 원이였는 데 그에 비하여 1937년에는 3배로, 1943년에는 7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공장수에 있어서도 1930년에 4,613 개 소이던 것이 1936년에는 5,927 개 소로 증가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 증설되였으며 새로운 산업 지대들이 형성되였다.

전기, 금속, 화학 등 군수 공업의 비중은 1936년에는 전체 공업의 34.2%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그 후에도 매년 장성되여 40%를 넘게 되였다.

일제는 또한 1930년대 이후 조선의 지하 자원 략탈에 더욱 광분하게 되였는바 1930년에 광업 생산액은 1억 5천 여 만원이였는 데 1943년에 와서는 4억 4천 여 만원으로 격증되였다. 이 외에도 수다한 교통 시설들이 설치되여 식민지 략탈을 더욱 편리하게 하였다.

일제의 농촌에 대한 략탈도 1920년대에 비할 바 없이 악랄하게 진행되였다. 일제는 《농공 병진》, 《농촌 진흥》, 《자작농 창설》 등의 구호를 들고 농촌 수탈을 강화하였는 데 1930년대 이후 일제는 미곡 천만 석 이상과 공예 작물 등을 략탈하였다.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 와서는 강제 공출, 강제 로동으로 농민들을 착취하였다.

일제는 한편 농민들의 반항을 압살하며 농촌에 대한 착취를 강화할 목적으로 《소작 조정령》, 《농지령》을 발포하였고 나중에는 《식량 영단》을 조직하였으며, 각종 세금 제도를 일층 개악 강화하였다.

상업, 류통 분야에 대한 일제의 독점 정책은 여전히 강화되였으며 조선인 중소 상업가들의 쇠퇴와 몰락은 일상사로 되고 있었다. 특히 1930년대 하반기에 이르러 일제에 의한 각종 세제 및 가격 통제의 강화는 조선인 중소 상공업자들에게 심중한 타격을 주었다.

교육, 문화 부문에 대한 일제의 파쑈적 통치는 1920년대에 비하여 더욱 악랄하게 그리고 가장 반동적으로 실시되였다. 《문화 정치》의 흔적은 찾아 볼 수도 없었으며 학원의 자유와 문화 활동의 권리는 완전히 유린되였다. 일본식 생활 양식과 황민화 교육 방침이 전면에 걸쳐 강제되였으며 심지어는 학도 지원병 등으로서 청년 학생들을 전쟁에 내몰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은 극악한 파쉬쓰트적 형식과 내용으로 일관되였으며 그 결과 조선의 사회 경제적 상태에는 현저한 변화가 일어 났다.

군수—화학 공업의 돌출적 발전을 그 내용으로 한

조선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이 가일층 강화되였으며 산업 내부에서의 불균형성이 심각하게 조성되였으며 농촌의 피폐와 쇠퇴가 더욱 혹심하여졌으며 조선인 중소 상공업자들의 파산은 계속되였으며 근로 대중의 빈궁화는 가일층 증대되였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형편은 1930년대 조선의 여러 계급의 처지와 그들의 조선 혁명에 대한 태도와 그들 호상간의 관계들에 명백하게 반영되였다.

그러면 1930년대 조선의 여러 계급은 어떠한 처지에 있었으며 혁명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은 어떠하였는가?

로동계급은 이 기간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강력한 혁명적. 령도적 계급으로 발전하였다. 식민지 산업의 급격한 확장은 로동자들의 대렬을 일층 증가시키였다. 1931년에는 10만 6천명으로, 1937년에는 20만 7천명으로 산업 로동자들의 대렬이 확대되였다. 지하 자원 략탈의 강화와 관련하여 광산 로동자의 수도 격증되였는 데, 1931년에는 3만 5천명, 1937년에는 16만 1천명으로 장성되였다. 그러나 식민지 산업의 령세성은 여전히 심하였다. 과반수 이상의 로동자들이 100명 이하의 소규모적 기업소들에서 일하고 있었다.

식민지 산업의 확대에 따르는 로동자들의 빈궁화의 과정도 심각하였다.

더우기 련거퍼 자본주의 체계를 뒤흔들어 놓은 경제 공황은 로동자들의 로동 조건과 생존 조건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공황의 중하를 로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고 기도한 일제와 자본가들의 횡폭한 제 조치로 말미암아 조선 로동자들은 생지옥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로동 강도는 한층 혹독하여졌다 (특히 군수—화학 공장에서). 어떤 공장, 기업소에서나 초보적인 사회 보험 조치도 강구되지 않았다. 로동 임금은 1920년대에 비하여 더욱 기아적 수준이였으나 그 마저 공황기에는 30%—50%까지 저하되였다. 1929년—1933년의 경제 공황과 1937년부터 시작된 재차의 공황으로 인하여 허다한 로동자들이 강제 해고되여 실업군을 이루어 거리로 방황하게 되였다.

일제는 로동 계급에 대한 경제적 략탈과 함께 전대 미문의 정치적 탄압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조선 로동 계급은 1930년대에 들어 서면서 로동 운동의 새로운 전환기로 넘어 가게 되였으며 드디여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하에 반일 무장 투쟁의 시기에로 진입하게 되였다.

1930년대 조선의 로동 계급은 지난 년대의 제약성들을 과감히 극복하여 나갔으며 영웅적인 반일 무장 투쟁을 통하여 조선 혁명에서의 로동 계급의 령도권을 견고하게 실현하게 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자기의 전략 전술적 기초로 확고하게 삼게 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기초를 공고히 축성하였다.

농민은 1930년대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로서, 혁명의 강력한 동력의 하나로서 진출하였다. 1930년대 조선 농민의 처지는 1920년대에 비하여 더욱 처참하였다. 거듭된 경제 공황은 농민들에게도 심중한 타격을 주었으며 농민의 토지 상실 행정을 격화시키였다. 거기에 일제의 파쑈 전쟁 준비를 위한 농촌 략탈의 강화는 농민들의 처지를 말할 수 없이 령락시키였다. 농민들은 수확한 농산물의 거의 전부를 일제와 지주에게 강제 징수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명하기 위하여 거액의 부채를 걸머졌다. 1930년대 초기에 있어서만 하여도 150만 호 이상의 농가가 각종 부채에 얽어 매여 신음하였는 데 이 수는 1930년대에 이르러 더욱 격증되였다. 일제와 지주들의 농민들에 대한 수탈의 가일층의 강화는 농촌에 있어서 계급 분화를 더욱 심각화시켰다. 1936년에 이르러 1정보 미만의 농경지를 가진 농가는 전체 농가의 64% 이상을 넘게 되였으며 그중 80%—90%는 절량 농가였다. 《동척》을 비롯한 일본인 회사들과 일본인 지주 및 조선 지주의 수중에의 토지의 집중은 1930년대 하반기부터 더욱 급격히 진행되였다. 부득이 토지를 빼앗기고 농촌을 떠나게 된 수 많은 농민들은 일제에 의하여 군사 기지 건설장에 끌리워 들어가 마지막 기름 한방울까지 착취 당하였다. 1930년대 말부터 일제는 대량적으로 농민들을 《징용》에로 몰아 냈으며 심지어는 《징병》까지 야만적으로 강요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1930년대 초기부터 조선 농민들은 결코 일제와 그 주구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으며 강력한 로동 운동의 영향 밑에서 폭동적 투쟁에로까지 나아갔으며 드디여는 반일 무장 투쟁에 참가하여 로동 계급과 함께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승리를 위한 최종적 결전에로 들어 섰다.

1930년대의 조선 농민 운동은 비로소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와 로동 계급의 계급적 령도를 의식적으로 받게 되였으며 로농 동맹을 견고하게 형성 강화하였다.

소부르죠아지는 1930년대에 대대적인 파산을 당하게 되였다. 공황은 도시 소상인, 수공업자들에게 각종 형태로 타격을 주었다. 그들은 달마다, 해마다 각종 세금을 바쳐야 하였으며, 일제의 각종 상업 단속을 받았으며, 일본인 상업 자본과 조선인 예속 상업 자본의 압력에 견디여 낼 수 없었다.

이리하여 1930년대 조선인 도시 소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은 몰락과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 대량적으로 산업 예비군으로 전락되였다. 인테리겐챠 학생들도 1930년대에 들어 서면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 시련을 받게 되는바, 가정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몰락과 파산을 체험하였으며 밖에서는 배움터를 유린 박탈 당하였으며, 지어는 파쑈 전쟁의 대포'밥으로까지 동원되게 되였다. 도시 소상인, 수공업자들은 일제와 그의 주구들에 대한 혁명적 격분을 더욱 느꼈으며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혁명 동력의 일익에 여전히 서 있게 되였다. 인테리겐챠, 학생들은 문화 운동과 학생 운동을 로동 운동과 적극 련결시키는 데로 지향하였으며 이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를 의식적으로 접수하게 되였다.

부르죠아지는 1930년대에 더욱 그의 면모와 내용이 변화하였다. 중소 자본가 계층들은 전면에 걸쳐 파산되였거나 또는 파산에 직면하고 있었다. 1930년대에 거듭된 공황의 타격과 일제에 의한 산업의 정비, 군수—화학 공업의 대대적 확장 등으로 인하여 중소 기업소의 몰락 과정은 급속하게 진행되였다. 다만 연명하고 있었던 중소 기업소들은 일제의 군수 공장의 분공장으로 되여 버렸거나 또는 군수품 부속의 제조와 소규모 광산 경영에 국한되였다. 1937년 이후 시기에도 중소 기업체들의 파산은 계속 촉진되였다.

적지 않은 중소 자본가들은 파쑈적 일본과 그의 독점적 산업 정책 및 민수 생산 억압 정책에 대하여 더욱 심중한 반감을 가지게 되였고 일제와 결탁한 예속 자본가들에게 대한 반항의 기세를 높이게 되였다.

그러나 예속 자본가들의 처지는 판이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 서면서 그들은 일제의 식민지 경제 체계의 말석에서나마 계속 일제의 비호 밑에 자기의 재부를 축적하였으며 심지어는 군수 산업에까지 투자하게 되였다. 1930년대말—1940년대 초에 그들은 적지 않은 투자를 군수 생산에 돌리므로써 직접 자본으로서 파쑈 전쟁에 일제와 함께 나섰다(례로 박 홍식의 조선 비행기 주식 회사—자본금 5,000만원). 예속 자본가들은 경제적으로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계속 강화하였으며 중소 상공업자들에 대한 배척을 주저 없이 감행하였으며 동시에 지주로서의 그들은 농촌에서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통하여 농촌에 대한 착취도 겸하여 진행하였다. 정치적으로 예속 자본가들은 공개적인, 로골적인 반역자로 되였다. 1930년대 상반기부터 그들은 로동 운동을 비롯한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탄압에 각종 형태로 참가하였으며 1930년대 하반기부터는 파쑈 전쟁에 인민들을 내몰며 반공산주의적 진출을 로골적으로 책동하였으며 《황민화 운동》의 《선구자》가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선 혁명의 간악한 원쑤로서 용납할 수 없는 허다한 범죄적 행동을 감행하였다.

지주는 1930년대에 있어서 일제의 파쑈 전쟁을 위한 《공고한 후방》의 일익을 조선 농촌에서 처음부터 담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1930년대 상반기에 있은 공황의 중하를 농민들의 량어깨에 넘겨 씌우면서 그들을 심혹하게 착취하였으며 1930년대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배'속을 채울대로 채우는 한편 일제의 《공출》을 비롯한 갖은 략탈을 보장하여 주었으며 심지어는 위협 공갈로써, 채찍질로써 《징용》에로 농민들을 내몰며 청년들을 《징병》에로 끌어 내였다.

그런데 일부 중소 지주들 속에서는 일제의 전대 미문의 폭압과 일제에 대한 비등된 전 민족적인 적개심의 영향하에서 동요하며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현상이 있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지주들은 일제의 충실한 앞잡이로서 예속 자본가들과 함께 조선 인민의 원쑤로서 갖은 반역적 행동을 다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0년대 조선의 사회 경제적 형편과 여러 계급의 처지에는 파쑈화한 일제 통치의 본질과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였다. 그리하여 1930년대 이후의 조선 혁명의 동력은 의연히 로동 계급을 선두로 농민, 소자산 계급, 그리고 민족 부르조아지들이였다. 이 모든 계급들은 1930년대 초부터 조직 전개된 김 일성 동지 지도하의 반일 무장 투쟁의 영향하에서 결속되여 갔으며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

의 지도 밑에 단일한 전투 진영으로 조직화되여 갔다.

조국 광복회의 결성—그것은 바로 1930년대에 있어서 조선 혁명의 정확한 로선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기치 밑에 혁명의 동력들을 로동 계급과 그의 전위의 령도 밑에 견결히 결속 단결시킨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였으며 일제와 그의 주구—친일파, 민족 반역자, 예속 자본가, 지주들을 대치한 전 인민적 동맹의 혁명적, 조직적 결성을 의미하였다. 1930년대 반일 무장 투쟁의 전체 행정을 통하여 로동 계급의 령도권은 확고하게 실현되였고 로농 동맹은 견고하게 형성 강화되였으며 그 주위에 기타 혁명 동력들은 한결같이 결속되였으며 또 되여 갔다. 혁명의 성격과 임무가 제시하는 방향에서의 혁명 동력들의 단결과 그의 조직화의 실현, 그것은 오직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되였고 혁명적 시련에서 단련된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과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로동 계급의 령도가 확보되였기 때문이였다.

※　　※

일제 통치 시기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 및 계급적 제 관계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리해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는 해방 후 조선 로동당의 정치—조직 로선의 정당성과 그의 모든 정책의 위력성을 다시금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 로동당은 자기의 모든 정책을 확정함에 있어서 항상 해당 시기의 사회 경제적 형편과 그에 상응한 계급적 특성 및 제 관계에 대한 진실로 맑스—레닌주의적 분석과 평가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로동당의 모든 정책에는 사회 경제적 발전의 객관적 요구들과 혁명의 여러 동력의 리해 관계가 충분히 통일적으로 반영되였으며 그는 실천에서 항상 인민 대중의 적극적 지지를 전취하였으며 또 전취하고 있다.

정정 : 근로자 1957년 6호 86페지 첫단 17행 《加》를 《可》로, 동페지 첫단 34행 《류 진석》, 87페지 10행, 24행 《류 진석》을 《류 린석》으로, 87페지 첫단 18행 《리 상련》을 《리 강련》으로, 88페지 첫단 1행 《인권》을 《민권》으로, 94페지 첫단 31행 《달아산》 을 《달마산》으로, 97페지 둘째단 12행《가리말고》를 《가리지 말고》로.

63페지 첫단 12행 《않으면 안된다.》를 《않으면 안되는》으로, 동페지 21행 《4권 〈2〉, ……31—32 페지》를 《4권 〈1〉…… 321—322페지》로 각각 정정함.

《근 로 자》 제7호 (루계 제140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인쇄 1957년 7월 20일

인쇄소 로동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7년 7월 25일

ㄱ—40 557　값 45 원